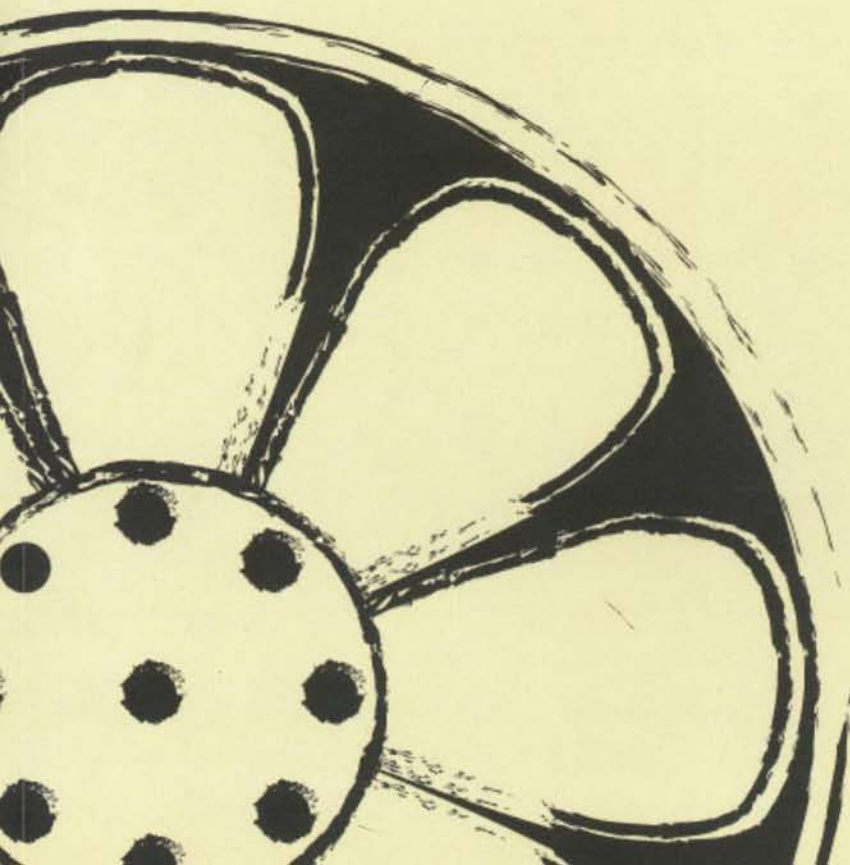


경기도화성시  
마도면편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12

김용국



화성시 · 화성문화원



**필자 김용국**

문학박사 (고전문학, 민속학전공)  
(사)동아시아 전통문화연구원장

**현직**

-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문화정책)
- 오산시 시정자문위원
- 화성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 KBS 한국어진흥원 국어순화위원
- 동아시아일본학회 회원
- 한국민요학회 회원
- 한국동양예술학회 회원

**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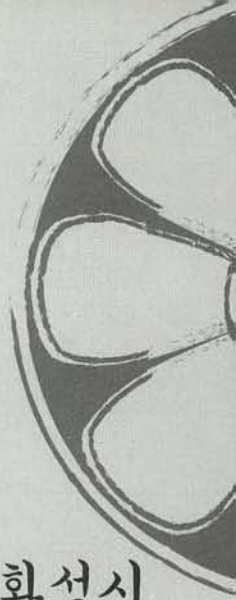
- 오산시사편찬위원
- 화성시정책자문위원
- 17대 대선 메니페스토비교분석단  
(문화정책평가대표필자)
- 경기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장안대학교 외래교수

**저서**

- 『수원문화의 뿌리·설화, 제당편』 (설성경·김용국),  
2000, 수원문화원
-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1권~12권』  
2004~2014, 화성시·화성문화원
- 『오산의 마을신앙』 2006, 오산문화원
- 『황해도 거침 뺨인영감굿 e북』  
2007, 황해도굿 보존회
- 『입축오주』 2008, 세계화장실협회
- 『오산의 구비전승, 오산의 민속』  
2008, 오산시·오산문화원
- 『문화관광자원론』 (공저) 2009, 大旺社
- 『동아시아 경기제의 비교연구』  
2010, 경기개발연구원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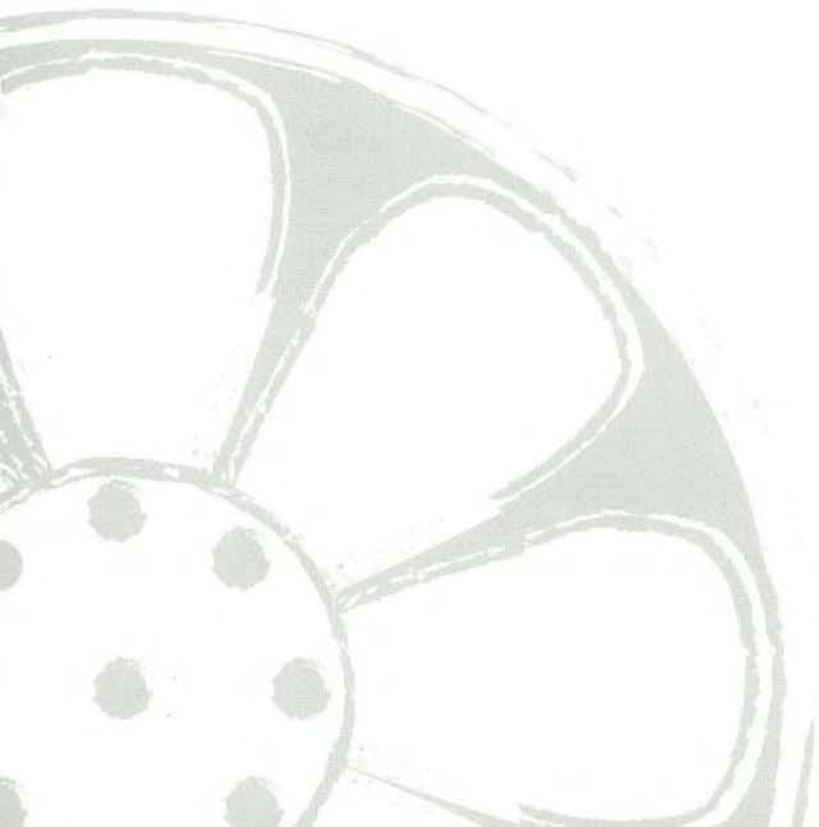
- 『춘향전 연구』
- 『강화도 외포리 꽃창곳의 현지연구』
- 『설화에 나타난 정조의 인물소고』
- 『경기남부지역 미륵설화연구』
- 『화성축성시 고유제 연구』
- 『용주사관련설화 변이양상연구』
- 『경기도 도당곳의 연희성연구』
- 『한국의 두레와 중국의 양가놀이 비교연구』
- 『수원두레원형에 대한 민속적 고찰』 등 20여편



경기도화성시  
마도면편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12

김용국



화성시 · 화성문화원

京畿道 華城市 麻道面  
口碑傳承 民俗資料 照查集

第十二卷

발간사

##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집을 발간하며

문화원은 올해로 12번째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마도지역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조사 발굴한 작업으로 또 하나의 값진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반갑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화성지역은 가파른 도시화와 이에 따른 불가피한 개발사업으로 가히 천지개벽이라 할 만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요한 향토역사 자료가 훼손되고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여 걱정이 앞섭니다. 빠른 변화 앞에서 우리 작업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역사를 복원 발흥시키는 일은 도시의 가치와 품위를 높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일은 시나 시민들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와 문화원은 물론 모든 시민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무참히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침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마도지역의 향토문화를 조사 발굴하여 책으로 엮어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지역 여기저기에 묻혀있는 향토문화가 생생한 얼굴로 모든 시민들에 공유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 책이 나오기 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화성시와 사명감과 깊은 애정을 갖고 조사에서 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신 김용국 박사님과 조사단원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2014. 12 화성문화원장 고정석

축간사

## 문화원의 12번째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성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전형적인 농촌에서 신도시들로 포진한 수도권의 유력한 도시로 변화해 왔습니다.

가치 있는 변화는 역사적 전통의 기반위에서 이뤄질 때 가능해 집니다. 현재는 과거의 반영이며 미래는 현재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곳곳마다 서려 있는 역사와 전통과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혀있는 향토문화를 찾아 계승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시가 놓치지 말아야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 화성문화원에서 2004년부터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사업'을 통해 소중한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책으로 엮어내는 일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벌써 12번째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는 것은 시와 시민 모두 우리시의 역사적 전통 향토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작업을 이끌어 온 김용국 박사를 비롯해 문화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자료집 발간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데 꼭 필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시의 문화와 역사적 기반을 쌓는 중요한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료집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2014. 12 화성시장 채인석

축간사

## 감사합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거울삼아 전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는 사람에 따라 혹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역사를 보존하고 가꾸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와 전통을 채집하고 보존하려는 화성문화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사업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12번째, 마도면 편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려는 문화원의 노력과 결실을 전 화성시민과 더불어 기뻐하며 자료집 발간에 애쓰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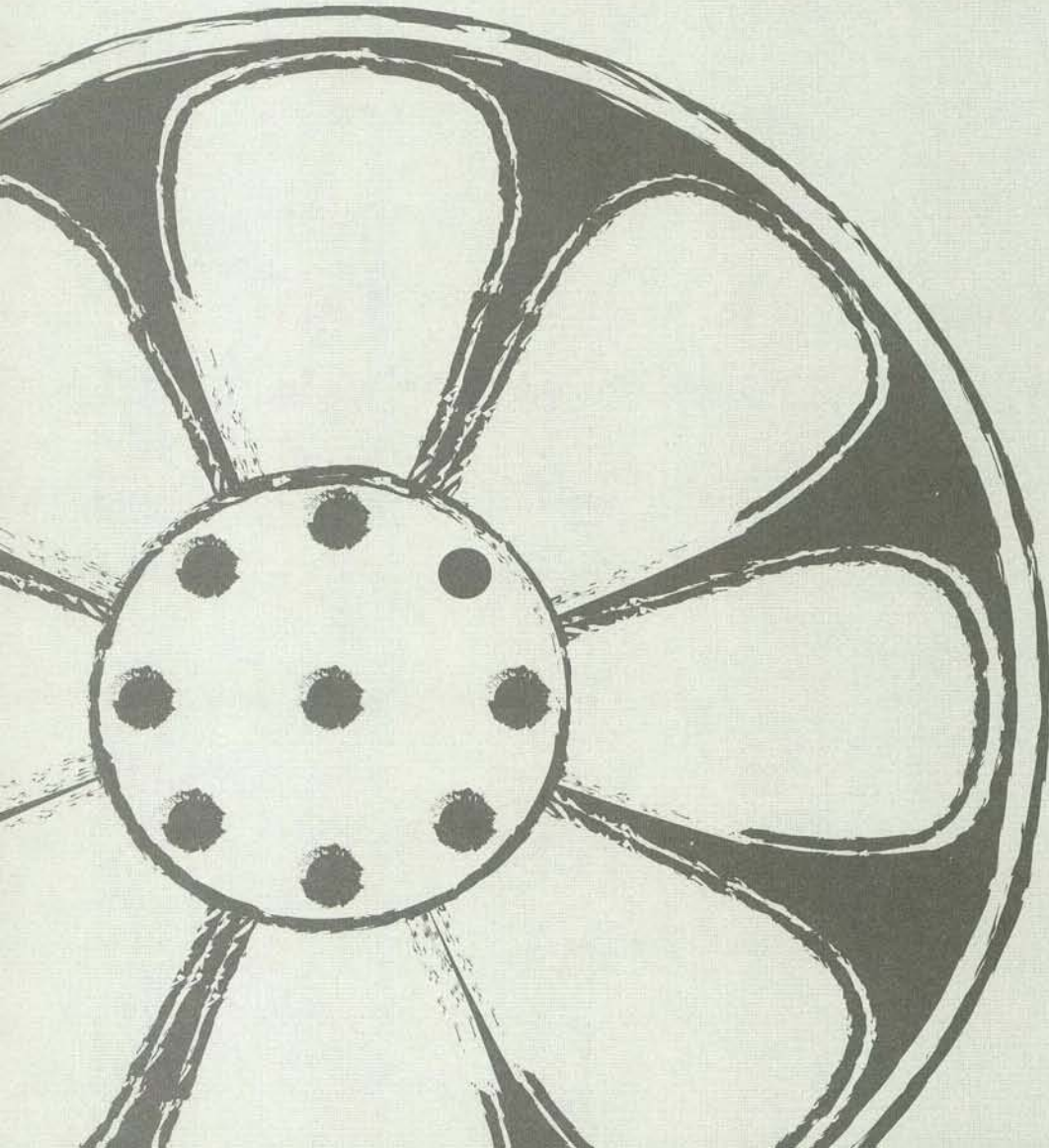
문명의 발전은 불가피하게 속도를 수반합니다. 때로는 속도경쟁을 앞세워 전통과 충돌하기도 하고 역사를 배척하기도 합니다. 화성도 그렇습니다. 커다란 개발압력에 직면해 있고, 그 어느 곳보다도 빠른 곳입니다. 이곳저곳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켜야할 문화재, 보존해야할 전통의 가치들을 무시하고 달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보아야할 시점입니다.

이런 외중에 문화원이 나서서 구비전승 사업을 꾸준하게 펼쳐가고 있는 것은 아주 다행스럽고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여전히 지역 여기저기에 묻혀 있을 민속자료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발굴되고 정리돼 시민들께 선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자료집 발간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 12 화성시의회 의장 박종선

## 일러두기

- ◎ 민간구술의 경우 구술자의 어투를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일부 어미나 동사생략형의 경우 표준어법에 어긋나더라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 ◎ 일반 표준어법에서는 복합명사의 경우 띄어쓰기를 적용하지만 민속학에서는 각 지역의 고유문화로 보고 고유명사로 취급하므로 하나의 독립된 명사로 정리하였습니다.
- ◎ 구술자 정보는 공개동의를 한 내용만 기재하였습니다.
- ◎ 제보자의 나이는 2009년 조사당시의 나이입니다.
- ◎ 제보자 정보는 '이름(성별, 나이)직함/특징'의 순서에 따릅니다.





## 발간에 맞춰

마도면의 『구비전승과 민속』을 발간하기까지 화성시와 화성문화원의 후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낯선 이들의 방문과 질문에 흔쾌히 기억을 더듬어 구술하여 주신 지역의 어르신들과 화성시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채인석 시장님과 박종선 의장님, 그리고 화성시의 곳곳을 누비며 화성시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고정석 원장님, 발간되는 과정을 꼼꼼히 살펴주고 응원하여 주신 임동균 사무국장님, 박선옥 과장님, 화성시청과 화성문화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하였던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의 연구원과 조사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모쪼록 마도면의 『구비전승과 민속』이 서신면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화성시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라며, 날로달로 마도면과 화성시를 사랑하는 토대로 쓰이길 간절히 소망한다.

김용국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장 / 문학박사



## 마도면 서문

『마도면의 구비전승과 민속』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누었다. 하나는 「마도면의 구비전승」이며 하나는 「마도면의 민속」이다. 「마도면의 구비전승」에서는 잊혀져가는 땅이름과 그 유래, 양감의 산천에 전하는 이야기, 옛놀이와 노래를 다루었다. 그리고 「마도면의 민속」에서는 삶의 터전을 함께 일구었던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신앙, 각 가정에서의 민간신앙,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의 치유방법이었던 민간요법을 다루었다.

# 마도면의 구비전승

## 땅 이름의 역사

마도면(麻道面)은 중국사신이 삼베옷을 입고, 이 지역을 지나갔다는 유래에서 삼(麻)자와 길(道)자를 따서 마도면이라 칭하였다. 본래 남양군의 지역으로 마도면(麻道面)이라 하며 송치(松峙), 쌍봉(雙峯), 상원(上圓), 청산(靑山), 해문(海門), 백곡(白谷), 금당(錦堂), 고모(古毛), 슬항(瑟項)의 9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2월 13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북부(北部) 쌍수리면(雙守里面)의 송정(松亭), 중리(中里), 석교동(石橋)의 3개 동리를 병합하여 수원군에 편입되었으며 송정, 두곡, 석교, 쌍송, 청원, 해문, 백석, 금당, 고모, 슬항의 10개리로 개편되어 이를 관할하였다.

고모리(古毛里)는 '곰굴', '고무굴', '고모동'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본래 남양군 마도면 지역으로 지형이 곰처럼 생겼다고 하여 곰굴, 고무굴이라고 불렸다고 하며, 마을 지형이 어린 송아지가 어미소를 돌아보는 형국이라고 하여 고모리(顧母里)로 불리다가 고모리(古母里)로 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고모리에는 고무굴의 아래쪽 마을인 '아랫고모', '설안말', '너멍굴', '부처물', '절골', '광짜', '양지편', '변말', '산밑에', '통바지', '곡부리' 등의 지명이 전하고 있다.

금당리(錦堂里)는 '금당골', '금당', '금당곡', '금달'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대촌(大村)'은 금당골 동쪽에 있는 큰 마을이다. '소고지'는 '소곡리(蘇谷里)', '소곶(蘇串)' 등으로도 불리며 마을의 지형이 '곶(串)'으로 되어 있다. "산천이 수려하고, 사람들은 재주가 있으면서도 그 재주가 풍부하고 또한, 오래도록 무병장수하여 소곶(蘇串)이라 칭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화근리'는 꽃부리로 불린다. 그런데 화근 즉 꽃부리는 '곶'부리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장안면의 꽃밭도 한자로 花田이라고 쓰이지만 실제로는 串田에서 유래되었으며 송산면 고정리에 유독 '-부리'라는 지명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곶(串)'에서 유래되었음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두곡리(斗谷里)는 '두일'로도 불린다. 본래 남양군 쌍수리 면의 지역으로 뒷산의 깊은 골짜기가 2개 있어서 두골[二谷], 두일 또는 두곡, 두푸이라고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양지편, 신돌, 중리(中里), 되롱골, 고잔말을 병합하여 말 두(斗)자로 개명하고 두곡리라 하였다. '고잔말', '구리골', '양지편(陽地便)', '중리(中里)', '되롱골', '배실', '신돌' 등의 지명이 전한다. 그런데 '신돌'은 '흰돌'의 와전(訛傳)이다. 이는 두곡리의 족보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흰 돌'은 백석산(白石山)에서 유래된 지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백곡리(白谷里)는 본래 남양군 마도면의 지역인데 마을을 둘러싼 청룡산(靑龍山) 줄기에는 크고 작은 골짜기가 99개가 되어 1백 개에서 1개가 모자라 '백(百)에서 한 획을 뺀 흰백(白)자를 써서 백곡리(白谷里)로 불렸다고 한다. '향기실', '입피굴', '구리개'를 병합하여 백곡리라 하였다. '향기실'이라는 지명이 전하는데 이는 '행기실'의

오기로 와전(訛傳)되어 전하는 것이다. '행기실'이란 행실이 근본적으로 바른 동네라는 의미라 전한다. '행기실'의 '실'은 '곡(谷)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조곡(鳥谷)'리를 '새실'로 부르는 것과 같다.

석교리(石橋里)는 일명 '돌다리'로 불린다. 방죽 머리, 벼밭, 무한이, 역말(驛石), 마리실(馬里實)을 병합하였다. 석교리에는 '다락곡', '쑥가말', '웬수굴', '보십산(寶十山)', '임검산', '사령 바위', '무안산(범굴)', '불당골' 등의 지명이 전한다.

쌍송리(雙松里)는 쌍봉동 거적리(巨積里), 송치리(松峙里), 해광동(海光洞)을 병합하였으며, 쌍봉과 송치의 이름을 따서 쌍송리라 하였다. '서장산'은 '서양산'으로 불리고 있으며 토박이들은 일반적으로 '섯바테'라고 부르며 '서양'이라고 한다. '상봉산', '넘말고개'와 '수당산', '조가지골' 등의 지명이 전한다.

슬항리(瑟項里)는 '비파목', '비아목', '슬항' 등으로 불린다. 수리동은 일반적으로 '수루지'로 불린다. '앵봉'이 있고 '고당현', 서당고개로 불리는 '서당현'이 있다. '수만창'은 '수반창'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수만창이 맞다고 한다. 수만창은 물이 가득 차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에는 '큰무디'와 '앵봉산'이 있다.

청원리(靑園里)는 본래 남양군 마도면 지역인데, 옛부터 성(城)이 있어서 '성목재'라고 불려지다가 소나무가 우거진 곳이라 하여 '청산동(靑山洞)'이라고 하였다. '송대(送臺)'는 '송항(送項)'이라고도 한다. '송대'는 한자 표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마을의 입향조인 한림공의 경우 '송대(送대)'로 14대에서 소나무 송(松)자고, 15대에서 보낼 송(送)자로 또 바뀌고 있다. '비키섬', '낙산리', '장계', '마루태기', '고잔촌', '마파지', '성안', '개건너' 등의 지명이 전한다.

해문리(海門里)는 '해문', '역골', '역말', '굿벌', '해문동', '역곡', '구화' 등의 지명이 전한다. 애촌(艾村)은 예촌이라고 불리고 있는 바, 쑥이 많아서 예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애촌이 맞다. 이 밖에도 '쑥가지', '중간리(中間里)', '도란말', '질고개', '해떨어지', '당 너머', '웃말', '널문' 등의 지명이 전하고 있다.

## 옛이야기

마도면의 옛이야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설화들이 채록되었다. 해문리에는 채록된 '소고지의 유래'가 그 좋은 예이다. "소고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고지 뒤에 바위가 크지는 않아도, 소고지서 밥 먹고, 해문쪽으로 똥을 싣다 하고 해서 때려 부순 바위가 있어요."라는 내용으로 양감면의 '두꺼비바위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

마을단위로 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고모리에서는 '빈대 때문에 망한 절', 금당리에서는 '도깨비 이야기', '애장터 이야기', 두곡리에서는 '손각시 이야기', '최씨 효자 이야기', '효자 최참봉', 백곡리에서는 '도깨비 이야기', '구로현(九老峴)의 유래', '백곡리의 유래', '이피골의 유래', 석교리에서는 '피를 흘린 산혈', '마리실의 유래', '사령 바위의 유래', 쌍송리에서는 '서낭명', 송정리에서는 '손각시', 슬항리에서는 '청주경씨 열녀문'에 얽힌 이야기, '절골의 유래', '구봉산의 유래', '부

처우물', '황금불상과 절골 우물', 청원리에서는 '토성(土城)을 쌓은 이유', '방죽 머리를 끊을 수 없었던 일제', '막산의 유래', '조산의 유래', 해문리에서는 '정미산의 유래', '금배산', '제부리', '소고지 바위에 전하는 이야기', '화산(火山)의 유래', '여계우물의 유래', '도깨비 이야기', '당성의 서낭목', '신목(神木)', '주막거리' 등의 이야기가 채록되었다.

이 가운데 두곡리에 전하는 '손각시'는 손각시를 위하고 천석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손각시가 어떤 신격인지에 대하여는 전하는 바가 없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큰 배를 갖고 있었던 선주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배에서 모시는 서낭일 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로현(九老峴)'은 '구리개'로도 불리며 행기실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산 좋고 물 좋은 이 곳은 큰 가뭄이 없어 9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이 아홉 분 사셨다하여 구노현(九老峴)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이피골에는 "거기에 예전에 술장사를 했었는데 이피골이 그러니깐 발거 벗겨, 돈 있는 데로 다 요것뿐이라고 내놓아야 들여보내줘. 피골. 가죽 피자. 가죽을 벗긴단 말야. 피골. (조사자: 그런데도 술장사가 잘 됐나보죠? 발가벗겨도요?) 옛날에는 없으니깐 갈 수 밖에 없어요. 먹고는 싶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라는 내용이다.

'조산의 유래'에서는 "조씨는 큰 부자집이 살았어요 어느 날 동네에 중이 왔는데 조씨네 집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러자 중이 한 칸의 끈만 얻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칸의 끈을 얻어 줬대요. 그러자 중이 말로 염불을 하면서 사람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래로 말 무덤을 만들었다네요, 그래서 그 집안이 망했대요."라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 옛놀이와 노래

고모리에서는 정월 보름에 소가 무엇을 먹는 것인가를 보고 한 해의 풍흉을 점쳤다고 한다. "오곡밥을 해서 소에게 주고 소가 무엇을 먹는가를 보지요. 나물을 먹으면 흉년이 들고, 쌀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든대요." 그리고 가정에서 정월 고사를 드렸다는 자료도 조사되었다. 시월상달에 가정마다 안택고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풍속이다. 또한, 아이들은 짚신 등 짚몽치를 두더지라고 하면서 들판을 끌고 다니면서 놀았다고 한다. 이는 봉담읍 기천리의 세거리에서 조사되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정월대보름을 기하여 노는 놀이 가운데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런 맥락에서 고모리의 두더지놀이는 매우 의미있는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남양농악대가 1952년 경에 설립되었다는 사실도 고모리에서 조사가 되었다. 그리고 상쇠로서 기량이 출중하여 다른 지역에서 초빙하였다는 자료도 조사가 되었다. 두레는 각 마을의 자긍심이기도 하고 자존심이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기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형님두레가 있고 아우두레가 있었던 것이다. 두레가 기(旗)싸움을 하였다거나 기싸움에서 꿩깃털을 빼앗겼거나 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풍속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윤중구 어른의 기량은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짐작된다. 마도면 청원리 분을 팔탄면 서근리에서 스카웃을 할 정도였다.

금당1리에서 조사된 삼월 삼진날의 풍속이 의미있었다. 예전에는 제비 오는 날 '삼진날 제비한다.'고 하면서 떡을 해 놓고 했는데 지금은 단절되었다고 한다. 금당곡에서는 정월대보름에 제일 먼저 보름달을 보는 사람은 그 해에 운이 좋다고 했다. 망월대에 올라가 달집을 태우고 절을 하며 소원을 빌기도 하였다. 또한, "정월대보름에 남·녀 누구나 오곡밥을 해서 삼거리에 가지고 나가 소원을 빌고 침을 세 번 빨고 왼발로 땅을 세 번 구른다."는 풍속도 조사되었다. 삼진날에는 약쑥을 베어두는 풍속도 조사되었다. 한편 "해방 전에는 단오놀이를 했었고 어른들이 그러하는데, 그네 뛰고 그랬다고 하는데, 단오날 약쑥을 비어다가 지푸라기 엮듯 해서 마르라고 걸어 놔요. 말려서 잘 두면 산모가 유산 하면 삶아서 그 물을 사용하고, 삼복에 마당에 앉았으면 모기가 물 적에 화로에 쑥을 태우고 그렇게 사용했어요. 산모가 순산을 하면 그 물로 하부를 세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배 아프다고 하면 삶아서 먹이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단오에 머리 감고 그런 건 없었어요."라는 풍속도 조사되었다. 또한, 정월 보름이 되면 열 나흘날에 농사가 잘 되라는 의미에서 '벗섬떡'을 만든다. 벗섬떡은 송편 모양으로 생겼으며, 콩이나 팥으로 고물을 만들어 넣는다. 또 2월 초하루에는 멍쌀로 송편을 만들어 나이 수대로 먹는데, 이를 '나이떡'이라고 한다.

두곡리에서는 정월 14일에는 '지웅치기'를 한다. '지웅'은 짚으로 만든 사람처럼 생긴 허수아비를 말하는데 지웅의 입에 돈을 물리거나 밥을 먹인 후 사거리에 버린다. 이를 '지웅치기'라고 한다. 또한, 14일에는 집집이 오곡밥을 해서 무사고를 빌며 바다에 던지는 용왕제도 지낸다.

백곡리에서는 정월대보름에 더위팔기가 놀이의 형태로 전승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소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풍흉은 점치는 풍속도 조사되었다. "나물을 먹으면 흉년이 들고, 쌀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든다."는 고모리와는 달리 "소가 풀을 잘 먹으면 좋고, 나물을 먹으면, 그해에는 풀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풀을 많이 먹으면 비가 많이 오니까, 풍년이라는 거지."

쌍송리 방죽안물에서는 달맞이에서 달 떠오르는 걸 제일 먼저 보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는 풍속이 조사되었다. 거적리에서는 보리뿌리의 숫자로 풍흉을 점치는 보리점 보기, 농사의 시기를 가늠하는 쯔쟁이 별보기 등이 조사되었다.

송정리에서는 쥐불놀이와 제웅치기가 의미 있는 자료이다. "그전에는 쥐불놀이, 그럼 싸움을 하는 거야. 냇가를 마주 보고 불을 못 놓게 하고 우리는 건너가서 놓고, 누가 이기고 지느냐, 불이 많이 안 탄 놈이 이기는 거지. 쥐불놀이는 주로 정월의 쥐날. 쥐날 저녁에 해요. 첫 자일에 하지요." 그리고 제웅놀이는 "각자 제웅도 하고. 지금으로 치면 짚으로 만들어서 동전 끼고 오곡밥 넣고 그랬잖아요. 그 제웅은 그때 삼거리나 사거리 같은데 갖다 놓는 거지요. 그럼 꼬맹이들이 발로 차고 다니다가 동전을 빼가요."

슬항리에서는 달맞이를 통해 아들 낳기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달이 뜨면 제일 먼저 가서 보는 원인이 아들을 낳네, 딸을 낳네. 그런 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월 보름날 노앗점을 치면서 "북두칠성이 달하고 거리가 멀면 풍년이고, 가까우면 흉년이다. 왜냐하면 배고파서 북두칠성이 달을 바짝 쫓아가면 올해 흉년이다. 라고 점을 치지요."

청원리에서는 거북놀이가 조사되었다. "옛날에는 수수잎으로 거북이 만들어 놀았다. 팔월보름에는 요즘도 정월

달 되면 집집이 놓고 그래요. 젊은애들이. 옛날에는 다 만들어서 무동 세우고. 두레가 크게 놀았다는 거죠..”  
 해문리에서는 인근의 남양, 송산등지에서 두레패들이 함께 흥점지라는 이의 묘역에 모였다. 그렇게 모여서 각 마을의 두레패가 서로의 기량을 뽐내고 함께 즐기는 흥겨운 놀이판을 만들었다고 하는 자료이다. 여기에서 해문리의 상쇠가 전체의 가락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였다는 자부심도 함께 조사된 것이다. 그리고 ‘소고지’에서는 정월 보름에 송편을 빚었는데 두더지의 모양과 같이 만들었다. 이를 매끼(새끼줄)로 파가지고 밭으로 끌고 다녔다. 농사에 해를 입히는 두더지에게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곡물에 피해가 없기를 소망하였던 것이다.

## 마도면의 민속

### 마을신앙

송정리에는 ‘의무산촌계’가 있었으며, 청원리에서는 ‘사촌계’를 조직하였다가 후에 ‘상복 계’로 명칭을 바꾸었다. 두곡·석교·슬항·청원리 방죽 머리 수리계가 있었다. 아랫고모 마을조직 ‘대동회’, 쌍송2리 ‘대동회’ 등 다양한 명칭과 기능의 마을조직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마을조직은 농사일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장례를 위한 조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직이 결국 마을의 두레조직과 연합되어 마을주민들의 공동체신앙을 주도하였다.

고모리 ‘우물제사’, 금당리 ‘우물제사’, ‘산제사’, 대촌의 ‘정지사(井祭祀)’, 두곡리 고잔 ‘서낭당제사’, ‘우물제사’, 쌍송1리 방죽안말 ‘당고사’, 거적리 ‘당제사’, ‘성황당향사’, 송정리 ‘정제(井祭)’, ‘당고사’, 슬항리 절골의 ‘서낭당고사’, ‘우물제사’, 청원리의 ‘사낭고사’, 청룡의 ‘우물고사’, 청원4리 ‘산제사’, 해문리의 ‘산제사·햇불고사’ 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의미있고 귀한 자료는 쌍송리 거적의 마을 제사로 그 명칭과 절차 등이 매우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쌍송의 거적리 ‘성황당향사’는 ‘경기좌도(京畿左道) 쌍봉동(雙峰洞)’의 마을신앙이다. 성황당 향사 절목(節目)에 따르면 성황당에는 20여 명 정도가 올라가는 데 그날 성황당에 오르게 되는 20여 명이 모두 음식과 부부관계 등에 제한을 받고 금기하게 된다. 성황당향사는 밤 12시에 행한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과 집례, 대축 등의 역할로 나누어있다. 그리고 제물을 옮기는 사람들이 함께 성황당에 오른다. 봉향, 봉노, 봉작, 전사 등의 역할도 정해져 있다. 그리고 주유사(酒有司), 반유사(飯有司), 병유사(餅有司)가 따로 있어 술과 밥과 떡을 올린다고 한다. 그런데 게다가 각각의 유사를 두 명씩 둔다고 한다. 제물의 희생으로는 통소를 올렸다. 60호의 주민들이 각 쌀 한 말씩을 내면 소 한 마리 값이었다. 희생으로 바칠 소는 반드시 검은 털이나 잡털이 없는 것으로 암소를 올렸다. 소를 끌고 가는 사람도 별도로 정해져 있었으며 초헌관이 소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소가 살 쫓다.”하면 소를 끌고간 사람

이 도살할 위치를 잡는다. 그런 다음 소를 끌고 도살할 자리에서 오른 쪽으로 세 바퀴를 돈 다음 도살을 하였다. 성황당향사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분육한 소의 각 부위를 나누었다. 그릇 등 향사에 쓰이는 물건을 옮기는 기유사(器有司)도 적어도 5명이상이었다. 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용되는 물품이 많았다. 채일, 명석, 상, 병풍을 비롯하여 팻감, 화로 등도 필요하였다. 화로도 4개가 필요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음식을 만들기 위한그뿐만이 아니라 추위를 피하기 위한 용도도 있었을 것이다. 짚단도 물품에 포함되어 있음도 이를 짐작케 한다. 쌍송리 성황당향사는 각 집안에서 행하는 시제(時祭)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왜 이러한 형식과 격식으로 제를 올렸는지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민간신앙

고모리에서는 단골이 바뀌는 사례 가운데 인근에서 더 용하다는 무당이 생겼을 때 교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모리의 단골은 백곡리의 여자 만신이었고 나중에 슬항리에서 일명 아기 박수, 애무당 등으로 불린 고건태 박수가 신 내림을 받으면서 이 마을의 새로운 단골이 되었다는 말이다. 고모2리에서는 아들을 낳았을 때 고추, 숯을 달았고, 딸을 낳았을 때는 짚을 방망이 형태로 해서 표시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제석을 '삼신'으로 부른다.

금당리에서는 족제비업을 모신 집안이 있었다. 마도의 큰 단골이었던 고건태 박수의 내력에 대하여도 보다 자세히 조사되었다. 아들은 고추를 달고, 딸은 숯을 달고 "소는 솔가지만 갖다 꺾어서 달아 놓고, 그거는 상재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2리 아랫말에서는 산고시는 흰옷에 흰고무신을 신고 지내며, 백곡리에서는 제석을 형짚의 주머니자루로 모시지 않고 단지에 모신다고 하는 자료가 조사되었다. 정북리에서도 단지로 모셨다고 하며 쌀만 넣는 것이 아니라 돈도 넣어 모셨다고 한다. 딸을 낳으면 짚 세 개를 흰 새끼에 끼워 넣는다 하였는데 정북도에서도 역시 짚방망이 세 개를 걸었다 조사되었다. 2리인 정북동에서는 인줄과 금줄에 대한 구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칠석날 개인적으로 우물고사를 지냈으며, 집집이 단골이 달랐다는 사실도 조사되었다.

쌍송리 솔티 칠석에 시루떡을 하여 우물고사를 드리고 떡을 떼어 우물에 넣었다고 한다.

송정리에서는 정월 보름에 '농사시루'라고 하여 시루떡을 해서 터줏가리에 제물로 받쳤으며, 시월 상달에도 '가을 떡'을 해서 터줏가리에 받쳤다고 한다. 단골은 주로 봉가리에서 제보자들은 각각 단골이 달랐다. 두곡리 조 서방네에서 손각시인 '왕신'을 모시고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채록되었다. 하일에서는 '제석'을 '삼신할머니'라고 하였다.

슬항리에서는 논에 물이 넘지 말라는 기원의 의미로 독고사를 지냈다. 인줄에는 남자아이의 경우는 고추를 달고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짚 방망이를 걸었다고 한다. 그리고 황토도 문 앞에 배설(排設)하였다. 소가 새끼를 낳거나 돼지가 새끼를 낳아도 줄을 걸고 솔가지를 걸었다는 자료가 조사되었다.

청원리에서는 수루지에서는 인줄에 고추가 있으며 아들이고 딸은 고추는 빼고 숯만 달았다고 한다. 솔가지는 달기도 하고 달지 않기도 하였다. 물을 떠 놓거나 떠 놓지 않거나 남녀의 구분은 아니었다고 한다. 소가 송아지 낳아도 솔가지를 걸고, 물도 떠 놓았다고 하는데 이는 맑은 물로써 부정할 것을 맑게 한다는 의미였다고 한다. 3리인 청룡에서는 경상도, 황해도, 충청도의 출산풍속이 조사되었다. 4리에서는 천신(薦新)의 풍속으로 밭에 터줏가리를 세우고 첫 결실을 천신하였다는 자료도 조사되었다.

## 민간요법

고모리에서는 삼을 잡는 방법으로 동이 틀 무렵 길바닥에 삼 선 사람의 형상을 그리고 그림에 가시를 박는다. 목살은 베어낸 나무에 후추 알을 박는다는 자료가 조사되었다.

금당리에서는 경기에 오리고기를 먹으면 낫는다고 하며 다래끼는 차돌맹이에다가 눈썹을 뽑아서 돌을 포개 놓아야 한다고 한다.

두곡리에서는 목살의 경우 나무를 베지 않은 가족에게도 탈이 날 수 있다고 한다. 하루 거리의 경우 시루떡을 하여 삼거리에 놓고 빌기도 하였다.

백곡리에서는 목살의 경우 “천자목신 목귀살신 / 나무동방 나무남방 / 나무서방 나무북방 / 목귀살신”라 진언을 한다. 태열을 내리기 위하여 삼 짚을 태와 함께 태웠다가 기름에 버무리어 발라준다. 정북동에서는 목살의 경우 절구 대를 두드리며 ‘작수. 목수...’라 진언한다. 며느리 고금의 경우 쥐 며느리를 잡아먹으라고 한다. 홍역 하기 전 단계를 ‘앞시기’라고 한다. 제것은 배, 간기는 간, ‘배아 피’는 위장이 아픈 것이다.

쌍송리에서는 두드러기에 익모초를 달여 먹었다. 삼이 서면 삼 선 사람의 손을 벽에 그려서 잡는다.

송정리에서는 홍역에 토끼 똥을 삶아서 먹는다. 목살에 왕자(王字)를 거꾸로 써서 붙인다. 토살(土煞)에 소금물을 끓여 부으면서 “발등디리 발등디리”라 진언한다. 담이 들면 골담초 나무를 삶아서 먹는다. 상문을 예방하기 위해 계의 다리를 넣고 간다.

슬항리에서는 골절(骨折)에 산골을 먹는다. 횃배는 화로에 돌을 구워서 수건에 싸서 배에 댄다.

청원리에서는 충청도, 경상도의 민간요법이 조사되어 기록되었다. 다른 지역과 화성시 마도면의 풍속을 비교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문리에서는 골절에 산골[\*自然銅]을 먹었다. 별안간 체 했을 때는 죽을 썰어서 내 버린다. 귀신 먹고 나가라는 의미였다.

\*산골의 한자어

# 목 차

마도면 서문	008
사진으로 보는 마도면	017

## I. 마도면의 구비전승 **026**

땅 이름의 역사	027
옛이야기	049
옛놀이	061
옛노래	083

## II. 마도면의 민속 **092**

마을조직	093
마을신앙	096
민간신앙	109
민간요법	125



## 사진으로 보는 마도면





① 해문리 금바위	⑧ 舊 마도면사무소전경
② 최규환호행비 전경	③ 가의대부삼도 통제사정흥묘역
④ 열녀청주경씨비	⑤ 금당 정도흥비
⑥ ⑦ 가의대부삼도 통제사정흥묘역	⑨ 마도 청원1리 달맞이산
⑩ 도깨비터 (2층집)	⑪ ⑫ 마도 청원1리 방씨묘소

좌로부터

立春大吉萬事亨通  
千禧年歲次  
 四時大吉祥

①

① 석교2리  
이항성씨덕

⑤ 슬항2리  
새마을 공동작업장

② 금당2리  
정미소

③ 금당2리  
정미소

⑥ 두곡리 상여

⑦ 마도면  
두레농악

④ 금당2리  
정미소

⑧ 두곡리  
회다지

⑨ 두곡리  
회다지



②



③



④

5



6 7  
8 9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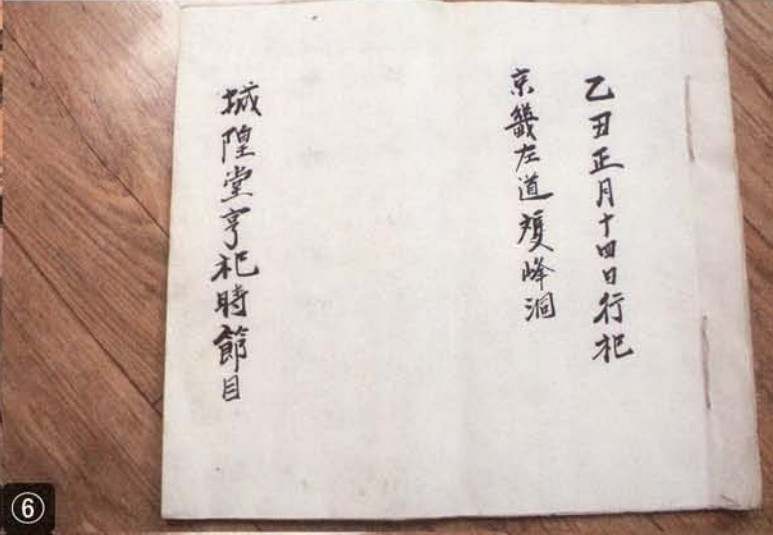


③

① 두곡리 우물	② 두곡1리 대동우물	⑧ 蘇谷停	⑨ 금담1리 (소곡蘇谷)
③ 청원2리 대동우물		⑩ 東門 灌河 (지명유래)	⑪ 上元洞 花山 (지명유래)
④ 청원1리 방극동씨막	⑥ 쌍송리 당제사문서	⑫ 松亭里 荷谷 (지명유래)	⑬ 雙守里 石橋洞 (지명유래)
⑤ 청원1리 방극동씨막	⑦ 쌍송리 당제사문서	⑭ 南陽 麻道 秀里洞 花山 (지명유래)	⑮ 石橋洞 群雁山 (지명유래)



④ ⑤ ⑥ ⑦



城隍堂亨祀時節目

乙丑正月十日行祀  
京畿左道 瓊峰洞

行祭儀  
 諸君引諸親屬及隣里入就金盤口并  
 諸君詣初獻區之前備行祀  
 初獻區行禮  
 諸君初獻區神詣盥洗位  
 諸君引初獻區詣城隍位跪所備伏興  
 焚香奠飧  
 祀前備禮儀伏興平身退後位  
 諸君引初獻區詣東方神位前備伏興焚香  
 奠飧  
 諸君引西方神位前備伏興焚香奠飧  
 引詣南方神位前備伏興焚香奠飧  
 引詣北方神位前備伏興焚香奠飧  
 初獻區王獻區終獻區行禮皆如右  
 獻區終獻區事皆如并  
 祝辭邊豆送位  
 初若引初獻區詣飲位  
 諸君引初獻區之主白禮畢



8 9  
10 11

賢 二月二十五日卒  
 氏弘立女 生  
 月三十日卒  
 氏辛坐  
 壬午十二月二十五日卒

學世茂 生父廷賢 五三  
 乙酉六月二日生  
 丁未十月二十日卒  
 贈同樞  
 河丁坐有墓碣  
 娶豐山沈氏庠女

五世  
 七月十五日生  
 十一月十九日卒  
 鐵原冷井里西  
 珍林氏府使世  
 年 月 日 卒  
 可空

五世  
 丙子三月十六日生  
 兼節校尉  
 戊寅四月五日卒  
 墓南陽麻道面上  
 元洞花山戌坐  
 娶金海許氏縣監光  
 佑女丙子七月三日  
 生  
 己卯正月八日卒  
 墓附左

學 生父漢柱五三  
 丙子生  
 甲午六月一日卒  
 墓松亭里荷谷良坐  
 娶坡平尹氏泰來女  
 壬申三月一日卒  
 墓合窆  
 再娶延日鄭氏來吉  
 女己酉三月十一日  
 生  
 戊申十一月十八日卒

福 西紀一七二四年甲辰十二月二日生  
 西紀一七九九年己未三月四日卒  
 墓雙守里石橋洞良坐  
 娶昌寧成氏山微女  
 正月十一日卒  
 墓雙窆

12 13  
14 15

子 遠 五月十五日卒  
 五月五日卒  
 墓南陽麻道面秀里洞花山戌坐  
 娶金海許氏光佐女  
 八月十三日生  
 正月九日卒  
 墓合窆  
 西紀一九七五年乙卯二月二十四日華城郡梅松面金谷里七寶山下西麓移安葬

子 宅有 十一月三日生  
 參奉  
 九月十日卒  
 墓石橋洞羣鴈山乙坐  
 娶牙山李氏女八月十四日生  
 十一月十七日卒  
 墓合窆



① ②  
③





- ① 청원1리 (성안말) 이인구씨댁
- ② 청원1리 (성안말) 이인구씨댁
- ④ 쌍송리

- ③ 청원1리 (성안말) 이인구씨댁
- ⑤ 쌍송리 터주

4  
5



# I . 마도면의 구비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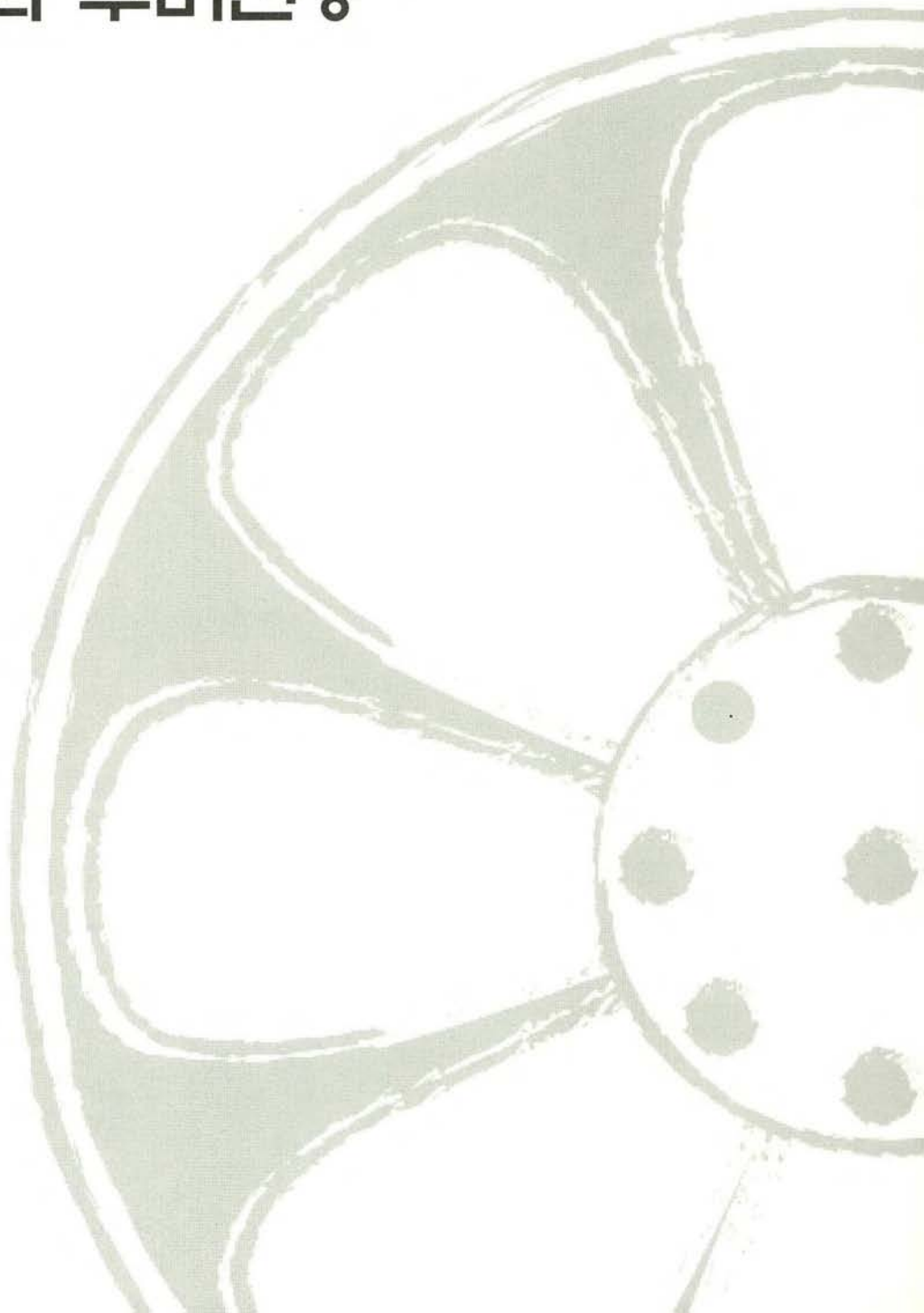
## 1. 땅 이름의 역사

- 1) 땅 이름의 유래
- 2) 마도면 관련기사

## 2. 옛이야기

## 3. 옛놀이

## 4. 옛노래



# 1. 땅 이름의 역사

## 1) 땅 이름의 유래

마도면(麻道面) 중국사신이 삼베옷을 입고, 이 지역을 지나갔다는 유래에서 삼(麻)자와 길(道)자를 따서 마도면이라 칭하였다. 본래 남양군의 지역으로 마도면(麻道面)이라 하며 송치(松峙), 쌍봉(雙峯), 상원(上圓), 청산(靑山), 해문(海門), 백곡(白谷), 금당(錦堂), 고모(古毛), 슬항(瑟項)의 9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2월 13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북부(北部) 쌍수리면(雙守里面)의 송정(松亭), 중리(中里), 석교동(石橋)의 3개 동리를 병합하여 수원군에 편입되었으며 송정, 두곡, 석교, 쌍송, 청원, 해문, 백석, 금당, 고모, 슬항의 10개리로 개편되어 이를 관할하였다.

이후 1949년에 수원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화성군 마도면이 되었으며, 1956년 8월 20일 석교리로 면사무소를 이전하였고, 같은 해 12월 25일 행정구역 개편 때 21개리로, 1982년 4월 1일 13개 법정리와 22개 행정리로 개편되었으며, 현재는 10개 법정리와 24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마도면은 동쪽으로 남양동, 남쪽으로 우정면, 서쪽으로는 서신면, 북쪽은 송산면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주요한 산은 망월(望月)재로 정월대보름날에 달맞이를 하였다고 전하며 석교리와 쌍송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벗개', '비아목 벌', '선가리' 등의 주요 들녘이 있다. '벗개'는 두곡리에 있는 들로 염밭이 있었으며, '비아목 벌'은 비아목의 주요농경지였으며, '선가리'는 석교리에 있는 들로 맨 먼저 봄갈이를 하였다고 전한다. 또한, 주요 고개로는 '길마재', '성목재'로 '길마재'는 송정리에 있는 고개로 길마<sup>1)</sup>처럼 생겼다고 전하며, '성목재'는 청원리에 있는 고개로 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 01. 고모리

고모리(古毛里)는 '곰굴', '고무굴', '고모동'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본래 남양군 마도면 지역으로 지형이 곰처럼 생겼다고 하여 곰굴, 고무굴이라고 불렸다고 하며, 마을 지형이 어린 송아지가 어미소를 돌아보는 형국이라고 하여 고모리(顧母里)로 불리다가 고모리(古母里)로 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1914년 수원군 마도면에 편입되었다. 고모리에는 고무굴의 아래쪽 마을인 '아랫고모', '설안말', '너멍굴', '부처물', '절골', '광짜', '양지편', '번말', '산 밑에', '통바지', '곡부리' 등의 지명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유래에 대하여는 전하는 바가 없다. 다만 고모리의 한자에 대하여 "위에 고자 터럭 모자인데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더라고."라는 정도만 조사되었으며 "바닷물이 옛날에는 곡부리. 여기 너멍굴, 여기 다 들어왔지."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2)</sup>

1) 길마는 물건을 양쪽에 실어 소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말굽쇠 모양으로 구부러진 나무 2짝을 나란히 놓고 안쪽 양편에 21개의 막대를 고정시킨다. 소의 등에 직접 닿는 길마는 안쪽을 짚으로 촘촘히 짜서 살갓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천을 대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경우도 많다. 장터 등 먼거리를 다녀올 때 길마는 매우 긴요한 도구였다.

2) 제보자 : 지산근(남, 76세) 노인회장, 김난선(여, 76세)

## 02. 금당리

금당리(錦堂里)는 ‘금당골’, ‘금당’, ‘금당곡’, ‘금달’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본래 남양군 마도면 지역으로 이곳에 산신에게 제를 올리던 산제당(山祭堂)이 있었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또는 고려시대부터 부자가 많아 가옥을 화려하게 짓고 살던 곳이라 하여 금당리 또는 금당곡, 금달이라 하였는데 1914년 소곡이를 병합하여 금당리라 해서 수원군 마도면에 편입되었다.

‘대촌(大村)’은 금당골 동쪽에 있는 큰 마을이다. ‘소고지’는 ‘소곡리(蘇谷里)’, ‘소곶(蘇串)’ 등으로도 불리며 마을의 지형이 ‘곶(串)’으로 되어 있다. “산천이 수려하고, 사람들은 재주가 있으면서도 그 재주가 풍부하고 또한, 오래도록 무병장수 하여 소곶(蘇串)이라 칭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한편 ‘소고지’는 작은 골짜기라는 의미의 소곡(小谷)이라 전하기도 한다.<sup>3)</sup>

금당2리인 금당곡은 옛날 비단 같은 (귀한)선비가 많다고 하여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금당리인데. 옛날에는 금당곡이라고 했어요. 금당곡. 금당곡에 금은 쇠금(金)에 집 당(堂)에 골 곡(谷)자. 지금은 금당리인데 어떻게 쓰냐면 비단 금(錦), 집 당(堂)자를 쓴다. (조사자: 예전에는 쇠 금자를 쓰다가 지금은 비단 금자를 쓰네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 집 당자. 이게 초당이라고 하거든. 선비가 비단 같은 선비가 여기 많이 있었대요. 학자가 많이 살았대요. 그것은 언제부터인지... 왜정 초기에 바뀐 건지 그건 몰라요. 언제 바뀐지는.”

‘화근리’는 꽃부리로 불린다.

“화근리. 꽃부리. 꽃화(花)자에 뿌리근(根). 거기 옛날에 포구. 포구 포구였던 배가 포가 그 앞에까지 큰 이랜드 같은 게 내 있었지 왜정 때. 해방되기까지 (조사자: 꽃부리도 큰 포구였어요?) 크다고 볼 수는 없고, 하긴 모 컷으니깐 다 가져 가버렸지. 내가 그건 아니까.”

그런데 화근 즉 꽃부리는 ‘곶’부리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장안면의 꽃밭도 한자로 花田이라고 쓰이지만 실제로는 串田에서 유래되었으며 송산면 고정리에 유독 ‘부리’라는 지명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곶(串)’에서 유래되었음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적계’는 “왜 적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은 그래도 적계는 거기에 옛날에 물이 들어왔단 말이야. 적계라고 적계. 모라고 하지 그게 있다고 했는데...”<sup>4)</sup>

## 03. 두곡리

두곡리(斗谷里)는 ‘두일’로도 불린다. 본래 남양군 쌍수리면의 지역으로 뒷산의 깊은 골짜기가 2개 있어서 두골(二谷), 두일 또는 두곡, 두푸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양지편, 신탄, 중리(中里), 되룡골, 고잔말을 병합하여 말두(斗)자로 개명하고 두곡리라 해서 수원군 마도면에 편입 되었다.

3) 제보자는 조사 당시(2009년) 80세로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오 씨 남자 어른이시다. 조문희(남, 85세), 김정숙(여, 86세)

4) 상동



‘고잔말’은 두곡리에 있는 마을로 곶으로 되어 있다. ‘구리골’은 ‘구리곡’으로도 불린다. ‘양지편(陽地便)’은 ‘두일’의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며, ‘윗구리골’은 구리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고 ‘중리동’으로도 불리는 ‘중리(中里)’는 두일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두곡리와 송정리 중간에 위치하며 이 밖에도 ‘되롱골’, ‘배실’, ‘선돌’ 등의 지명이 전한다.

두곡리 고잔에는 배천 조씨들이 대성을 이루었다. 제보자께서도 배천이 본관이라고 하신다. 부인이신 할머니께서는 송산면 독지리 출신으로 열일곱 살에 시집 왔다.

“그때 왜 시집을 일찍 왔느냐면, 일본 정치 때 공출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일본으로 회사에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오라버니가 인천 회사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와서 어머니 시집을 일찍 보내라고, 언니도 스무 살에 보냈는데, 회사에서 가는 게 아니라 군인 이바지 하러 가는 거라고. 절대 보내지 말라고, 시집을 보내라고, 그냥 보내도 되니까. 그래서 그때 시집을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때 마도에 삼촌네가 사셨어요.”

이렇듯 일제강점기의 아픈 기억을 두곡리 고잔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sup>5)</sup> 두곡리 양지편에는 흰돌이라 불리는 ‘백석산’, ‘글판이 고개’, ‘도롱굴’, ‘은장배기’, ‘큰말’, ‘웃꾸리’라는 불리는 ‘웃골’ 등의 지명이 전한다.

“조사자: (족보에 보면)고조부(께서), 백석산에 계시다고 하는데, 어디 인가요?”

제보자: 인자 휴자. 아 그래서 흰돌이로구나. 두곡1리 은행나무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이로 보아 ‘흰돌’은 백석산(白石山)에서 유래된 지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글판이 고개’, “거기를 우리도 걸어서 다녔는데, 더 옛날에는 산적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혼자 넘어오면 거기서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당하는 거죠. 저희는 모르고 열 살 위에 분들은 그때는 강패지만, 그랬다고 해요.”

“도롱굴도 있고, 큰말에서 은장배기로 올라가면서 방앗간 좌측으로 도롱굴이라고 해요.”

한편 최씨 효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하는데 다음과 같다.

할아버님이 지관도 하셔서 이 근처 다 (터를 잡아주는 일)하시고, 또 증조할아버님이 그런 걸 잘 하였고. 효자비 탄 것이 흰돌에 그 (증조)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고조할아버지 돌아가셔서 3년 상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시묘살이를 하시고), 또 (그리고 3년 시묘살이를 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고조)할머니까지 6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소에 가면 손 짚은 자국하고 무릎 절한 자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효자비를 타신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길 다니신 거예요.

석교리의 무안봉을 ‘모아니산’으로 부른다고 한다.

“조사자: 마도면 석교리 무안봉(舞雁峰)? 제보자: ‘모아니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부르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이름을 ‘주구무굴’로 부른다고 한다.<sup>6)</sup>

5) 조문희(남,85세), 김정숙(여,86세)

6) 제보자:최승용

## 04. 백곡리

백곡리(白谷里)는 본래 남양군 마도면의 지역인데 마을을 둘러싼 청룡산(靑龍山) 줄기에는 크고 작은 골짜기가 99개가 되어 1백 개에서 1개가 모자라 '백(百)에서 한 획을 뺀 흰백(白)자를 써서 백곡리(白谷里)로 불렀다고 한다. 1914년 향기실<sup>7)</sup>, 이피굴, 구리개를 병합하여 백곡리라 해서 수원군 마도면에 편입되었다.

'구로현(九老峴)'은 '구리개'로도 불리며 향기실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산 좋고 물 좋은 이 곳은 큰 가뭄이 없어 9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이 아홉분 사셨다하여 구노현(九老峴)이라 칭하였는데, 부르기가 쉽게 구리개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9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태굴'은 '이피굴', '입표곡(立表谷)', '입표동', '입피굴' 등으로도 불리며 향기실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는 배가 드나들어서 배를 매는 표석이 있었다고 전한다. '향기실(香氣室)'은 '행기실'의 오기(誤記)로 백곡리에서 으뜸되는 마을이다. 백화초목(百花草木)을 다량 식재하여 향기와 열매가 많다는 뜻에서 향기실(香氣室)이라고 칭한다. 이 밖에도 '독고리골' 등의 지명이 있다.

마도면 백곡리에 '망산'으로 불린 산이 있다. 이 곳에 제보자의 할아버지인 익자 동자 어른의 묘가 있다. 문예원 박사를 하신 어른이다.

그리고 향기실이라는 지명이 전하는데 이는 '행기실'의 오기로 와전(訛傳)되어 전하는 것이다. '행기실'이란 행실이 근본적으로 바른 동네라는 의미라 전한다. '행기실'의 '실'은 '곡(谷)'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조곡(鳥谷)리'를 '새실'로 부르는 것과 같다.

"그렇지. 행실이 바른 동네라고 해서. 지금도 외처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와서 세배를 드리고 그런다고. 다른 동네는 다 없어졌어요. 마도면에서 우리 백곡1리에서도 우리 향기실에만 있어요."

'소곡동'은 '소고지'로 불리고 있다. '아랫소고지'는 금당1리고, '윗소고지'는 백곡1리이다.

'다리실'은 다리의 안 쪽 동네라는 의미이고 다리 건너 동네는 '사땃말'로 불린다. 다리실은 백곡2리. 여기에서 '사땃말'이란 새로이 생겨난 마을이라는 의미의 '새터'일 것으로 추정된다.

'관골'은 소고지의 맨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다. '소고지' 넘어가 해문리이고 관골과는 접경을 이룬다.

'관골'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관골이라는 건 듣기로는, 거기 지방적으로 흥주사라고, 그 양반이 사셨거든. 그래서 그 양반이 벼슬을 받았다고 해서 관골이라고 칭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미기가 아니라 정부기여. 다리실 위에 백곡2리여. 향기실 밑창, 바로 이 넘어야. 백곡2리. 그다음 정부기 밑이 다리실이야, 그리고 이피굴이고. 구리개가 성안성 넘어야. 백곡2리야."<sup>8)</sup>

이 밖에도 '검산이', '뒤쪽말', 그리고 '정부기'라 불리는 '정북동'이 있다. '성안성'은 백곡1리와 2리의 접경에 있는 마을이다. 등의 지명이 전하고 있다.

7) '향기실'은 '행기실'의 오기(誤記)이다.

8) 제보자: 김창연(남, 77세)

정부기(정북이)라 불리는 정북동에는 '이핏골', '다래실', '뒷골말', '안말', '구리개' 등의 마을이 있는데 '뒷골말'을 '구리개'로 '구리개'를 '뒷골말'로 부른다.

청주 양씨 족보에는 정북산(正北山)이라는 지명이 나온다. "마을의 정 북쪽에 있는 산이라고 하여 정북산이라 하였다." 전하고 있다.

백곡리(白谷里)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한다.

"아흔 아홉 골. 하나 없어서 백골이지. 그래서 일백 백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 빼서 흰 백자가 됐다고." 그런 연유에서 인지 백곡리에는 골짜기의 이름이 많이 전하고 있다. 뒷골. 큰골, 장산골. 이핏골도 등이 그러하다.

"옛날 할아버지들이. 다래실은 실처럼 흘러서 다래실이라고 붙인 거고."

"이핏골은 임피골이여. 옛날에 사람을 죽였던 곳이지. 사람 죽이던 동네라고 임피골이요. 사람 못 살 데라고 해서 그렇지. 옛날에 거기 갯물이 들어왔어. 이표동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임피골이라고 그랬어."<sup>9)</sup>

그런데 이피골에는 또 다음과 같은 유래도 전한다.

"거기에 예전에 술장사를 했었는데 이피골이 그러니깐 발거 벗겨, 돈 있는 데로 다 요것뿐이라고 내놓아야 들여보내줘. 피골. 가죽 피자. 가죽을 벗긴단 말야. 피골. (조사자: 그런데도 술장사가 잘 됐나보죠? 발가벗겨도요?) 옛날에는 없으니깐 갈 수 밖에 없어요. 먹고는 싶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가 장산골이라고 해요. 제일 큰 골을 장산골이라고 그러지. 그 너머가 안말이여. 그 너머가 지네산이라고 그래요."

"여기 오공산(蜈蚣山)이라고. 장산골 너머가 지네산이라고. 거기서 보면 굴이라고. 임피골, 다리실, 증보기, 본말, 구리개라고 그러지요."<sup>10)</sup>

'구리개'는 "옛날에 구리가 나왔으니까 구리개라 그러지. 옛날에는 구리광산이 있었으며 구리광산 뒷산이 지네산이여. 지네산자락에 있는 뒷골말. 그걸 구리개라고 그러지요."<sup>11)</sup>

교도산(橋渡山), 홍중산(弘重山) 등 산의 이름도 전한다.

## 05. 석교리

석교리(石橋里)는 일명 '돌다리'로 불린다. 본래 남양군 쌍수리면의 지역으로 도로가 개설되기 전 바다와 접했던 곳이다. 수백년이 지나는 동안 파도에 암석이 깎여 자연적으로 돌로 된 다리가 형성되어 돌다리 또는 석교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방죽 머리, 벗말, 무한이, 역말(驛石), 마리실(馬里實)을 병합하여 석교리라 하였으며 수원군 마도면에 편입되었다.

'마리실(馬里實)'은 역말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평야지대의 안쪽에 위치한 부락이므로 원래는 안말이라 칭하였으며 약400여 년 전 말이 마굿간을 뛰쳐나가서 주민이 식수로 이용하는 큰 우물에서 물을 먹다가 우물에 빠져 죽었으므로 주민들이 분개하여 우물을 매몰하였다 하여 마리실로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본 동리에는

9) 제보자: 양형직(남, 81세), 양영주(남, 74세), 지기분(여, 76세)

10) 상동

11) 금당리의 제보자: 오00(남, 80세)

성씨(成氏)가 집거하여 주로 축마하였는데 그 우물을 매물하였더니 점차 성씨(成氏)가 패망하였다는 전설에 의하여 마리실로 칭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방죽 머리’는 돌다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바다를 메워 제방을 쌓은 후 제방의 머리 부분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방죽 머리라 불리어지고 있다. ‘범굴’은 석교리에 있는 골짜기로 범이 살았다고 한다. ‘벗말’은 돌다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염전이 있었다. ‘보십재’는 석교리에 있는 산으로 보십(보습)<sup>12)</sup>처럼 생겼다고 한다. ‘불당(佛堂)골’은 석교리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다고 전한다. ‘십오염전(十五鹽田)’은 형무소염전의 옆에 있는 염전으로 15명이 계를 모아 만들었다고 전한다. ‘역(驛)말’은 돌다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역참이 있었다. 중국사신 및 파병역군이 왕래할 때 말을 대기하였다가 다음 역으로 타고 가는 것으로부터 역석이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다. 이 밖에도 ‘사령 바위’, ‘무안이’ 또는 ‘무한이’ 등의 지명이 전한다.

석교리는 옛날 큰 돌다리가 있어서 불리게 된 명칭이다. 석교리에는 ‘마리실’, ‘벗말’, ‘방죽 머리’, ‘역말’, ‘진쟁이둑’, ‘범굴’이라 불린 ‘무안산’, ‘역말’, ‘다락곡’, ‘쑥가말’, ‘웬수굴’, ‘보십산(寶十山)’, ‘임검산’, ‘사령 바위’, ‘무안봉’ 등의 지명이 전한다. ‘무안산(범굴)’에는 옛날에 절이 하나 있었다고 전한다. ‘불당골’도 범굴의 절과 관련 된 지명일 것이라 추정된다. ‘다락곡’은 ‘마리실’에서 쌍송리로 넘어가는 고개길을 말한다. ‘웬수굴’은 ‘마리실’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진쟁이둑’이라는 지명이 전하는데 그 유래에 대하여는 “여기 2공구 막은 건 30년 넘었어. 그때 까지도 여기 물이 들어 왔었는데, 이게 그전에는 방죽에 물이 들어와서 저기서 여기 건너 오는 걸 노인네들이 ‘진쟁이둑’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질은가 보자고 했다고.” ‘방죽 머리’는 방죽을 막았다고 하여 방죽 머리라 한다. 방죽 머리는 일제강점기인 한일합방 후에 제방을 막았다.

석교리의 돌다리는 매우 긴요한 것이었다. 돌다리가 놓이면서 송산면에서 청원리로 직접 올 수가 있었다. 그전에는 서신면 쪽으로 돌아서 백곡리, 고모리를 경유해야만 청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천에서 송산을 거쳐 청원리로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청원리의 성목재는 인천, 송산 방향에서 충청도로 향하는 길목이었던 것이다.

“그전에 마도에 다리가 하나 밖에 없었어요. 인천에서 충청도로 가려면 여기 성목재가 있는데, 반도식으로 섬으로 되어가지고 옛날에 다리미처럼 거기가 목쟁이가 되어서 송산, 서신이 퍼진 거거든. 그래서 옛날에 그 다리가 없을 때에는 그 목쟁이로만 돌아다녔다고.”

중국의 사신들이 청원리의 송대에 이르는 길은 마산포를 통하여 당성에 도착하고, 당성에서 송대로 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송대로 오는 이유는 이들 일행이 충청도로 향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송대’는 중국(당나라)의 사신들이 화성시에 들어와서 묵어가던 곳이라고 전한다. 송대에서 묵은 사신일행은 성목재를 지났다고 한다.

12) 따비·쟁기·극쟁이 등의 술바닥에 맞추어 땅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 데 쓰는 삽 모양의 쇠조각을 말한다. 종류로는 돌보습·따비보습·극쟁이보습·쟁기보습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신석기 중기 이후에 돌보습이 사용되었는데, 신바닥 모양이나 버들잎 모양이 많았고 길이는 30~65cm가 보통이었다. 따비보습은 말굽쇠형·주걱형·송곳형으로 구분되며, 극쟁이보습은 보습의 끝이 무디고 술이 곧게 내려간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삼국시대가 되면서 금속제 보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쟁기보습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쟁기보습은 술의 크기와 형태를 달리하여 경상북도 성주·청송, 함경남도 삼수, 전라북도 완주, 강원도 인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산포 → 송대 → 성목쟁이 → 남양 → 비봉 → 수원

조사자: 성목재. 그게 일종의 다리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다리는 없었나요?

제보자: 다리는 없었고, 석교리라고 해서 마도 버스승강장, 거기서 한 10미터 이렇게 돌아오면 슈퍼가 있어요. 그 뒷 길이 옛날 돌다리라는 데를 오는 길인데, 그것이 마도소재지에서 직선으로 지금 해냈지만, 길이 돌아갔다고, 여기에 돌다리가 있었는데 양쪽에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위에 돌다리를 놓은 거예요. 6.25이후까지도 수원에서 오는 버스가 그 다리를 건너다녔다고.

충청도 → 성목재(성목쟁이) → 송산 → 인천

조사자: 석교는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제보자: "일정 이전에 이미 있던 거죠. 조선시대 이후에 일정 때, 지금 사강을 가자면 오른쪽에 법무부 소유로 되어서 외국인 보호시설이 되어 있고, 그것도 옛날에는 염전이었어요. 갯바닥, 또 왼쪽도 염전이었는데 그것을 매립해서 건축폐기물 쌓고 그런 건데 거기도 전부 염전이고 들판도 다 바다였고, 성목재는 충청도에서 인천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려고 그걸 자르니까 피가 나와서 못 잘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성목재를 뚫어서 길을 내려고 하였는데 성목재에서 피가 나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마도 일부하고 송산 서신이 완전 섬이 되는 거지. 근데 그때 그걸 자르려고 하니까 피가 나와서 못 잘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전설. 산 혈에서 피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못 자르고 반도로 된 거예요."

석교리에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서신, 송산사람들이 청원리 성목재로 오거나 고모리, 백곡리 걸쳐서 성목재로 올 수 밖에 없었다.

"버스가 다닐 정도는 일정 때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양 화로 해서 올려놨더라고. 그 길이 없을 적에는 송산 서신사람들이 청원 성목재로 해서 서신사람들 일부는 고모리, 백곡리로 들어와서 성목재로 해서 지금 은짱(쌍송리)."

서신, 송산 → 고모리, 백곡리 → 성목재(청원리) → 은장(쌍송리) → 남양

은장으로 가는 경우는 석교리의 다리가 물에 잠기는 때였다. 돌다리가 잠기면 은장(쌍송리)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다.

조사자: 돌다리가 잠기거나 그 돌다리를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은장으로 다녔다?

제보자: 네. 그쪽으로 해서 남양들판으로 해서 넘어 다녔다고.

'벗말'은 "본동(本洞)이라는 뜻에서 벗말이라고 한 거 같아요."라고 한다. 그런데 흔히 이 지역에서 '-벗'이라고 이르는 것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불을 때어서 증류시키는 방식의 염전을 이르는 명칭이다. 그런 맥락에서 '벗말'이란 화염(火鹽)을 생산하는 '염벗'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추측된다.

'마리실'은 성씨(成氏)들이 먼저 들어와 터를 잡았는데 전주(全州) 이 씨(李氏)들이 들어오면서 성씨들이 차차 떠났다고 전하는 지역이다. 마리실이라는 지명에 대하여 말과 관련되었다는 이야기와 삼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노인네들 말씀으로는 여기서 그전에 말을 길렀대요. 말 마자 집 실자거든. 그래서 마리실이 말을 길렀다고 해서.”  
“삼 마자를 써 놓기도 했는데, 마도가 삼 마자거든요. 마리실을 삼 마자로 써 놓기도 했더라고요.”

마리실의 본 이름은 ‘안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약 400년 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대동우물에 말이 뛰쳐나가서 우물을 물을 먹었다고 한다. 말은 큰 우물이었던 대동우물의 물을 먹다 그 우물에 빠져 죽었다. 주민들은 분개하였다. 식수로 사용하는 물에 말이 빠져죽었으니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화가 난 주민들은 말을 견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 그런 연유로 하여 ‘안말’은 ‘마리실’이 되었다. 우물에 말이 빠져죽고 우물을 메우고 나서는 이상하게도 이 마을의 터전을 처음으로 열었던 성씨들도 차차 폐망하였다는 것이다. 마리실의 유래는 두 가지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대동우물이란 마을의 모든 주민들의 식수원이다. 그런데 왜 성씨들만이 몰락하였을까? 이런 가정이 가능할 것이다. 대동우물에 빠져 죽은 말이 성씨 집안의 말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기에 주민들의 식수원을 사라지게 한 성씨들에만 재앙이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리고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처음 이곳에 터전을 열었던 성씨 집안에서 이 대동우물을 개발한 것이라면 성씨 집안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우물이 바로 대동우물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성씨 집안의 말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연유로 하여 처음 터전을 열고 가장 오랫동안 우물의 용왕께서 돌보아준 성씨들에만 타격을 입혔다는 의미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역말’은 옛날에 장사꾼들이 많이 다녔고 머물렀던 곳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서신, 송산 등을 비롯한 인근의 지역에서 서울로 가거나, 충청도, 인천 등으로 가기 위하여 말을 갈아 타고 곳이었기에 ‘역말’이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앞선 유래들에서 보여지듯, 이곳은 중국의 사신 뿐만이 아니라 인근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써 매우 중요한 길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임검산’에 ‘사령 바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임검산’에 길을 내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사령 바위’는 “산 바로 밑에 있었는데, 그게 바위가 밑에 독처럼 있었다고, 누가 보기에 그 산을 지키는 돌이라고 해서 사령 바위라고 한 건지.”라는 유래가 전하고 있다.<sup>13)</sup>

## 06. 송정리

송정리(松亭里)는 ‘하일(荷日)’, ‘송정’ 등으로 전한다. 본래 남양군 쌍수리면 지역으로 하일 또는 소나무 정자가 있으므로 송정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박촌(朴村), 법동(法洞)을 병합하여 송정리라 하고 수원군 마도면에 편입시켰다.

‘박촌(朴村)’은 송정리에 있는 마을로 박씨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sup>14)</sup> ‘법동(法洞)’은 하일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는 흥 씨들이 집단으로 살았으며 흥 씨 가문에서 학자와 고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법을 잘 지켜온 마을이라 하여 법동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송정 2리는 범죄 없는 마

13) 제보자 : 이황선(남, 76세)

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일(荷日)’은 산맥이 연화같이 생겼다 하여 연꽃 하(荷)자를 써서 하일이라 칭하여졌다고 한다. ‘아래 하일’은 하일의 아랫마을이다.

‘윗하일’은 현재는 공장들이 들어선 단지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이 지역까지 바닷물이 닿았었다. ‘망월재’는 마을 사람들이 정월 보름에 달 구경을 하던 곳이다. ‘서낭당고개’는 글판을 넘어가는 고개에 서낭당이 있어서 서낭당 고개라고 불렀다. 하일 사람들이 장을 보러가는 길에 넘어다니는 고개였다. 이 곳을 지날 때에는 돌맹이를 하나씩 얹어놓았다. 이렇듯 돌맹이를 올려놓았던 것은 편안하게 오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에서였다.<sup>15)</sup>

## 07. 쌍송리

쌍송리(雙松里)는 본래 남양군 마도면의 지역인데 예부터 마을 뒷산이 두 개의 산봉우리를 이루고 있어서 쌍봉동(雙峯洞)으로 불렸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쌍봉동 거적리(巨積里), 송치리(松峙里), 해광동(海光洞)을 병합하였으며, 쌍봉과 송치의 이름을 따서 쌍송리라 하여 수원군 마도면에 편입되었다.

‘거석동(巨石洞)’으로도 불리는 ‘거적리(巨積里)’는 쌍송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이다. 약 300여 년 전 이 마을에 박씨가 집단 거주하여 기와집을 많이 짓고 부유하게 살았으며, 가문에 노적가리를 쌓으면 타 부락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여 거적<sup>16)</sup>리라 칭하게 되었다한다.

‘방죽암말’은 거적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방죽이 있고, 방조제의 구축으로 동제방 내부에 위치한 데서 연유되었다. ‘솔티’는 ‘송치’라 불리기도 하며 해광동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 정자가 있었다고 전한다. ‘송리동(松里洞)’은 거적리 서쪽에, ‘쌍봉동(雙峯洞)’과 ‘해광동(海光洞)’은 거적리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경기염전(京畿鹽田)’은 쌍송리에서 가장 큰 염전며, ‘해광염전(海光鹽田)’ 1919년에 만들어졌고, ‘화남염전(華南鹽田)’은 경기염전 남서쪽에 있는 염전이다.

“쌍송1리는 솔티, 쌍송2리는 거적리, 3리는 달동네라고 부르는데 ‘달동네’는 본래 있던 마을의 이름은 아니고 근래에 새로 생긴 마을이죠. 실제로는 옛날 마을이 아닙니다.”

‘해광동’은 바다였던 지역을 막은 곳으로 이름은 ‘해광염전’이 있었던 지역의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박석고개’는 청원리에서 넘어오는 제일 큰 고개를 말한다.

14) 오산시의 ‘박동(朴洞)’은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던 주인 박씨의 성을 따서 불리게 된 명칭이나 대개의 경우 성씨가 마을이름을 대표하는 경우는 집성촌을 말한다. 예로 서신면의 지촌말이 지씨들의 집성촌인 것과 같다.

15) 제보자는 이름도 나이도 밝히지 않았던 강 씨 성의 남자 어른이다.

16) 농가의 마당이나 넓은 터에 원통형으로 쌓아두는 곡식단을 말한다. 대개 벼단이나 보릿단·조단 등이며, 황해도·평안도에서는 날거리라고 하며, 경기도 이남에서는 노적 또는 노적거리라고도 한다. 거두어들이 벼·보리·조는 탈곡해서 섬에 담거나 도정하여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들이는 곡식은 탈곡이나 도정을 일시에 할 수가 없어 곡식나락을 노적으로 쌓아 보관하게 된다. 노적을 쌓을 때는 곡식알이 붙은 쪽을 안으로 하고 뿌리 부분을 바깥쪽으로 하여서 곡식단을 포개어 원통형으로 2m 정도로 쌓고, 그 위에는 비나 눈을 맞지 않게 삿갓 모양으로 엮은 덮개를 씌워 장기간 두게 된다. 노적은 농가의 마당이나 광장에 쌓아놓는다. 노적은 그해 안으로 모두 다 탈곡하여버리는 것이 원칙이나 탈곡할 곡식이 많을 때에는 여러 해 묵히게 되는 수도 있다.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던 옛날에는 한 집안의 부(富)를 곡식의 수량으로 평가했다. 백석꾼·천석꾼·만석꾼의 말이 그것이다. 그에 따라서 노적 수의 많고 적음도 부를 평가하는 상징이 될 수가 있었다. ‘노적에 나비난다.’는 말이 있다. 노적을 탈곡하지 못하고 해를 묵히면 벼알에서 바구미가 생겨난다는 말이다. 그래서 노적에 나비가 난다는 말은 그 노적 임자의 부력을 비유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말이다. 근래에는 아무리 대농이라도 노적을 쌓지 않는다. 탈곡기로서 단시일내에 탈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적(巨積)이란 노적(露積)이 거대(巨大)하다는 의미이니 매우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마을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여기서 초입이고, 장터고개 넘어서 마도 소재지에서 송산으로 넘어가는 소로길이 있었어요. 왜정 때 왜놈들이 길을 뚫은 거고. 옛날에는 길이 없었지.

조사자 : 옛날 사람들은 장터고개를 넘어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넘어가면 어디인가요?

제보자 : 두곡리.”

## ■ 박석고개 서낭

“고개에는 서낭이 있는데 박석고개를 지나서 청원가는 방향으로 다락골에 있었어요. 거기 넘어 다니면서 돌 던지고 침 뱉고. 청원사람들이 서낭당을 거쳐서 여기 박석고개를 넘어야 쌍송1리 은장으로 와요. 은장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예전에 그곳에서 은을 팔았기 때문에 은장이라고 해요. '솔티'는 이 마을 이름이 원래는 송치였는데, 지금은 우리 말로 솔티라고 부르지요. 솔티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추측하기에는 쌍소나무. 그런데 쌍소나무가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지.”

“방죽안말은 거기 사람이 살면서 방죽을 막았기 때문에, 방죽을 나중에 막았기 때문에 방죽안 사람이라고 해야 대충 아니까. 사람은 먼저 살았고. 그 앞에까지 물이 들어 왔는데 방죽을 막고 방죽안이 된 거지.”

조사자 : 여기는 안동 권씨 집성촌인데, 언제 처음 이 마을에 들어오셨다고 하나요?

제보자 : 한 400년 전으로 따져야지. 14대.

조사자 : 묘소가 남양 송치의 방축동(防築洞)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보자 : 방죽안이 방축동이지.

## ■ 박석고개

“예전에 거기가 외져가지고 초립동이 그런 얘기 하는 거 같은데, 총각 얘기하는 거 아니야. 초립동이 사고를 냈는지, 귀신한테 당했는지 잘 모르겠어. 예전에 귀신들하고 인연이 많잖아. 박석고개가... 박초립동인지 뭔지 지나가다가, 박석고개니까 박가가 그랬겠지. 잘 몰라. 전설의 고향인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sup>17)</sup>”

‘구학산’은 이 지역에서 ‘구리기재’라 불리고 있다. 청원리에 동문과 이 지역의 동문은 다른 것으로 성곽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며 구학산의 건너편에 ‘성(城)’이 있었다고 한다.

조사자 : 구학산 동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청원에서 얘기하는 동문인 거죠?

제보자 : 아니에요. 여기도 동문이 있어요.

제보자 : 소지명이 동문이에요.

제보자 :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뒤에 성곽 흔적이 있어요. 성곽의 테가 있어요.

제보자 : 구학산 건너 산에.

조사자 : 그 산 이름은 뭐가요?

제보자 : 성재라고 그러는 건데, 그전에 성이 있어서, 석교2리부터.

제보자 : 마도 송정리 바다하고 여기 바다하고 중간에 성을 쌓아서 옛날에 활로 싸움 할 적에 거기서 싸웠으니까.

그리고 ‘상봉산’은 ‘상봉’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마을회관 뒤에 있는 산이다. 높다라는 의미에서 ‘상봉’이라 한다.

17) 제보자 : 권진양(남, 74세), 배원분(여, 69세)부부

‘서장산’은 ‘서양산’으로 불리고 있으며 토박이들은 일반적으로 ‘섯바태’라고 부르며 ‘서양’이라고 한다. ‘넘말고개’와 ‘수당산’이라는 지명이 나타나는 데 ‘수당산’은 마을 당제사의 유래가 적어도 100년이 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터거리라는 데도 있고, ‘조가지골’도 있고, 쌍송2리에서 고개 넘으면 거기가 조가지골인데, 거기 조씨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리고 장터거리라고 여기서 석교2리 넘어가는 고개가 장터거리인데, 거기 옛날에 장이 섰대요.”

조사자: 조가지라는 데가 두곡리에 보니까 1리 고잔에 조씨들이 계시던데요?

제보자: 응. 거기 그 집안들. 여기가 조씨들이 많이 살아서 조가지골이래요.

제보자: 옛날에 거기 조가지에 도둑이 많았대요. 산 고개 넘어서 여러 집 살았는데 자꾸 도둑이 끼니까 배기지를 못하고 나간 거지.

조사자: 이 마을에 경주 김 씨 어른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셨다고 하나요?

제보자: 옛날에 병자호란인가 김흥집씨 그런 양반들 단발령 내려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럴 때 피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 ■ 방죽안말

“여기는 옛날에 우리 시조할아버지가 식전참에 나막신 신고 여기 안방죽을 막았어요. 시조어른이 식전참에 나왔대요.

옛날 어른들은 장수 아니야. 유래가 그렇게 나와요. 옛날 사람들이 기운이 세죠.”

조사자: 그 시조 어른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제보자: 막았다는 할아버지가 수자 영자. 우리 조상이 제일 윗대 산소가 대순할아버지.

조사자: 그럼 입향조가 대자 순자 할아버지신가요?

제보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계자 어른에서, 비봉 권씨들이 있거든요.

조사자: 쌍송리에 들어오신 어른은 대자 순자 할아버지시고요?

제보자: 예. 그 양반은 묘도 관리하고 있고, 그 위로는 묘를 잃어버렸어요.

조사자: 원래 입향조는 이평 어른이시네요?

제보자: 이평이 형제야. 관하고 한 항렬. 20대, 형제야.

조사자: 마도면 쌍송리 송치에 있었네요?

제보자: 맞아. 지금이야 마도지만 그때는 음덕면이라고 있었지. 남양면을 음덕면이라고 했지. 남양면 음덕면 쌍송리라고 했어요.

‘방죽’은 제보자어른의 수자(字) 영자(字) 할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하시기 전 나막신을 신고 막았다고 한다. 그 만큼 기운이 장사였다는 의미로 전한다. 그리고 방죽을 막은 할아버지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한다.

권수영이란 분이 전쟁에 참여를 하였는데 그만 전쟁터에서 주검이 되었다. 그런데 이 분을 태우던 말이 시신의 머리만을 물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말도 지쳐쓰러졌고 이내 숨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말에게도 무덤을 만들어 주었으며 말안장도 따로 묻어주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한다.

현재는 참나무가 들어서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고 한다.

제보자: 그래서 말무덤도 있고, 산이에요. 또 안장도 따로 묻고 말도 따로 묻고.

제보자: 말머리.

제보자: 그리고 이 양반을 말이 묻고 왔다는 거예요. 머리만.

조사자: 어디서요?

제보자: 전쟁터에서요. 어느 전쟁인지는 모르지. 그런데 유래가 그래요.

조사자: 전쟁터에서 돌아가셨는데 말이 묻고 왔다?

제보자: 응. 머리를 묻고 와서 쓰러졌대요. 그래서 말무덤을 해줬다는 거예요.

조사자: 말안장도 따로 해주고?

제보자: 응. 그런데 말안장 같은 건 다 없어지고, 말무덤은 큰데 지금은 참나무가 다 들어서가지고.

‘송치’은 솔티라도 하며 소나무가 두 그루 있어서 솔티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검다지 권씨네 산인데 행가물골이라고 하지. 저 넘어 청원리 쪽. 행가가 살았는지 행가무골이야. ‘은장’, ‘은장’에는 옛날에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옛날에 은을 어쨌다고 하는데. 이게 박석고개, 은장 지나서 장터고개. 주막은 은장에 있었고. 옛날에 성냥간 하나 있었고 주막 하나 있었고.”

조사자: 성냥간? 대장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보자: 예. 옛날에는 성냥간이라고 했어요. 거기가 은장이야.

조사자: 장터고개는 장터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어느 장터인가요?

제보자: 사강.

조사자: 청원리쪽이나 서신에서 넘어오려면 꼭 이 고개를 넘어서 가야 하니까.

제보자: 그렇죠. 그때는 서신도 이 길로 가고 그랬지.

‘새방죽’에 대하여는

“지금 폐기물 거기가 새방죽이라고 해요. 그게 왜놈들이 막은 거예요. 남양면에서는 큰방죽이라고 해요.”

조사자: 왜놈들이 막은 건 큰방죽?

제보자: 예.

조사자: 선대 어른, 장군님이 막으신 건?

제보자: 그건 그냥 방죽안.<sup>18)</sup>

## 08. 슬항리

슬항리(瑟項里)는 ‘비파목’, ‘비아목’, ‘슬항’ 등으로 불린다. 본래 남양군 마도면 지역으로 지형이 비파의 목처럼 생겼으므로 비파목, 비아목 또는 슬항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1914년 절골을 병합하여 슬항리라 해서 수원군 마도면에 편입되었다.

‘절골’은 ‘사곡(寺谷)’으로도 불리며 ‘비아목’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곳에 큰 사찰이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18) 제보자: 권두연(남, 73세)

불로 인하여 소실되었고 재건되지 못했으며 그 절터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남아있어 절골이라 부른다.

슬항리 '절골'은 제보자(이길선, 남, 80세)의 13대조인 동자 백자 하는 어른이(이동백) 처음으로 마을에 정착을 하였다.

“큰무디. 큰무디에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골이라고 그런 건데. 지금도 거기 절터에 옛날 기왓장이 나오고 그래요.”  
비화목이라는 데는? 거기는 슬항2리.

조사자: 그러면 그 회룡골, 비화목, 절골[寺谷]-절이 있었다고 전함. 여기가 슬항리인가요?

“(조사자: 여기 처음 들어오신 입향조는 동자 백자 어른이네요?) 그렇죠. 그 양반이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동자 백자 할아버지하고 13대.”

청원리의 동문은 남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동문은 청원리에 있던 토성(土城)의 동쪽문이다. 동문을 통하는 물길은 마도, 송산, 서신으로 통하는 길목이었다. 반대로 송산, 서신 사람들이 남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었던 것이다. 송산의 경우 마산포, 고포리 쪽에서 배를 타고 동문으로 들어왔다. 동문에 이르는 길이 성목재로 불리었다. 성목재는 현재의 청원초등학교 자리이다.

마도면 수리동은 일반적으로 '수루지'로 불린다. '앵봉'이 있고 '고당현', 서당고개'로 불리는 '서당현'이 있다. 서당고개는 마을회관에서 슬항2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조사자: 동문에 도일(道日) 있나요?

제보자: 도일은 동문의 산자락을 이르는 것으로 인검산 위가 도일이다.

조사자: 앵봉이 또 따로 있나요?

제보자: 앵봉이겠지.

'수만창'은 '수반창'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수만창이 맞다고 한다. 수만창은 물이 가득 차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 수만창이 맞아요. 물이 가득차서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수만창.”

마을 입구에 '열녀청주경씨사적비(烈女淸州慶氏事蹟碑)'가 세워져있다. 열녀인 경씨는 서신면 용두리 출신으로 일찍 혼자되어 정절을 지키면서 자식들을 부양한 분이다. 다음은 경씨열녀비에 전하는 이야기이다.

“혼자 되셔가지고 그 아드님, 이 산이 큰무디 산인데, 이 산에 '산골'이 있어요. 지금도 나와요. 그 할머니가 그 산골을 주워다가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걸 며느리가 이어받고, 그 며느리를 용머리 할머니라고 하는데, 또 그 며느리가 이어서 하고, 또 그 며느리가 하고 몇 대손까지 내려와서 산을 지금도 위하고 '산골'을 깨끗하게 담아서 먹고, 부산에서도 '산골'을 사 먹으러 와요. 그 할머니가 열녀였어요.

이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회원이었는데 이런 열녀를 그냥 둘 수 있느냐고 했어, 당시에 비석이 작았었는데 화성시 건설협회 회장인 그 사람이 여기서 다시 세우자고 했어요, 그 전에 작은 비석은 내 버리고 비석을 해서 세운 거예요.

열녀 할머니가 그걸 주워서 팔고, 아무나 주워서 먹으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산에 빌고 물도, 그 산에서 내려오는 옷우물'이 있는데 그걸 먹고 산골을 주워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팔았다.”

'옷우물'은 슬항리의 주민들이 약수로 먹고 있는 우물이다. 그런데 해문리 사람들도 '옷우물'의 효험을 본 이들

이 많다고 하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절골’에 대한 유래가 전하는 데 다음과 같다.

“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스님들이 와서 여기에 다시 한 번 절을 세우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에서 먹던 우물이 지금도 맨 꼭대기에 있어요. 부처를 거기에 놓고 이런 돌을 깔았다고 해요. 거기 위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걸 건드리지 말래요. 부처를 건드리려고 하면 하늘이 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누가 와서 그 부처를 빼내려고 했는데 벼락이 치고 그래서 건드리지 못했다고 해요. 우물은 지금도 있어요. 그 나무가 옛날부터 꾸지나무라고 있어요. 하여간 수백 년 먹었겠지. 그저 있어요.”

‘소당곡’은 마을회관 앞에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이다. 마을 토박이들의 족보를 통하여 확인한 바로는 ‘서당현(書堂峴)’으로 표기되어있다. 서당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한자의 의미만으로 보아서는 서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절골’에는 ‘큰무디’와 ‘앵봉산’이 있으며 ‘큰무디’가 높고 ‘앵봉산’이 낮다.

“큰무디하고 앵봉산하고 우리 동네에는 그 두 개 밖에 없어요. (조사자: 그럼 큰무디하고 앵봉산하고 어느 산이 더 높나요?) 높은 건 큰무디가 높지. 앵봉산은 작고.”<sup>19)</sup>

조사자: 송대. 금당리 송대 쪽에서 중국 사신들이 드나들었다, 혹은 접대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나요?

제보자: 쌍송리에 돌다리라는 데가 대원군이 지나갔는데. 대원군이 중국으로 쫓겨 갈 적에 제부리에서, 그래서 거기 가 왕지물이지 뭐야. 왕이 주무시고 가셨다고 해서 왕지물.<sup>20)</sup>

## 09. 청원리

청원리(靑園里)는 본래 남양군 마도면 지역인데, 옛부터 성(城)이 있어서 ‘성목재’라고 불려지다가 소나무가 우거진 곳이라 하여 ‘청산동(靑山洞)’이라고 하였다. 1914년 청산동, 상원동, 송대 막산리, 수루지를 병합하여 청산과 상원의 이름을 따서 청원이라 하여 수원군에 편입되었다.

‘막산리(幕山里)’는 ‘막산(幕山)’이라고도 한다. 청원리 중앙에 있는 마을로 청원리에서 맨 끝의 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막산리’라 불리어졌다고 한다. ‘상원동(上園洞)’은 막산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송대(送臺)’는 ‘송항(送項)’이라고도 한다. 상원동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수백 년 전 사대부를 보내기 위해 이 곳에 성을 쌓고 성안에 누각을 짓고 환송하는 곳으로 사용한 후부터 송대라고 칭하였다 한다.

‘수루지(水樓地)’는 청산동 동쪽에 있는 방조제를 구축하기 전에는 조수가 마을까지 침수하여 유수(溜水)되었다고 한다.

‘청룡(靑龍)’은 인근 섬에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 산모양이 청룡머리와 비슷하여 청룡이라 불리어졌다 한다.

‘청산골’은 ‘청산(靑山)’, ‘청산동(靑山洞)’으로 불리며 막산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청원리’는 본래 ‘청산동’이라고 불리었다고 한다. 소나무가 많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오늘날의 이

19) 제보자: 이길선(남, 80세)

20) 제보자: 경○○(남, 75세)

름인 청원리로 바뀌었다고 전한다. 제보자에게서는 다음과 같이 제보하였다.

“그리고 우리 청원리가 아까도 소나무 송자 얘기도 했지만, 옛날에 소나무가 퍽 많았대요. 그래서 청산동이라고 불렀다고 하거든. 푸를 청자 댜 산자해서 청산동. 그렇게 불러 오다가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청원리로 바뀌었대요. 청원리로 바뀐 것은 일제 때 바뀐 것 같아요.”

청원리 ‘송대’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정착을 한 것이라고 하며 옛날 토성안에 누각도 짓고 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송대에서는 남양 방 씨들이 제일 먼저 정착을 했고, 지금까지 누대로 방 씨들이 살아오고 있다. 현재 18대에 걸쳐 살고 있으며 남양 방 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 송대에 방 씨는 12호 정도이며 현재는 여러 성씨가 어울려 살고 있다.

“여기 우리 방가, 기 씨, 길 씨, 목 씨, 위 씨, 흥 씨, 은 씨 여덟 성이 왔어요. 한림공파 3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한림공, 제약공, 정산공 이렇게 세 파인데, 여기가 한림공 맏이고, 둘째는 서신 제약공파가 서신 상안리에 살고, 막내 정산공은 남원에 살아요.”

한림공은 고려시대에 들어 온 남양 방 씨 10세로 이 마을의 입향조이다. 참고로 제보자는 28세(世)이다.

‘상곡(上谷)’은 송대의 윗골을 말한다. ‘송대’는 한자 표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마을의 입향조인 한림공의 경우 ‘송대(送대)’로 14대에서 소나무 송(松)자고, 15대에서 보낼 송(送)자로 또 바뀌고 있다.

(조사자: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송대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알기는, 그전에 고려 조 중엽 때쯤인가 중국 사신들이 드나드는데, 지금 구전되는 걸로 하면 조그만 성이 있었대요. 그 안에 누각을 지어 놓고 사대부들이 오시는 손님들을 누각에서 접대를 하고 보냈다. (조사자: 성 안의 누각에서 접대를 하고 보냈다?) 네. 그래서 보낼 송자를 쓰는 거지. (조사자: 성안에 누대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조사자: 손님을 보내면서 접대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송대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자: 그런데 3대 밑에 옥자 정자하는 분은 소나무 송자 누대, 소나무가 있는 누대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가 달라졌어요. 100년 정도 흐른 후에는 달라져 있어요. 보낼 송자나 소나무 송자나 의미는 같을 수 있어요. 소나무 아닌 곳에 누각을 짓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풍광이 있으니까, 의미는 보낼 송자고 위치는 소나무 송자 인거죠.) 소나무가 이쪽에 많았대요. 그래서 소나무 송자하고 띠 대하고 해서 송대다. 이렇게도 부르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낼 송자하고 집 대자를 쓰는 게 맞는다는 거죠.”<sup>21)</sup>

청원1리가 송대와 성목재, 성안, 개건너 등의 지명이 전한다. 2리는 수루지, 3리는 청룡, 4리는 막산, 동문의 지명이 전한다. 4리의 동문은 본래 청원1리에 속하였으나 4리로 분리되었다.

‘개건너’는 갯펄을 건너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추정된다.

“개 건너, 30년 전까지만 해도 1km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아마도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조사자: 유일하게 사람 다니는 길이었고, 이 길을 통해서만 서신이나 마도면사무소 쪽으로 갈

21) 한편 금당2리 금당곡 제보자 : 오00(남, 80세)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사자: 어르신 여기 송대, 송대라고 있네요. 왜 송대인가요? 제보자: 옛날 송나라 때 여길 신봉을 했다고, 피난 쪽이라고 해서 지금은 보통 송기, 송기 했던 말이야. 송나라에서 여기를 그러니깐 그걸 온 거지. 피난을 온 거지. 피난처. 피난처.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요.”

청원리에 토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보자께서는 “토성이(있)었을 텐데 제가 못 봤어요. 말로만 들었지. 성이 조그맣게 있었다고.” 그리고 성 안에는 ‘송대’가 있었으며 사신들을 보내기 위하여 접대를 하던 장소였었다고 전한다.

“네. 접대를 해서 가시게 해서 송대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sup>22)</sup>

토성의 성곽을 이루었던 돌들은 전부 청원초등학교 아래쪽으로 캐가서 없어졌다고 한다.

“큰 돌은 아니고 작은 돌이었던 것 같아요.”

“박석고개 길이라고 되어 있는 삼거리를 마루터기라고 해요. 일본 정치 때 여기서 바다고 마도쪽도 바다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뚫으면 배가 연결이 되니까 일본놈들이 여기 노역을 시켜서 마루터기를 뚫다가 못 뚫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뚫으면 뱃길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면 운하가 되니까.”<sup>23)</sup> 청원2리 수루지에는 송씨가 대성이고 최씨와 윤 씨들이 살고 있다. “그전에는 장 씨가 살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장 씨를 못 봤어요. 우리가 정착하기 전에는 장 씨가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묘소도 보면 장 씨 묘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로 보아 장 씨들이 먼저 들어와 살다가 송씨들이 들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당산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시흥에서 평택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발음상 수장산이라고도 해요. , 우리 할아버지 모신 곳은 청원리 지역이고 그래요. 이 바로 위예요.”

화산, 고령, 수루지 마을에는 고령이 있고, 장계가 있고, 마파지가 있고 그래요. 여기가 고령이에요. 회관 있는 데가 마파지라고 해요.

조사자: 수루지 안에 고령, 장계, 마파지 3개 부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잔촌’은 수루지에 속한 마을로 지형이 오목한 곳이며 현재 두 집이 살고 있다.<sup>24)</sup>

‘비키섬’에 대하여는

조사자: 비키섬은 왜 그렇게 불러요?

제보자: 거기는 떠 들어왔대요. 섬이. 커졌대요.

조사자: 작았던 게 커졌대요?

제보자: 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비키섬이라고 한대요.<sup>25)</sup>

‘비키섬’은 청원4리로 예전에는 섬이었다. ‘비키섬’의 유래에 대하여는 “음... 여기 섬이었었는데요. 그게 여기 육지하고 이렇게 사이가 됐는데 그래서 사람은 안 살았다고요. 그래서 비켜서서 비키섬이라고 했던가. 아무튼.”라 전한다.

비키섬은 옛날 초등학생들이 원적(소풍)을 가던 곳이기도 하다고 한다.

‘청룡동’은 청원3리에 속한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지만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22) 제보자: 방극명(남, 00세)

23) 제보자: 이인구(남, 83세), 방극영(남, 54세)이장

24) 제보자: 송기보(남, 72세)노인회장

동네이다. 마을의 규모는 제일 컸었다고 한다. “여 비키섬 맞은쪽인데, 청룡 그제 맨 끝 산인데 봉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제 청룡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하신 말씀인데) 잘 모르겠어요.”

‘마루태기’는 청원1리에 속한다. 언덕이 높다고 하여 마루터기라 하였다고 전한다.

‘동문’은 옛날에 이 곳에 토성(土城)이 있었고 토성의 동쪽 문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문이라고 하였다.

‘낙산리’는 바다에서 맨 끄트머리라 낙산이라고 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아, 함봉산. 거기서 불을 놓고 망을 보는 산인데 봉화. 봉화 거기 그러니까루. 쌍봉산 저기 거기서 다 내려다보이는……. (조사자: 조암리에서 건너다보니까?) 거기 올라가보면 되요. 제일 높아요. (조사자: 아, 그러면 거기가 함봉산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 아래가 청룡이고.”

“‘장개’는, 여기 장개인데……. 수리지가 장개인데요. 거기가 일부 바다 바로 옆에 었는데 거기가 장개라고 해요.”<sup>25)</sup>

## 10. 해문리

해문리(海門里)는 ‘해문’, ‘역골’, ‘역말’, ‘굿벌’, ‘해문동’, ‘역곡’, ‘구화’ 등의 지명이 전한다. 본래 남양군 마도면 지역으로 약500여 년 전 조수를 이용하여 마을 입구인 산간저지대를 배편으로 출입하였다고 하며 그러한 연유로 해문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해문구화역(海門仇火驛)<sup>27)</sup>이 있었으므로 해문, 역말, 역골 등이라 하였는데 1914년 중간리, 꽃부리, 관굴을 병합하여 해문리라 해서 수원군 마도면에 편입되었다.

‘썩가지’는 제방에 썩이 많이 나서 썩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이웃 동네까지 나누어 먹었다하여 썩가지라 불리워지고 있다.

‘중간리(中間里)’는 ‘중간지(中間地)’라고 하며 해문리 중앙에 있는 마을이다. ‘관굴’은 역골 서남쪽에, ‘꽃부리’는 중간지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매산’이라는 지명도 전한다.

애촌(艾村)은 예촌이라고 불리고 있는 바, 썩이 많아서 예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애촌이 맞다. 애촌에는 ‘화산’이라는 지명이 전하기도 한다. 마도면 해문리의 화산은 북쪽으로 송산면과 접경을 이룬다. ‘화산’은 서신면 봉가리에도 동일한 명칭의 산이 있다. 어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산의 이름이 ‘화산’인 것으로 보인다. 용릉과 건릉이 자리하고 있는 ‘화산(花山)’을 필두로 하여 수원시에도 지지대고개에서 성균관대역 쪽으로 향하는 좌측의 산이 ‘화산’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수원시 정자동 화서역 인근에도 일명 꽃피라 불리던 ‘화산’이 있었다. 지금은 아파트의 이름으로 전한다.

25) 제보자 : 김주현(여, 80세)

26) 제보자 : 총무(남, 75세), 전 면장

27) 해문역은 『고려사』에 기록이 보이지 않으나 조선시대에는 양재도에 속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 남양 관방(關防)조에 ‘역원(驛院)은 하나인데 해문이다’ 라는 기록이 보이므로 조선초기 세종대에는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해문역은 남양부 동 1리에 설치된 이후 두차례 장소의 이전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남양부로부터 동(東) 1리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지도서』와 『남양읍지』에는 남양부 서(西) 20리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동지지』에 남양부 서(西) 2리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다. 또 1834년에 만들어진 『청구도』에는 남양부 서 20리쯤에 해문구화역(海門仇火驛)이 그려져 있으며, 『대동여지도』에는 남양부 서 2리쯤에 해문역(海門驛)이 그려져 있다. 남양부 동 1리 해문역 자리는 현재의 남양 3리 역골에 있었으며, 남양부 서 20리 해문역은 마도면(麻道面) 해문리(海門里)에 있었으며, 서 2리 해문역은 마도면 석교리(石橋里) 역말에 있었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해문역에는 대마 1필, 기마 1필, 복마 1필, 노 10명, 비(婢) 2구(口)가 배정되어 있었다 하며 『남양읍지』에 의하면 대마 1필, 기마 1필, 복마 3필, 노 11명이 배정되어 있었다.

해문리에는 ‘도란말’, ‘질고개’, ‘해떨어지’, ‘당 너머’, ‘옷말’, ‘널문이’, ‘쑥가지’ 등의 지명이 전한다. 해문에 제일 먼저 정착한 성씨는 김해 김 씨라고 하며 약 300~400년 정도 되었다.

각 마을들은 대개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도란말’은 죽산 안 씨, ‘지리고개’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마을회관 쪽에 해당하는 ‘질고개’는 김해 김 씨, ‘해떨어지’는 죽산 안 씨, ‘당 너머’에는 진주 강 씨, 문화 유 씨들이 살고 있다. ‘쑥가지’는 각성바지 마을이라고 한다. 한편 ‘옷말’은 “세부적으로 옷말이라고 하면 해떨어지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우리 해문에는 1번지가 거기부터예요.”라 한다.

‘널문이’는 예전에는 가구 수가 많았지만 현재는 서너 집 정도가 살고 있다. 그 전하는 유래는 다음과 같다.

(조사자: 널문이는 왜 그렇게 부르나요?)

옷말에서 면소재지 쪽으로 다닐 때 바람이 아주 심한 데였어요. 해문이라는 데가 원래 유래가 저 산하고 이 산하고 양쪽에 보면 줄 바위가 있어요. 옛날에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대요. 옛날에 거기 문을 해 달아서 바다 해자 문 문자를 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말하면 수문이지. 소지명은 거기가 돌다리예요.

(조사자: 돌로 다리를 놓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 40~50년 전에도 돌다리, 넓적한 돌을 놔서 그리로 다니고 그랬죠.

(조사자: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 건가요?) 돌다리에서 회룡골, 청원리 송디, 슬항리 절골로 넘어가는 거죠.”<sup>28)</sup>

28) 제보자 : 김해 김 씨

## 2) 마도면 관련기사

### 01. 蠶繭 品評會

水原郡 麻道面長 洪麟裕氏는 勤務한지 十有餘年間 恒常面民을 愛撫하여 稱頌이 藉藉하던 中 數年來 朝鮮各地의 經濟界가 窮迫하여 無資無能한 同民이 窮乏에 陷하여 苦痛煩悶으로 僅僅保存함으로 此를 救濟코저 苦悶하던바 面內의 生産力을 增殖케함이 良策으로 生覺하고 農家의 副業으로 養蠶業의 必要를 直視하여 獎勵하고져 本月 十二日에 ○○蠶繭品評會를 該面事務所內에 開催하였던바 當日의 經過를 詳問하건대 男女老少의 觀衆이며 來賓으로 水原郡守鶴崎敏行氏에 石橋 水原警察署長 外 隣近面長이 臨席한 後 郡守 及 署長의 養蠶勤勉에 對한 長時間의 說話가 有하였고 當日의 蠶繭出品한 總點數는 九十七點이었는데 河波技手의 審査한 結果로 ○思德, 洪炳裕, 洪駿裕 等 外 十七名에 對한 賞品이 有하였던 바 賞品은 一等에 蠶箔二十枚 蠶繭四十枚이더라.

『朝鮮日報』1923년 9월 24일 석간 4면

### 02. 水原 麻道面 講習所 有望

水原郡 麻道面 石橋里에 求成講習所는 昨年 三月부터 認立된바 設立에 主發者인 柳昌根 金弘根 裒在務 三氏는 우리에게 農村教育이 急務인줄 覺悟하고 努力한 結果 教室은 本里에 在한 耶蘇教會堂을 臨時借用하고 教師는 金弘根 裒在務 兩氏가 無料로 教授하며 本里 張鍊克氏는 經費에 困難함을 憂慮하여 義捐金과 石油 一統을 寄附하였고 維持方針에 對하여도 同情金을 周旋한다하며 本面事務所에서는 面長과 職員 諸氏가 多數한 金額을 도와주었으며 學父兄의 贊成도 一致되어 現在 男學生이 三十五名이오 女學生이 十二名이며 有志 諸氏는 後援會를 組織한바 張鍊克氏가 會長으로 被選되었는데 氏는 一層 盡力함으로 講習所는 前途 有望이라고 好評이 藉藉하다더라(南陽)

『朝鮮日報』1928년 2월 18일 석간 4면

### 03. 水原地方에 牛疫이 猖獗

병이 발생한지 일주일간에 四十餘頭에 蔓延

水原郡 南陽 地方에 牛疫이 發生한지 一週日間에 陰德, 麻道, 松山, 西新, 四個面에 四十餘頭가 羅病되고 날로 病이 猖獗되는바 秋收期를 當한 農家에서는 大恐慌中이며 本郡 畜産組合과 警察署에서는 協力하여 豫防注射를 準備中이라더라(南陽)

『朝鮮日報』1929년 9월 23일 석간 4면

## 04. 各地面議選舉

---

◇水原郡各面議

▲麻道面(定員一〇)

朴秀陽 趙昌濬 姜周熙 金正善 車秉駿 車秉翊 洪命裕 洪養厚 李圭夏 李奎性

『朝鮮日報』1929년 12월 2일 석간 4면

## 05. 雪上加霜의 賦役

---

海草로 延命한 細民

파산도주하는 사람 속출한다고

慘憺한 水原地方 民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경기로 인하여 일반의 생계가 날로 피폐하여지는 중 더구나 춘궁(春窮)을 당하여는 더욱 비참한 구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었스니 이야말로 조선 농촌이 아니고는 보지 못할 참담한 현상이다 이제 수원지방의 세농민의 기구한 생애를 살피 건데 방방곡곡이 파산(破産)하는 무리가 속출하여 정든 고향을 등지고 유랑의 길을 떠나는 이가 날로 격증하여 가지 가지로 참담한 비극을 연출하고 있는바 군내 우정(雨汀) 장안(長安) 매송(梅松) 서신(西新) 음덕(陰德) 마도(麻道)면 등지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바다에 나가 해초(海草)를 뜯어다가 겨우 연명하는 무리가 부지기 수라하며 기타 각면 각 촌에서는 부녀자까지 총출동을 하여 야채(野菜)를 캐다가 그날그날의 기구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참한 현상을 짓고 있는 중 도로 부사공사(道路敷砂工事)에 최하로 자갈(砂利) 삼십 상자씩 해오라는 과중한 부역(賦役)을 받아 놓고는 매일 성화같은 독촉에 일반은 당국의 몰인정함을 비난하여 마지 않는다 한다

『朝鮮日報』1931년 4월 14일 석간 2 6면

## 06. 水原財産家에 三千圓强要

---

【近日頻頻한脅迫狀】

警察은犯人을嚴探

얼마전에는 경기도내 양평(楊平)에잇는 부호량모(梁某)에게거액의금전을 청구한 협박장을 보낸것이잇서 경기도경찰부에서는 관하 경찰서를출려하여 범인을엄탐중이나 아직그정체가 나나나지만어서 궁금한즘에 이번에는 수원(水原)에 또전귀와가튼 협박장이날러들어와 다시금경찰의 신경을 예민케하고있다 사실은작십이일 오전십시에 수원군마도면석교리(麻道面石橋里) 약십만금의 재산가 조창준(趙昌濬)씨집에 누런외겹봉투에 반자절반에쓰협박장을보냈다 내용은 자기는모방면을 갈터인데 현금삼천원을 엇편날까지 오산역(烏山驛)으로 가져오라 만일 그러치안으면 엇던위험이잇슬터이니 김히생각하라고한것이였다 그리고 협박장의 발신소는 남양(南陽)우편소의 일부인이 찍히워잇서경찰은 그방면으로 통보하여범인을 엄탐중이나 아직그단서를알수업다고한다

『朝鮮日報』1932년 5월 14일 석간 2 2면



## 07. 水原飛鳳面に 廿二日海溢 被害莫大한듯

이십이일 오후한시경부터 밤아홉시까지 수원군(水原郡)의 해안비봉면(飛鳳面) 음덕면(陰德面)마도면(麻道面) 송산면(松山面)서신면(西新面)일대에 조수가밀려드러와서 강한서풍과 함께 각지의제방을끈코 바닷물은논에 침입하여 베어서싸하논부근일대의벼는 전부 밀려나갔다아직까지도 상세한것은 알수업스나 피해가상당히 심할모양이다

『朝鮮日報』1933년 10월 26일 조간 2면

## 08. 水原稅務署 密酒者大檢索

【水原】경기도 수원세무서(水原稅務署)에서는 관내 각처의 밀주범측자(密酒犯則者)를 일제검색코져 요즘음서원 칠팔명이 서신, 송산, 마도, 비봉, 장안등각면에출동하여마도면청원리(麻道面靑園里) 차병기(車秉驥)의 축칠명의 범측자를 발견하였다는데 이들 범측자들은 전부 최고이십원 최저칠팔원의 벌금과 과료에 각각처할터이라하며 이압으로도 계속출동할터로 발견 되는대로 조금도용서업시 엄벌에 처할방침이라한다

『朝鮮日報』1934년 11월 28일 조간 3면

## 09. 【水原地方紹介版】既設機關으로본 水原地方의現勢

### △行政

=行政機關으로는 現下 어느 地方을 勿論하고 다가튼 範圍內에서 治政한다 하겠지마는 우리 水原地方으로서는 往古로부터 오는 歷史가 他地方과 特異한 點이 만히잇기 때문에 行政機關으로도 施設되지안흔것이업다 우리 水原地方은 조금만 더 活氣를 가졌든 地方이엇스면 帝都가 되엇슬 都市이다 實上으로는 帝都라고하여도 過言이 아니겠지마는 前述한바와가티 正宗의 運命이 短命하시엇기 때문에 行政機關만은 全部 施設이 되엇스나 悲慘하게도 그대로 無冠之都 가되고말어버렸다 그러나 그構造만은 現下 朝鮮의 首都인 京城과도 大同小異이다.

現下의政治機關을 말하자면 郡行政으로 郡과 稅務署를 비롯하여 一邑二十個面으로 區域이되어 어느 村落을 들어가든지 郡行政上 不便한 點이 조금도업시 圓滿하게 施行케되어잇스며 一方으로는 郡農會가 創設되어 廢弊하던 우리 水原郡一般産業發展에 細密히 指導方針을 樹立하여 積極的으로 ○勵하여야온結果 産業發展上 하나도○개입이업시 順調롭게 進行하근中 한層더 農事試驗場이 中立하여 農事改良과 其他一般産業에 無比의 模範을 주고잇스며 司法官廳으로는 水原署가 斗柄이되어 事件發生을 豫防하고잇스므로 우리 郡民을 들어말하면 一般的으로 良順하며 地方이 地方이엇섯더니만큼 各其自己의 精神을 가지고있다 이와가티 意味深長한 歷史를 가지고잇는 地方이므로 郡長官으로 色다른 사람으로는 到底히 圓滿한 行政을 施行할 수가 업엇음을 맞본 當局으로서는 今年부터

는 우리 水原地方을 開發식히기 爲하야 宋華文氏의 地方長官이 政柄을 잡게 되엿스니 行政方針도 우리 ○地方에 適合할것이며 따라서 日就月長開發으로 되리라고 一般民衆은 크게企徐하는바라고 한다 그 郡勢를 數字的으로 들어보면 다음과갓다

人口(昭和十年末)

.....

麻道面：方里 一,九四八

戶 九二三

人 五,二五三

.....

△教育

麻道公普：創立月日 - 昭十年 四月 一日

教員數 - 二

學級數 - 二

年限 - 四

兒童數 - 一一〇

『朝鮮日報』 1936년 6월 12일 석간2 4~5면

## 10. [各界重鎮人物]至愛로 對하는 麻道公普校長

橫枕千郷 氏

氏は 明治三十九年福岡縣八女郡出生으로 大正十二年三月에同縣入八女中學을 卒業하고 同四月에 朝鮮에와서 同十三年三月京城師範教員練習所를 卒業한後 京城西大門及水原小學校에서 勤務하다가 昭和十年四月에 麻道公普第一世校長으로 榮進한분이라는데 氏は沈默主義로 언제던지清雅하고 한갈가튼 마음으로 學術이나 實習에 兒童을 取扱하야줌으로써 一般兒童은 조금도숨김업시 亦是眞實한 熱誠으로勉學에着心이되여 新設된지不過얼마되지 안엇스나 그낫타내인成績은沈히良好하다는 消息을듯는前途有望한 青年校長이라한다

『朝鮮日報』 1936년 6월 12일 석간2 4~5면

## 2. 옛이야기

### 01. 고모리

---

#### • 빈대 때문에 망한 절

여기 뒤에 산 이름이 청명산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거기 절 있었대요.

꼭대기 쪽에, 올라서서 안 올라 가 봤는데, 밭 구르면 쿵쿵 소리가 난대요. 비어 가지고, 운동하러 간다고 많이들 가는데, 그전에 그게, 왜 절이 없어 졌느냐면, 빈대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불을 질렀대요. 산간 대청이 다 타도 빈대 타는 게 재미있다고 그랬대요.

절 이름은 모르고, 그런 소리만 들었지. 쿵쿵 소리가 난다는데..., 넓다는 데, 꼭대기가.

제보자: 신기분(여, 85세), 양애숙(여, 80세)

### 02. 금당리

---

금당리 아랫말에는 도깨비 경험담과 마을 애장터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 • 도깨비 이야기

“가장굴에서 꼬리 달린 게(도깨비불) 잿빛(젓배기 꼭대기)쪽으로 가더라, 색시 적에, 여름에 에, 쪽 가다 뚝뚝 떨어지고 쪽 가다 뚝뚝 떨어지고. 초상집 냇이 나와 날아다니는지 알았는데(그게 도깨비불이었네).”

마을 안 가장굴이라는 곳은 공동지로 사람이 살지 않고, 옛날 마을에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으면 묻었던 애장터이다.

#### • 애장터 이야기

“(그곳이) 애장터인 줄 몰랐을 때 해가 누엿누엿 질 때(지나던 중) 그늘진 데는 무섭더라. 그래 이상해서 할머니한테 물어보니 애장터라 하더라.” 어린아이는 종산에 못 들어가니 밤에 몰래 보자기에 싸서 애장터에 가서 무릎만큼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 표시가 나지 않도록 묻는다. 애장터에는 처음에 까만 풀이 났다고 한다. 애장터에는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묻었다. 외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산소를 많이 썼다고 한다.

“처녀들도 많이 죽었다. 이질, 폐병, 홍일, 뱀병, 호일자(호열자, 몸이 비틀어짐), 마마 등의 병이 잘 들었다.”

제보자: 이경순(여, 68세)

### 03. 두곡리

---

#### • 손각시이야기

마을에는 손각시를 위하고 천석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러나 손각시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하여는 전하는 바가 없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큰 배를 갖고 있었던 선주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배에서

모시는 서낭일 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보자: 손각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부자 양반이 그전에 손각시라고 옷을 해다가 갖다 위해 뵈거든.

조사자: 손각시가 뭐예요?

제보자: 누가 물어? 처녀가 죽어가지고 손각시라고 하는 거지 뭐야.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 그거 위했다는 것만 알았지.

조사자: 천석꾼 어르신께서 손각시를 위했다고요?

제보자: 응. 위했지.

조사자: 그래서 손각시를 위하면 부자가 된다고요?

제보자: 그건 모르고, 하여튼 그걸 위해서 부자가 되었어. 대대로 부자였어.

조사자: 그 천석꾼 어른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제보자: 조성배라고 그러나. 벌써 돌아가신지 오래여. 우리 집안네 손이 아들이 손주, 지금 아마 손녀 밖에 없을 거야.

조사자: 어르신한테는 연배가 얼마나 높으신 거예요?

제보자: 100년은 안 되었지. 한 50년.

조사자: 손각시를 위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요?

제보자: 그렇지. 근데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된 거지. 그 양반이 그 전에 배를 부렸는데, 목선 아주 큰 배거든, 그전에는 여기 앞까지 배가 드나들었으니까.

조사자: 그래서 소문으로는 그 어른이 손각시를 위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제보자: 응.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지. 처녀 죽은 걸 가지고 손각시를 위했다고 하니까 누가 물어?

조사자: 어쨌든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하고 손각시를 위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거네요?

제보자: 그렇지. 전해 내려온 거지.

제보자: 시집와서 나도 손각시 말만 들었지 누가 물어? 처녀 죽은 귀신이 손각시아. 다른 건 몰라요.

제보자 : 조문희(남, 85세), 김정숙(여, 86세)

혼기가 찬 처녀가 시집을 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 한이 되어 주로 자기 또래의 혼기 찬 처녀를 괴롭히는 악귀. 손말명, 왕신, 처녀 귀신이라고도 한다. 처녀에게 손각시가 붙으면 그 처녀는 병이 들거나 다른 괴롭힘을 당해 시집을 가지 못한다고 한다. 설화에 따르면 손씨가(孫氏家)에 규녀(閨女)가 있었는데 출가(出嫁)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각시는 규녀를 칭하며, '손'은 곧 손님이란 뜻에서 '침해(侵害)'를 말한다.

이능화는 "우리나라에서 원귀 중에서 가장 무서운 원귀는 흔히 손각시라 한다. 이 손각시는 정욕을 해원(解冤)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 귀신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때문에 처녀가 죽으면 다른 어떤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웠다. 손각시를 신봉하는 집안에서는 딸이 시집가기 전에 여무(女巫)를 초청하여 여탐굿을 한 다음 출가시킨다. 또한, 손각시 옷을 만들 때는 비단필의 머리 부분을 끊어 처녀로 만들어서 신상(神箱) 안에 넣어두며, 집 안에 음식이나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신상에 바쳤다고 한다. 가족 중에 출가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신상에 고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는다고 한다.



손각시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처녀가 죽으면 손각시가 될 것을 두려워해 남성 성기를 강조한 인형을 짚으로 만들어 관에 넣거나 남자 옷을 입혀 거꾸로 묻기도 한다. 다음으로 가시나무를 관 주위에 넣어서 묻었다. 성기를 강조한 사내 인형을 관에 넣거나 남자 옷을 입히는 이유는 죽어서나마 남성과 접촉한 것을 위안 삼으라는 것이고, 거꾸로 묻는 것은 행여나 혼이 다시 일어나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관 주변에 가시나무를 넣는 것은 앞의 방법으로도 안심되지 않아서 관 주변에 가시나무를 넣어둠으로써 손각시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또 사람의 왕래가 잦은 사거리의 길목에 묻거나 주위에서 젊은 남자가 죽으면 그와 허혼례(許婚禮)를 치러준다. 그리고 머리 위에 체를 덮어씌워서 묻기도 한다. 이유는 손각시가 체 구멍을 헤아리다가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을 보느라고 체 구멍 수를 잊어서 다시 헤아리게 하여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손각시가 조혼(早婚) 풍습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때문에 열녀문(烈女門)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손각시와 관련된 열녀문은 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강원도 삼척시 원남면 갈남리에는 애랑이 전설이 있다. 이 전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마을에 덕배와 애랑이라는 처녀 총각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덕배가 애랑이를 미역이 많이 있는 애바위라는 섬에 배로 태워다 주었다. 덕배를 보내고 미역을 뜯던 애랑이는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이 뱃길을 나가면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애랑이의 혼을 달래기 위해 바닷가 언덕에 당집을 짓고 제를 지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어부 한 명이 바다에 욕을 하고 오줌을 누었다. 이후에 마을의 배가 바다에 나가면 만선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과 10월 첫 오(午)날에 제를 지내면서 이날 남근목을 깎아 당집에 바쳤다고 한다. 이는 애랑이의 원혼을 달래기 위함이다.

남해에 있는 사랑도 옥녀봉의 옥녀 이야기도 역시 유명하다. 전설에 따르면 과년(過年)한 옥녀가 홀로 된 아버지의 성적 요구에 괴로워한 나머지 옥녀봉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하였다. 그 뒤부터 동네에서 처녀가 시집갈 때 신부가 탄 가마가 옥녀봉 밑을 지나게 되면 반드시 가마에서 내려 걸어간다고 한다. 이는 옥녀가 시집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원령이 옥녀봉에 남아서 시집가는 처녀에게 샘을 내어 화를 미친다고 생각해서이다.<sup>1)</sup>

#### ● 최 씨 효자

할아버님이 지관도 하셔서 이 근처 다 (터를 잡아주는 일)하시고, 또 증조할아버님이 그런 걸 잘 하셨고. 효자비 탄 것이 흰돌에 그 (증조)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고조할아버지 돌아가셔서 3년 상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시묘살이를 하시고), 또 (그리고 3년 시묘살이를 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고조)할머니까지 6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소에 가면 손 짚은 자국하고 무릎 절한 자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효자비를 타신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길 다니신 거예요.

제보자 : 최승용

1) cafe.daum.net/s1128/RBqY/288

#### ● 효자 최참봉

옛날에 최참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효자였다. 선친 산소 곁에서 시묘살이를 했는데 지금도 그 분이 옆드려서 절을 했던 자국이 남아 있다. 근처에 사당을 만들어 놓고 매일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눈이 와도 항상 깨끗이 쓸어 놓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

제보자 : 최각현

### 04. 백곡리

---

#### ● 도깨비이야기

도깨비 전설은 있지. 그건 내가 겪었어요. 우리 고조할아버지 제삿날인데 날이 벌건데 당숙어른이 안 내려 오시길래 내가 올라갔지. 그런데 편찮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려오는데 목탁을 세 번씩 두 번을 두드리더라고, 뛰어 내려오는데 뭐가 쫓아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도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난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내려 왔지.

제보자: 김창연(남, 77세)

#### ● 구로현의 유래

‘구로현(九老峴)’은 ‘구리개’로도 불리며 행기실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산 좋고 물 좋은 이 곳은 큰 가뭄이 없어 9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이 아홉분 사셨다하여 구노현(九老峴)이라 칭하였는데, 부르기가 쉽게 구리개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9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제보자: 양형직(남, 81세), 양영주(남, 74세), 지기분(여, 76세)

#### ● 백곡리(白谷里)의 유래

“아흔 아홉 골. 하나 없어서 백골이지. 그래서 일백 백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 빼서 흰 백자가 됐다.”

그런 연유에서 인지 백곡리에는 골짜기의 이름이 많이 전하고 있다. 뒷골. 큰골, 장산골. 이핏골도 등이 그러하다.

제보자: 양형직(남, 81세), 양영주(남, 74세), 지기분(여, 76세)

#### ● 이피골의 유래

“이핏골은 임피골이여. 옛날에 사람을 죽였던 곳이지. 사람 죽이던 동네라고 임핏골이요. 사람 못 살 데라고 해서 그렇지. 옛날에 거기 갯물이 들어왔어. 이표동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임피골이라고 그랬어.”

제보자: 양형직(남, 81세), 양영주(남, 74세), 지기분(여, 76세)

#### ● 이피골의 유래

“거기에 예전에 술장사를 했었는데 이피골이 그러니깐 발거 벗겨, 돈 있는 데로 다 요것뿐이라고 내놓아야 들여보내 줘. 피골. 가죽 피자. 가죽을 벗긴단 말야. 피골. (조사자: 그런데도 술장사가 잘 됐나보죠? 발가벗겨도요?) 옛날에는 없으니깐 갈 수 밖에 없어요. 먹고는 싶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금당리의 제보자: 오00(남, 80세)



## 05. 석교리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성목재를 뚫어서 길을 내려고 하였는데 성목재에서 피가 나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 피를 흘린 산혈

“마도 일부하고 송산 서신이 완전 섬이 되는 거지. 근데 그때 그걸 자르려고 하니까 피가 나와서 못 잘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전설, 산혈(山穴)에서 피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못 자르고 반도로 된 거예요.”

### ● 마리실 전설

마리실의 본 이름은 ‘안말’이었다고 한다. 약 400년 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대동우물에 말이 뛰쳐나가서 우물을 물을 먹었다고 한다. 말은 큰 우물이었던 대동우물의 물을 먹다 그 우물에 빠져 죽었다.

주민들은 분개하였다. 식수로 사용하는 물에 말이 빠져죽었으니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화가 난 주민들은 말을 건져내려고 하지 않고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 그런 연유로 하여 ‘안말’은 ‘마리실’이 되었다. 우물에 말이 빠져죽고 우물을 메우고 나서는 이상하게도 이 마을의 터전을 처음으로 열었던 성씨들도 차차 폐망하였다는 것이다.

마리실의 유래는 두 가지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대동우물이란 마을의 모든 주민들의 식수원이다. 그런데 왜 성 씨들만이 몰락하였을까? 이런 가정이 가능할 것이다. 대동우물에 빠져 죽은 말이 성 씨 집안의 말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기에 주민들의 식수원을 사라지게 한 성씨들에만 재앙이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리고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처음 이곳에 터전을 열었던 성 씨 집안에서 이 대동우물을 개발한 것이라면 성 씨 집안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우물이 바로 대동우물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성 씨 집안의 말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연유로 하여 처음 터전을 열고 가장 오랫동안 우물의 용왕께서 돌보아준 성씨들에만 타격을 입혔다는 의미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 ● 마리실 마을의 유래

석교리에 이 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다. 어느 해인가 이곳에 성씨들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씨들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성씨들은 가진 땅이 적어 주로 목축을 했는데 말을 많이 길렀다. 어느 날 성씨네 집의 말이 이 씨네 마을로 내려와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먹으려 하다가 그만 빠져 죽었다. 이 씨들은 감히 사람이 먹는 우물에 짐승이 와서 물을 먹다가 죽었다 하고 분하게 생각하여 그 우물을 메워 버렸다. 후에 이상하게도 성씨들이 차차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이 마을이 바로 석교리의 마리실 마을이다.<sup>2)</sup>

### ● 사령 바위의 유래

‘임검산’에 ‘사령 바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임검산’에 길을 내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사령 바위’는 “산 바로 밑에 있었는데, 그게 바위가 밑에 독처럼 있었다고, 누가 보기에 그 산을 지키는 돌이라고 해서 사령 바위라고 한 건지.”라는 유래가 전하고 있다.

제보자 : 이황선(남, 76세)

2) 『화성시사』

## 06. 쌍송리

---

### ● 서낭당이

여기 박석고개에 서낭당이 있었어요. 서낭당. 이쪽저쪽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으스스하지. 옛날에는 박석고개 넘어가기가 무서워. 귀신도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는 무서워서 거기로 못 가요.

제보자: 서낭당 넘어오면서 침 뱉고 돌 하나 던지고.

제보자: 옛날에는 초상이 나면 상여를 매고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무서워서 꼭 노제 지내고 넘어갔어요. 산 넘기 전에 꼭 지내고 넘어갔지.

제보자: 식당 있는 데 거기서 노제를 꼭 지내고 넘어갔어요.

제보자: 옛날에는 그 길이 달구지 길도 아니고 사람 하나 지나갈 소로길이지. 사람만 다니는 길이지.

제보자: 거기 무서웠어요. 밭에서 일하고 오는데 부스럭부스럭하더라고요. 나무를 한 짐 지고 내려와. 그런데 나한테 오는 줄 알았는데 안 와. 도깨비야.

제보자: 우리도 많이 봤어요. 어둡기 전에 뛰어놀거든요. 이 아래가 옛날 집인데 색시가 족두리를 하고 앉아 있고, 그런 게 잘 나타나. 가보면 금방 없어지고.

제보자: 권두연(남, 73세)부부

## 07. 송정리

---

### ● 손각시

제보자: 두곡리 조 서방네가 새장사하다가 두곡리 고개 글판이 고개 넘어오는 데서 누가 손각시를 갖다 내버렸다는 거야.

제보자: 그게 아니야. 창식이 베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손각시가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다. 다락에 놔는데, 그때는 배로 하는 거잖아. 여기서 물건을 싣고 나갔다가 인천에서 싣고 들어오고, 그러면 다락에서 소리가 난 대.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랬대.

조사자: 조 서방네가?

제보자: 그러. 풍선배로다가. 다락에서 운대. 그래서 짐을 싣고 떠났대.

조사자: 울기만 하면 괜찮다?

제보자: 아침에 인천에 갔다가. 저녁때는 총알같이 왔다는 거 아니야.

조사자: 손각시가 울면 가는 거예요?

제보자: 거기다 모셨으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면 가는 거지.

제보자: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지.

제보자: 실어 놔다가 소리가 나면 떠나라는 거지.

조사자: 손각시가 우는 게, 지금 가서 팔면 잘 팔린다는 건가요?

제보자: 아니. 그때는 배가 바람으로 가는 거니까.

조사자: 배가 잘 간다는 거네요?

제보자: 그렇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딱 오고.

제보자: 풍선이니까.

제보자: 그러니까 오늘 가면 물건도 잘 팔리고 당일치기한다는 거지.

조사자: 손각시가 왜 조 서방네?

제보자: 아니 그 집 대가 있는데 자꾸 떼어내도 자꾸 그리 가서 들러붙더라.

조사자: 손각시가요?

제보자: 응. 풀어내버린 게. 그걸 다락에 갖다 모셨겠지.

제보자: 풀어내버렸는데, 배에서 갖다 내 버렸는데 자꾸 들러붙으니까 이걸 안 되겠다고 생각 한 거지. 조 서방은 황해도에서 배 부릴 적에 캄캄하면 어디인지 모르잖아. 그럼 불을 흰히 비춰 준대.

조사자: 손각시가요?

제보자: 아니. 그건 딱 귀신이지.

제보자: 나도 봤어. 친구들하고 마도에서 술을 먹었어. 술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는 거를 술도 깰 겸 걸어가자고 했지. 뒤에 걸어가는데 뭘 허연게 획 지나가. 나하고 한 사람만 봤어. 송신소 돌아다닐 적에, 태훈이도 혼났다는 데가 거기야. 지금 큰 도로 나서 그렇지.

제보자: 도깨비불은 한 번 봤어.

제보자: 6·25때 내가 열두 살인가, 논에 가서 물고랑 막고 저녁에 캄캄한데 오는데, 여자가 우산을 탁 쓰고 가는 게 여기서 저 건너인데 분명히 보이는 거야. 딱 쓰고 가는데 거기 좀 있으라고 소리를 쳤지. 소리를 지르니까 그거 올라오는데 이렇게 돌잖아. 재영네 올라오는데, 올라서니까 재영아버지 목매달았다는데 거기 올라섰더라고. 그래서 주먹을 쥐고 뛰어도 밤낮 그 거리야. 그러더니 산 모퉁이를 싹 돌아섰는데 없어. 그때는 머리가 짜릿하지.

조사자: 도깨비터라는 데가 그 터를 누르면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제보자: 남양 박오장네가 도깨비터라는 거잖아.

제보자 : 임창익(남, 75세)노인회장, 김규용(남, 72세), 박춘옥(남, 73세)

## 08. 슬항리

### ● 청주경씨 열녀문

마을 입구에 ‘열녀청주경씨사적비(烈女淸州慶氏事蹟碑)’가 세워져있다. 열녀인 경씨는 서신면 용두리 출신으로 일찍 혼자되어 정절을 지키면서 자식들을 부양한 분이다. 다음은 경씨열녀비에 전하는 이야기이다.

“혼자 되셔가지고 그 아드님, 이 산이 큰무디 산인데, 이 산에 ‘산골’이 있어요. 지금도 나와요. 그 할머니가 그 산골을 주워다가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걸 며느리가 이어받고, 그 며느리를 옹머리 할머니라고 하는데, 또 그 며느리가 이어서 하고, 또 그 며느리가 하고 몇 대손까지 내려와서 산을 지금도 위하고 ‘산골’을 깨끗하게 담아서 먹고, 부산에서도 ‘산골’을 사 먹으러 와요. 그 할머니가 열녀였어요. 이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회원이었는데 이런 열녀를 그냥 둘 수 있느냐고 했어, 당시에 비석이 작았었는데 화성시 건설협회 회장인 그 사람이 여기다 다시 세우자고 했어요, 그 전에 작은 비석은 내 버리고 비석을 해서 세운 거예요. 열녀 할머니가 그걸 주워서 팔고, 아무나 주워서 먹으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산에 빌고 물도, 그 산에서 내려오는 옷우물이 있는데 그걸 먹고 산골을 주워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팔았다.”

## ● 절골의 유래

“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스님들이 와서 여기에 다시 한 번 절을 세우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에서 먹던 우물이 지금도 맨 꼭대기에 있어요. 부처를 거기에 넣고 이런 돌을 깔았다고 해요. 거기 위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걸 건드리지 말래요. 부처를 건드리려고 하면 하늘이 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누가 와서 그 부처를 빼내려고 했는데 벼락이 치고 그래서 건드리지 못했다고 해요. 우물은 지금도 있어요. 그 나무가 옛날부터 꾸지나무라고 있어요. 하여간 수백 년 먹었겠지. 그저 있어요.”

제보자: 이길선(남, 80세)

## ● 구봉산의 유래

“서신 구봉산에는 유래가 있어요. 거기다 산소를 모셨는데, 지금식으로 등기를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집안 어른 한 분이 돈을 건어서 등기를 내려 갔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등기가 안 되었지 뭐야. 그래서 왜정 때 미등기니까 국유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유림으로 되어 있어요. (조사자: 본래 경 씨네 집안 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시사[時祭]도 지내고, 종터가 스물닷마지기가 있었는데, 한 2만평이고 그게 다 없어진 거지. (조사자: 그게 어떻게 해서 경 씨들 것이 되었다는 거죠? 11대조께서 땅을 나라로부터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지팽이로 내꺼다 하면 되었지.”

제보자: 경○○(남, 75세)

## ● 부처우물

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스님들이 와서 여기에 다시 한 번 절을 세우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에서 먹던 우물이 지금도 맨 꼭대기에 있어요. 부처를 거기에 넣고 이런 돌을 깔았다고 해요. 거기 위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걸 건드리지 말래요. 부처를 건드리려고 하면 하늘이 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누가 와서 그 부처를 빼내려고 했는데 벼락이 치고 그래서 건드리지 못했다고 해요. 우물은 지금도 있어요. 그 나무가 옛날부터 꾸지나무라고 있어요. 하여간 수백 년 먹었겠지. 그저 있어요.

제보자: 경○○(남, 75세)

## ● 황금불상과 절골 우물

슬항리의 절골에는 신기한 우물이 하나 있던 절이 있었다. 이 우물은 물이 좋아서 이것을 마신 사람들은 병이 없고 장수했다. 이것이 소문이 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주도 많아지자 욕심 많은 주지는 이 재물을 모아 황금부처를 만들어 법당에 모셨다.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시주도 늘자 주지는 더욱 욕심이 많아져 재화를 이용하여 장리쌀을 주고 돈놀이를 했다. 절 주변 사람들이 고리에 허덕이고 원성이 자자하게 되었다. 절의 젊은 스님이 잠을 자는데 황금부처가 나타나 이 절의 곡식과 재물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중생을 구하라 했다. 스님이 주지에게 이 뜻을 전했다. 주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스님을 내쫓으려 했다. 주지가 그 별로 황금부처를 모신 법당 문을 열려고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비명을 지르고 죽고 말았다. 젊은 스님이 주지가 되자 절의 재물을 모두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하루는 꿈에 황금부처가 나타나 “앞으로 큰 번고가 있을 터인데 큰일이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스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 예감하

고 황금부처를 영험한 우물 속에 옮겨 놓고자 했다. 부처를 우물에 넣으려고 할 때 갑자기 우물물이 마르더니 부처를 놓은 후에는 다시 예전처럼 물이 가득 찼다. 서해안에 나타난 왜구들이 소문을 듣고 황금부처를 빼앗으러 이 절에 왔다. 우물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물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며 불덩이가 솟구쳐 왜구들의 머리를 쳤다. 왜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니 우물은 다시 예전처럼 물이 가득했다. 스님들이 황금부처를 다시 법당으로 모시고자 하니 우물에서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황금부처가 떠올라왔다. 그리고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 절이 있던 곳이라 마을 이름이 절골이 되었다. 지금 절은 남아 있지 않은데 절골 어디엔가는 예전에 우물이 있던 자리에 황금부처가 묻혀 있을 것이다.

(이창선 제보, 『군사』)

## 09. 청원리

### ● 토성(土城)을 쌓은 이유

옛날에 마도면에는 바닷물이 들어왔었는데 징검다리가 놓여 있어 돌다리라 했다. 그리고 마를 실은 말을 재던 곳이다. 이 곳에서부터 토성의 흔적이 있는데 남양반도로 능선을 쬐어 무안봉과 다락굴 고개를 지나 성의 목쟁이인 성북재가 있는 청원리까지 있다. 가까이에 중국과 교역하던 마산포가 자리하고 있어서 해전 방어의 목적으로 토성을 쌓았다.

제보자: 최각현

### ● 방죽 머리를 끊을 수 없었던 일제

방죽 머리는 일제시대에 쌓은 방죽 초입의 지명이다. 당시에는 물이 차서 이 일대가 개미허리처럼 잘록하게 좁았다. 일제는 송산면·마도면·서신면 일부를 육지와 떨어뜨려 하나의 섬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방죽 머리를 자르면 피가 나온다고 하여 결국 자를 수 없었다.

제보자: 최각현

### ● 막산의 유래

조사자: 거기는 왜 막산이에요?

제보자: 옛날에 길 가던 중이 시주하러 왔더래요. 옥쟁이 영감이 얘기를 하더라고.

제보자: 그 영감은 거기 본토백이니까 알지.

제보자: 응. 중이 와서 동냥을 달라고 목탁을 두드려도 한 움큼을 안줬대요. 그래서 다른 건 선물할 게 없고 이걸 선물하고 간다고 하면서 깔따구를 한 움큼 풀어놓고 갔대요. 그래서 4리 동네가 그전에 깔따구 때문에 아주 죽을 뻔 했대요. 이 동네는 아무것도 줄 게 없고 깔따구나 주고 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스님이 가면서 이 동네는 천상 사람들이 막사는 동네라서 막산이라고, 그래서 막산에는 깔따구나 한 움큼 선사하고 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깔따구가 대단했어요.

제보자: 이렇게 앉아 있지를 못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깨물어요.

제보자: 그래서 중이 이름을 지어주고 갔대요. 그래서 그 영감님이 우리 집에 놀러오면 오죽하면 막산이라고 불러, 막 살아서 막산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욕을 그렇게 잘하고 옥쟁이지, 왜 옥쟁이야. 그렇게 농담을 하고 그래.

그래서 그 영감님이 4리를 왜 막산이라고 하냐고 하니까 그러더라고. 스님이 이름을 지어주고 갔대. 그래서 그렇대.  
조사자: 그게 거짓말이 아닌가보지?  
제보자: 응. 그 노인네가 얘기를 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제보자 : 김주현(여, 80세)

#### ● 조산의 유래

조산이라는 곳의 이야기인데요. 그곳에 조씨라는 큰 부자집이 살았어요 어느 날 동네에 중이 왔는데 조씨네 집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러자 중이 한 칸의 끈만 얻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칸의 끈을 얻어 줬대요. 그러자 중이 말로 염불을 하면서 사람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래로 말 무덤을 만들었다네요, 그래서 그 집안이 망했대요. 조산은 조씨가 살았다고 해서 조산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기와조각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보자 : 노인회 총무(남, 75세), 전 면장

### 10. 해문리

---

#### ● 정미산의 유래

“이 산을 우리 마을에서는 정미산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훼손을 했지만, 그전에 보면 시골에서 탈곡해서 곡식을 쌓아 놓은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미산이라고 그래요.”

#### ● 금배산

“마을 앞에 보이는 산의 이름은 금배라고 하는데 일제시대에 거기서 금을 캐갔어요. 여기는 고라실, 사금을 캐어요. 그리고 일본놈들은 저기 산에서 캐 가고.”

#### ● 제부리

“뒷산의 이름은 당산이라고 하면서 일명 제부리라고 하는데 제비가 날아오면서 입을 벌린 제비 주둥이를 닮아서 제부리라고도 하죠. 옛말에 금당리에서는 제비가 금당리에서 먹이를 물고 날아가기 때문에 금당리가 부유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금당리가 부자죠.”

#### ● 소고지 바위에 전하는 이야기

“소고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고지 뒤에 바위가 크지는 않아도, 소고지서 밥 먹고, 해문쪽으로 똥을 싣다고 해서 때려 부순 바위가 있어요.”

#### ● 화산(火山)의 유래

“썩가지 뒷산을 화산이라고 해요. 불 화자를 써서 화산이라고 하는데, 배가 뒤집어진 형국이에요. 여기서 배 엮어 놓은 산. 그런데 요즘 이 동네에 아주 부자가 날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옛날에는 다 못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이렇게 엮어진 형국이라서 가난하다고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 와서 이 동네에서 틀림없이 부자가 하나 날 거라고 하면서, 이 산이 기와집 형국이다. 누가 낫느냐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고, 옛날에 조사과라고 평양 조씨가 살다가는, 그래도 그때는 제정 때인데 밥술이나 먹었던 분이 있었죠.”

제보자 : 김해 김 씨

### ● 여계우물의 유래

해문리 돌말안에 여계우물이 있다. 언제인가 안 씨 집안에서 난리를 피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대부도로 피난을 가기로 했다. 딸만 둘이 있는 이웃집에서 자기들의 두 딸도 데려가 주기를 간청했다. 이 집에서는 자신들의 아들들도 일곱 명이나 되어 도저히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였다. 두 딸이 “이왕 욕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빠져 죽자.” 하고 우물에 빠져 죽었다. 두 여자가 빠져 죽었다고 해서 이 우물을 여계우물, 여계우물, 여이정(女二井), 여계정(女界井)이라고 한다.

(안익승 제보, 『대계』)

### ● 도깨비 이야기

예전에는 조수가 빠져나가는 밤에 염전으로 막아둔 갯벌 안쪽에서 명석을 말렸다. 마당에서 혼자 명석을 만들고 있으면 방죽으로 도깨비불이 쪽 늘어서는데 어떤 때는 그 불덩어리가 하나로 뭉쳐지다가 일순간에 흩어지기도 했다. 도깨비한테 흘리면 밤새 거적리 외딴 길이나 산 구렁텅이로 끌려 다니게 되는데 간혹 죽는 사람도 있었다. 동네에 힘이 세다는 사람이 실제로 혼자 외딴길로 오다가 도깨비에게 흘려 가시덤불로 끌려간 일도 있었다. 도깨비는 밤새도록 쿵덕거리며 절구질을 하기도 하고, 밤중에 나가보면 솔뚜껑을 털링 뒤집어 무쇠 솔 안으로 집어넣는 장난을 치기도 했다. 날이 밝으면 도깨비들은 솔뚜껑을 감쪽같이 꺼내 덮어놓은 다음 사라지기도 했는데 사람은 그 솔을 꺼낼 수가 없어 결국 솔을 깨뜨려야만 했다.

(김정세 제보, 채록)

### ● 당성의 서낭목

해문1리에서는 서신면 당성의 서낭목에 전하는 이야기가 채록되었다.

“굴고개는 옛날에 굴을 많이 따다가 껍질을 자꾸 버려서 그렇다는 전설이 있는데, 서신하고 송산하고 구봉산에 당성이 있어요. 그냥 당이 서낭당 비슷하게 산에 어느 만신이 거길 위하고, 터줏가리가 있었어요. 작은 게 아니고 크게 해서 나무를 모셨었죠. 그걸 당신(堂神)이라고 모셨죠. 하여간 그 당은 우리도 어려서 봤으니까, 문화 유씨네 만신이 당 너머에 계셨거든요. 돌망할머니. 그 할머니가 모신 거야. 나무도 큰 게 있었고, 참나무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양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른들 말씀이 그게 당길이라고 해서 금당리 소고지, 역굴 이런 데서 그 마을로 말을 타고 가면 내려서 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말을 타고 거기를 지나가면 말굽이 붙어서 안 떨어졌다고 이런 얘기도 우리 어려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말에서 내려서 갔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지금은 서낭목은 없지만 해마다 터줏가리를 크게 하고 왼 새끼 파서 두르고 색색이 천하고 종이를 해 놓은 것을 우리도 봤어요.”

서낭목이 있던 산은 문화류씨의 소유였다고 한다. 그리고 문화류씨 마을에서도 서낭목을 모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산의 주인 되는 사람이 어느 날 술이 잔뜩 마시고 취해서는 서낭목에 불을 질렀다. “니가 영험하면 나를 죽일 것이고, 벌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라고 그랬다.” 자기 소유의 산에서 돌망할머니가

쓸데없이 여기 와서 푸닥거리를 한다고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건 나도 봤어요. 자기네 소유 땅인데 자꾸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런 거지. 그러다 돌망할머니가 돌아가신지가 6·25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60년가량 되었지요.”

서낭을 모시던 만신이었던 돌망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서낭목에 대한 신앙은 점차 없어졌다고 한다.

해문1리(해문) 제보자: 최도영(남, 73세)노인회장, 허순범(여, 76세)부부

## 11. 해문2리(아랫말, 회룡곡)

---

### ● 신목

회룡골 입구에 팽나무가 하나 있어. 보호수는 아니고, 그전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평평한 공터였어요, 여름이면 거기서 매끼(새끼)도 꼬고 그랬어요. 수령은 약 200~300년은 되었는데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위하고 했어.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건드리면 화가 미친다고 생각하지 그 나무를 건드려서 좋은 사람이 없어.

11대 종손네 집이 바로 그 밑창인데 나무를 건드렸지 뭐야. 나무를 베고 건드렸는데 환갑도 못 살고 죽었어. 그 종손이 학교 선생이었어요. 거기 집안네 조카가 살다가 그 나뭇가지를 하나 잘랐어. 그런데 그 사람이 산업재해를 입었어. 지금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어. 지금은 전기가 그 나무를 타고 넘어와서, 한전에서 나무를 잘랐더니 봐. 그 사람이 돌아가다가 사고가 났대. 저 나무도 옛날부터 뭐가 있는 나무야. 옛날에는 저 나무도 위하던 나무가 아닌가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 나무를 못 건드리게 하는 거야. 수호목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 거야. 한두 아름 정도 돼.

제보자: 홍순용(남, 63세)노인회 총무

### ● 주막거리

해문리와 슬항리 경계가 되는 지역에 주막거리가 있었다. 석교리. 절굴 사람들이 사강을 가려면 이곳을 거쳐 지나기 때문에 주막이 잘 되었다. 지금도 금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듯이 예전에 글을 캐는 금광이 있었다. 1960년대까지 금광이 운영되었다. 그래서 술집을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나 거기가 도깨비 터인지 그곳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외지로 나가기만 하면 모두 망하였다.

제보자: 홍순용(남, 63세)노인회 총무

# 3. 옛놀이

## 01. 고모리

### •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날 고모리에서는 농악을 많이 놀았다고 한다. 두레패들이 집집이 다니면서 쌀 한 말씩 놓았으며 술과 음식을 내어 두레패를 대접하였다. 설 이후 보름까지가 명절로서 놀이와 주민들 간에 화합의 시간이었다.

“명절이라고, 명절 같아요? 널뛰고, 초하룻날부터 보름까지는 놀아요. 열나흘날, 오곡밥도 해 먹었지요. 나물도 아홉 가지나물을 먹어야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물을 먹어요. 이웃사람들하고 나눠 먹었어요.”

### • 소로 점치기

그리고 소에게 오곡밥을 먹이고 나물을 먹여 한 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였다고 한다.

“오곡밥을 해서 소에게 주고 소가 무엇을 먹는가를 보지요. 나물을 먹으면, 흉년이 들고, 쌀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든대요.”

### • 정월고사

정월 보름을 기하여 안택고사를 드렸다고도 조사되었다. 이는 시월 상달에 가정마다 고사를 드리던 풍속과 일치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정월 열나흘날 보름날 떡을 하면은 시루째 갖다 대청에 갖다 놓고, 물 한 사발 떠다가 가운데다 올려놓고, 절하고, 기원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만 하시더라고 장독간에도 하고, 일단은 장독대 갖다 놓는데, 떡을 나눠서 갖다 놓고, 터춧가리에 갖다 놓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장독대에 시루째 갖다 놓았죠. 친정에는 터춧가리 해 났었잖아. 그래, 갖다 놓고 빌잖아, 고사도 지내고.”

### • 달맞이 / 불놀이

정월대보름날 달맞이는 금당리2리 오 씨들의 선산인 고모리 '오감'에서 했다. 달을 보면서 고사도 드리고 잘 되게 해 달라고 기원도 하였다. 아이들은 불을 돌리면서 놀았다. 불놀이는 짚으로 방망이 모양을 만들어 돌리면서 놀았으며, 깡통을 뚫어서 불씨를 담고 빨감을 함께 넣어서 돌리면서 놀았다. 이를 쥐불놀이한다고 하였다.

조사자 : 금당리 오 씨네가 선산이 여기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암 지내고 그런단 얘기지요. 그 산자락 위에 보름달이 뜨는 것을 본다는 말이지요?

“정월달 14일, 15일은 대보름 달맞이하러 가는데 오감 꼭대기로 가지요. 오 서방네 시암 지내는 데가 있어서 '오감'이라고 그려나 봐. 지금도 있어요. 금당리 오 씨네. 금당리는 2개의 부락이 있는데 그중 2리가 오 씨네 마을이네요.”

## ● 가족 점치기

집안에서는 솜을 삼발이 모양으로 만들어 점시에다가 기름을 붓고 가족의 숫자만큼의 불을 켜다고 한다. 그리고 잣으로 기름을 내어서도 불을 켜 놓았다. 한 해 동안 가족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점치는 의미였다고 한다. 삼발이 모양의 심지에 불이 어떻게 올라가는 가를 보아서 한 해의 길흉을 점쳤던 것이다.

“달 가지고는 고사도 드리고, 잘되게 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는데. 1년 치기 잘 봐달라고, 점시에다 기름 솜 이렇게 해서 불도 켜놓고, 식구바닥도 켜놓고 잣이 귀했는데. 잣불 켜는 것. 있잖아요. 식구대로 등잔 점시에다가 솜을 비벼서, 삼발이를 발을 맨들어서 초 모양 올라오게 꽂아놓고서, 식구가 열이면 촛대가 열개가 올라와요. 기름은 주로 들기름을 썼는데 점시에다가 들기름 놓고, 천에다가 솜을 비벼서. 촛대 올라오듯이. 하고 불을 펴요, 그리고는 잘되게 해달라고 빌어요. 불이 좋으면 그 사람 좋다더라... 그래구 그랬어요.”

## ● 두더지 놀이

“두더지 끈다고 짐세기(짐신) 끌고 다니기도 하고. 열나흘날 끌고 다니기도 했어.”

아이들은 짐신 등 짐뭉치를 두더지라고 하면서 들판을 끌고 다니면서 놀았다고 한다. 이는 봉담읍 기천리의 세거리에서 조사되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정월대보름을 기하여 노는 놀이 가운데 일반적이지는 않다.

두더지 놀이는 발농사에 피해를 주는 두더지를 없애기 위한 놀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고모리의 두더지놀이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닐 수 없다.

## ● 단오

단오날에는 그네뛰기를 하였다.

“옛날에는 나무가 많았잖아.. 밤나무 같은 것. 거기다 매서 그네 뛰었지.”

## ● 칠석

칠석날은 밀떡을 부쳐 먹었다. 이날은 가정마다 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었다고 한다. 제석 주머니의 쌀을 꺼내어 백설기를 해서 고사를 드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조사자: 시루떡 안하고 밀떡만 붙여요? 제보자: 6월 보름날은 또 밀떡을 부치드라구.”

## ● 추석

“추석에는 제사 올리고 농악 많이들 하고 놀았지.”

농악을 놀았다는 것으로 보아 거북놀이를 함께 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거북놀이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대동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 정월대보름 줄다리기

“두레 놀고. 여자 편, 남자 편을 갈라서 줄다리기를 했었지. 그전에는 아래 윗동네니까, 아랫말, 웃말. 그러니까 동네 갈갈라졌잖아. 그러니까, 여자 편, 남자 편 했지. 남자 편, 여자 편 해서 남자가 이기면, 또 한 번 다시 했대요.”



조사자: 여자가 이겨야 하는 거지요?

제보자: 모르지. 기안리는 지금도 해요. 기안리는 7월 초하룻날이면 소 잡아서 고사도 지내고, 봄에 정월이면, 여기서 농악도 놀러 갔잖아요. 사람 사가지고, 해마다 보름날이면, 줄다리기도 하고.

조사자: 기안리는 여자 편, 남자 편해서 여자가 당연히 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가 안간 남자는 여자 편으로 가고, 장가 간 남자는 한편이고. 그래서 여자가 이겨서 풍년이 드는 거지. 이 동네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제보자: 안산이라고, 공장 많은 동네 있잖아요. 산이었는데, 공장을 만들었잖아.

조사자: 안산도 고모리죠?

제보자: 안산 밑창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소 잡아서 고사를 지냈대요. 당은 지금 없는데, 산 밑에 가서 편편한데 가서, 놓고 그랬대요.<sup>3)</sup>

### ● 호미걸이

“호미걸이는 흥법리 두레가 있는데, 백곡리(도) 두레 있고. 부락(部落) 부락마다 두레가 있는데, 어느 날 한다고 하면, 흥보고개에서 북을 쳐요… 동동.. 그러고. 그럼, 이쪽에서 받아줘야 들어오지, 안 그러면, 혼났잖아. 그래서 서로 밟고, 맞아들이고 인사하고.. 그런데 잘 못 하면 싸움이잖아. 깃발로 인사 했잖아요.”

제보자: 예전에는 백곡리 두레, 고모리 두레, 흥법리 두레, 금당리 두레도 있고.

조사자: 호미걸이 어디서 했어요?

제보자: 광재 아니여? 지금 회장네 들어가는 그 골목이었지.

제보자: 너무골 좀 못 가서, 양지편이라고 했지.

조사자: 양지편은 흥법리 쪽 아니에요?

제보자: 아니여~ 양지편 그 골목에서 녹음 놀이 했잖아… 옛날엔 그랬어요.

조사자: 호미걸이 하는 것까지 얘기 했어요. 4개 마을의 두레패들이 금당리, 백곡리, 흥법리, 고모리. 두레패들이 와서 신나게 노는 데가, 양지편 쪽 산자락에 와서 놀았다는 것이지요?

제보자: 응. 그리고 옛날에, 논맷잖아. 사람들이, 남자들이 소로 갈아가지고 썰고, 수참에서들 한숨들 자고, 호미로다가 굽어서 맷잖아. 날릴리 상사… 노래도 부르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보자: 옛날 어르신 들이 다 하고 두레패 갖다 꽃아 놓고, 농자 천하지대본 꽃아놓고.

남의 동네 맘대로 못 들어오게… 안 그러면 씌나. 흥법 사람이 여기서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제보자: 그래가지고 들에 갔다 들어오면, 저쪽에서 북을 쳐요. 그러면 이쪽에서 받아 쳐요.

조사자: 모래지 사람들 여기로 넘어와서 농사지었던 말이에요. 왜 이리로 넘어 왔어요? 그 쪽에는 농토가 없나.

제보자: 지금은 다 개인 땅이지만, 지주가 있잖아요. 땅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 ● 두레

옛날에는 두레패가 있어서 소리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한분 남았는데 벽구재비로 올해 연세가 일흔넷이고 성함은 지 상자 태자 어르신이다. 농악경연대회에서 고모리가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입상(入賞)하기도 하였다.

3) 제보자께서 시집가기 전의 기억이라고 하니 약 70년 전 이야기다.

마을어른들의 안내를 받고 지상태 어른을 찾았다.

조사자: 여기 너멍굴이고. 이 동네 이름이.

제보자: 절골 아니에요, 여기.

조사자: 절골 아니죠? 근데 여기 주소에 지금 절골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어서.

제보자: 그렇게 해놨더라고.

조사자 : 어르신이 벽구잡이를 했고, 상모돌리기의 일인자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83회 생일날에 가서 법고잡이로 상모도 돌리고 하셨다고 그러던데. 지금도 상모를 돌리시죠?

제보자: 지금도 가끔 조금 해요. 다리가 아파서 뛰질 못하고. 마도농악 대원이지.

조사자: 아, 지금 마도농악 대원으로 계시고. 근데 어쨌든 벽구(법고)와 상모돌리는 것은 언제 배우신거예요?

제보자: 어떻게 배운고 하니.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예전에 8.15 해방되고 나서 호미걸이라고 있었어요. 논 메 놓고 모여서.

제보자 : 지상태(남, 74세)

### ● 마도면 두레의 내력

지상태 어른은 17살에 남양농악대에 단원이 되셨다. 1952년 경 남양농악대가 처음 만들어졌고 그 당시 벽구잡이(법고잡이)로 상모를 돌리게 되었다.

“이웃동네끼리 농악이 모여서 호미걸이를 하러 다니는데 보니까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애들끼리 모여서 악기도 만들고 우리도, 짚을 몇 줄 꼬아서 어려서도 병거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쓰고서 돌려보고 그랬거든? 근데 어른들이 그걸 보고서 너 좀 돌릴 줄 아니, 호미걸이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나와 좀 돌리라고, 팽과리도 치고 그러면서. 해서 돌린 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남양농악대가 처음 생길 적에 거기서부터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상모를 돌리는 기술을 처음부터 누구에게 배웠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어른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해 보고 연습하면서 기량을 습득하셨다고 한다.

조사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벽구잡이하고 상모돌리기 한다고 그래도 상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쇠가 정확하게 맞춰져야지 뭐 그걸 해줄 것 아니에요. 상쇠잡이 누가 하셨어요?

당시에 상쇠를 맡았던 분은 ‘번말’의 김윤수 어른으로 지금 생존해 계시면 90대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로 공연을 갈 때의 상쇠는 마도면 청원리 분으로 윤종구 어른이었다.

두레는 각 마을의 자긍심이기도 하고 자존심이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기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형님두레가 있고 아우두레가 있었던 것이다. 두레가 기(旗)싸움을 하였다거나 기싸움에서 꿩깃털을 빼앗겼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풍속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윤종구 어른의 기량은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짐작된다. 마도면 청원리 분을 팔탄면 서근리에서 스카웃을 할 정도였다.

제보자: 서울 갈 적엔 윤종구 씨라고 그 양반이 상쇠였어요.

제보자: 그 양반이 청원리 분인데.

제보자: 마도면 대표로 가니까 그분이 상쇠고, 이 양반은 장구 치고 그랬다고.

조사자: 아, 김윤수 어른님은 장구 치고, 윤종구 어른님이 상쇠 역할을 하시고.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조사자: 윤종구 어른이.

제보자: 저 서근리 같은 동네에서, 팔탄면 서근리에서.

제보자: 예, 거기서 상쇠로 데려갔어. 농사 주고.

조사자: 아, 그럴 정도로. 상쇠를 잘 하셨다는 얘기네요.

제보자: 지상태(남, 74세), 지산근(남, 76세)노인회장

### ● 고모2리 아랫고모의 세시풍속과 놀이

고모리에서는 약 60년 전까지 정월 보름에 옷말, 아랫말로 편을 짜서 줄다리기를 했다. 줄다리기는 이장네 집 앞 공지해서 했다. 줄다리기 줄은 돌을 만들어서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 꼬았으며 이장집에서 짚을 내놓았다. 줄다리기를 할 때 풍물도 놀았다.

이외에도 정월 보름에는 마을 젊은이들이 풍물을 치고 다니면서 넉넉한 집에 가서 술 등을 얻어먹었다. 이 마을에서는 좀 사는 집에서 두레패에게 돈을 주거나 했지만 두레패가 쌀을 걷어가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추석 때도 풍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있는 집에서 술을 얻어먹곤 했다.

김매기가 다 끝나고 젊은 사람들 몇 명에서 천렵을 하기도 하였다.

## 02. 금당1리

### ● 정월대보름 달맞이

옛날에 달맞이하러 두레와 함께 뒷산으로 올라갔다. 달을 보고 올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다. 그리고 내려와 두레를 치면서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고사반을 했다. 고사반을 하면서 각 가정에서 내놓은 곡식 등을 거두어 마을 기금으로 운용하였다.

“어른들은 달구경 하면서 달을 보고 올해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아셨지. 달이 아래로 처졌으면 흉년이 들고 위로 뜨면 물이 많아 풍년이 들고 이렇게 아래로 뜨면 가문다 했어요.”

### ● 춘분

춘분 때에는 보리뿌리를 보고 뿌리가 잘 내리면 풍년이 들고 뿌리가 안 내리면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

### ● 삼진날

예전에는 제비 오는 날 ‘삼진날 제비한다.’고 하면서 떡을 해 놓고 했는데 지금은 단절되었다고 한다.

### ● 단오

“단오 날에 여기 두껍바위라고. 바위를 누가 파갔어. 아주 잘생긴 바위인데. 여기 나무가 아주 거성했는데 거기다 그네 매고 그네 뛰고... 두껍바위는 두꺼비처럼 생긴 바위로 괴상한 바위모양인데 누군가 파 갔다.”

제보자: 이제천(남, 76세)

### 03. 금당리(금당곡)

---

-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에는 망월터의 망월대에 올라 달을 바라보고 한해의 풍. 흉을 점친다. 달이 너무 꼭대기에 있거나 동문까지 뜨면 날이 가물고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비가 많이 와 물이 많다고 한다. 또한, 예전에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데 가장 먼저 보름달을 보는 사람은 그 해에 운이 좋다고 했다. 망월대에 올라가 달집을 태우고 절을 하며 소원을 빌기도 하였다.

정월대보름에는 남·녀 누구나 오곡밥을 해서 삼거리에 가지고 나가 소원을 빌고 침을 세 번 뱉고 왼발로 땅을 세 번 구른다.

- 줄다리기

대보름에는 줄다리기도 하였는데 마을에서 가까운 빈 밭에서 줄다리를 하였다. 편 가르기는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정하는데 이기는 사람은 바른쪽 편, 지는 사람 왼쪽 편으로 갈라 줄다리를 하였다. 줄다리는 여자는 참가하지 않고 남자들끼리만 행하였다. 줄다리를 하는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고 한다.

- 나무장가들이기

정월대보름날에는 오곡밥을 해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 볼미에 올려놓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해달라는 의미였다고 한다.

- 삼진날

삼월 삼진날은 썩을 베거나, 약수, 그네도 뛰고, 창포로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었다. 썩을 베어둔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의 풍속이 아닌가 한다.

- 칠석

칠월칠석날도 명절로 여겼다. 칠월칠석날은 달맞이도 하고 칠성놀이도 하였다. 특별히 하는 놀이는 없고 집안이 무탈하고 가족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또한,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면서 각 가정에서는 정성을 들였다고 한다. 칠석에 달맞이를 하였다거나 칠성놀이를 하였다는 점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 호미걸이

호미걸이는 바쁜 농사일이 거의 마무리 되었음을 의미하는 날이다.

조사자: 호미 씻고 나서? 호미 씻고 걸고 나서요?

제보자: 호미걸이라고 했죠. 호미걸이. 들에 놓고 우리 동네 아주 잘 노셨었어. 그 동네 아주 유명했어.

제보자: 오○○(남, 80세)

-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에는 농악을 가지고 밥술이나 식후 해결되는 가정에 가서 고사반을 드리죠. 쌀 한말에 실타래 손갈에 꽃아서 주면 고사반하고 그 쌀을 거두어서 부락의 자금으로 썼죠.”

“달맞이하러는 망월터로 올라가요. 달을 본다고 해서 아예 산 이름이 망월터예요. 거기서 짚불하고 농악도 놓고, 달을 보고 점치기도 하지요. 달이 빨갭게 뜨면 날이 가물 것이다. 맑갭게 화창하게 뜨면 풍년이 올 것이다.”

- 단오

“해방 전에는 단오놀이를 했었다고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그네 뛰고 그랬다고 하는데, 단오날 약쑥을 비어다가 지푸라기 엮듯 해서 마르라고 걸어 놔요. 말려서 잘 두면 산모가 유산 하면 삶아서 그 물을 사용하고, 삼복에 마당에 앉았으면 모기가 물 적에 화로에 쑥을 태우고 그렇게 사용했어요. 산모가 순산을 하면 그 물로 하부를 세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배 아프다고 하면 삶아서 먹이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단오에 머리 감고 그런 건 없었어요.”

- 칠석

칠석에는 그저 옛날에 참외 심을 때 참외 따다가 이웃끼리 복두칠성이나 보자고 마당에 앉아서 참외 먹고 별 보고 그랬죠. 밀떡도 부쳐 먹었죠. 고사는 안 지내고, 그리고 칠석날 까치를 보면 실제로 대가리가 벗겨졌어요. 그걸 보고 다리 놓느라고 머리가 까졌다고 하는 거지. 복두칠성하는 거니까……. 다리를 놔서……. 견우직녀, 그런데 칠석날 보면 실제로 머리가 까졌어요.

제보자 : 성충용(남, 72세)

- 금당2리 금당골의 세시풍속과 놀이

특별한 날이 되면 떡을 해 먹는다. 정월에는 찹쌀떡이나 팥시루떡을 해 먹는데, 찹쌀떡은 찹쌀을 찞어서 만들며, 안에 팥고물이 들어간 것으로 ‘모찌’라고 하는 일본식 찹쌀떡을 방앗간에다 주문해서 구입해 먹는다.

정월 보름이 되면 열 나흘날에 농사가 잘 되라는 의미에서 ‘벗섬떡’을 만든다. 벗섬떡은 송편 모양으로 생겼으며, 콩이나 팥으로 고물을 만들어 넣는다.

2월 초하루에는 멍쌀로 송편을 만들어 나이 수대로 먹는데, 이를 ‘나이떡’이라고 한다.

## 04. 두곡리(고잔)

- 정월대보름

두곡리의 정월대보름 달구경은

“두곡리 큰 동네에 앞산이라고 있어. 정확히 여기서 보면 뒷산이지. 올라가서 망월을 했지. 달뜨는 거 보고 그 해 농사가 풍년이나, 가무냐 그걸 봤지. 달이 위로 뜨면 풍년이고, 아래로 뜨면 비가 들어온다고 그랬지.” 라고 한다. 그런데 달이 뜨는 위치만으로 풍흉을 점치었지 다른 마을들과 같이 달의 색깔을 보고 풍흉을 점치지 않는다고 한다.

## ● 호미걸이

두곡리 고잔의 호미걸이는 인근 마을인 송정리, 석교리의 두레패를 불러서 함께 놀았다고 한다.

“호미걸이를 했어. 다 차려 놓고 불러서 놀았지. 팽과리 치고 놀았지. 여러 동네에서 왔지. 여기는 가까운데 송정리, 석교리고 불러서 했지. 한바탕 차려 놓고 먹은 거지.”

각 지역의 두레패가 함께 모여들 때는 서로 팽과리를 치면서 인사를 나누었다고 한다.

제보자 : 조문희(남, 85세), 김정숙(여, 86세)

## ● 두곡리 세시풍속

두곡 1리에서는 정월 설에 마을 어른들께 세배를 다녔다.

정월 14일에는 ‘지웅치기’를 한다. ‘지웅’은 짚으로 만든 사람처럼 생긴 허수아비를 말하는데 지웅의 입에 돈을 물리거나 밥을 먹인 후 사거리에 버린다. 이를 ‘지웅치기’라고 한다. 또한, 14일에는 집집이 오곡밥을 해서 무사고를 빌며 바다에 던지는 용왕제도 지낸다.

정월 보름에는 동산에 올라 ‘달보기’를 하며 ‘달점’을 친다. 달을 보러 갈 때는 풍물을 치면서 오르며 주로 남자들만 올라간다. 달이 오르면 ‘달 오른다’하고 함성을 지르고 달에게 절을 한다. 또한, 달이 오르는 방향이나 봉우리를 보고 그 해 ‘물이 많을지 적을지’를 점친다. 이러한 ‘달보기’는 약 15년 전부터 중단되었다.

2월 초하루에는 ‘나이떡’을 해먹는다.

7월 15일 백중 무렵에는 호미걸이를 하며 논다. 두곡리 ‘두레’는 열두 가락을 모두 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호미걸이를 할 때에는 인근 두레를 초청해서 풍물을 치고 씨름을 하면서 논다. 이때 초청되었던 두레는 고모리, 금당리, 석교리, 송정리 두레이며 비용은 마을마다 공동으로 추렴하였다.

8월 추석에는 호호마다 풍물을 치면서 돌아다닌다. 제일 먼저 대동우물에 가서 고사를 드리고 시작한다. 집집이 다닐 때는 그 집에서 쌀이나 돈을 내놓고 맞이하며 이때 걷힌 돈은 마을 기금으로 사용한다.

10월이 되면 가을 떡을 해서 고사를 드린다.

## 05. 백곡1리

### ● 정월대보름

“정월 보름에 달구경은 망산으로 구경 갔지요. 바랄 망자. 망월산이지. 그런데 망산이 된 거예요. 우리들 어려서도 농악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 농악이 낮에는 집집이 고사반을 했지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상채 팽과리를 치시면서, 고사반도 하고 그러셨지.”

“집집이 고사반을 하러 다니면 노랫말이 어떤 내용인가는 잘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국태민안, 뭐 시화연풍, 삼각산도 들어가고 그러대. 근데 원지 모르지.”

“달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는데 달이 어떤 쪽으로 떠야 풍년이고, 어떤 쪽으로 뜨면 흉년이라는 것을, 달을 보고 점을 치지요. 저 아래 감나무가 있었어요. 지금 은행나무 서 있는 데가 감나무 섰던 자리예요. 거기서 보고 위로 뜨면 풍년

이고, 아래로 뜨면 흉년이라는 거지. 근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옛날 노인네들 내려오는 내력을 무시 못 해.”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달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런 걸 따지시는데 겨울에 눈 오는 걸 보고 따지더라고. 올해 눈이 많이 왔으니까 내년에는 물이 많을 것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좋은거지.”

“보름날 아침에는 오곡밥 먹고 내 더위를 파는 거야. 부르는 걸 모르고 대답했더니 내 더위 사가라고 하잖아.”

## ● 단오

“오월 단오에는 여자들은 창포로 머리를 감지. 또 그네뛰기를 했는데 마을에 왕소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곳에 그네를 매고 밤이면 그네 뛰느라고 야단이었고, 남자고 여자고 그네 뛰는 게 유명했었어. 동아줄을 만들어서 소나무에 매서 그네를 뛰었지. 창포로 감고 동백기름을 머리에 바른다고 하셨지. 저 아래 남해안에 피는 동백꽃과 다른, 여기는 노란 동백꽃이 피는 동백나무야. 봄에 노란 꽃이 피었다 지면. 열매가 이맘때 지나서 까맣게 돼요. 그 열매기름은 포마드 바른 것처럼 윤이 나고 좋더라고.”

## ● 칠석

“칠석날은 부치미 또는 밀떡이라는 것을 부쳐서 잡숫고 그랬지요. 다른 건 없고, 보름 안에 농악 노는 건 아주 전래적으로 했어요.”

제보자: 김창연(남, 77세)

## 06. 백곡1리(정북동)

### ●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날 달맞이하러 가는 곳은 저 우리 산 뒷산, 정북산, 망산이라고 그랬어요. 달맞이를 하면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데 풍수지리보다도 달을 쳐다보면 물이 잔뜩 먹잖아요. 그럼 사흘 안에 비가 오지요. 달무리가 졌으니까 비가 와요. 달무리가 넓게 졌으면 늦게 오지요. 달하고 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달이 물 먹었으면, 달이 하얀색으로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이 들 거라고 했고 달이 빨가면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 든다고 했어요. 지금은 기상박사들이 얘기를 하지만, 자연재해는 기상박사들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천기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거 이상해요.”

“정월대보름에는 행사를 크게 했는데 그전에는 정월달이면, 집집이 다니면서 우물 고사 드리고, 쌀 한말씩 내서 동네 돈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젊은 사람들이 없어.”

조사자: 고사반 드리는 거지요.

제보자: 옛날에는 고사반도 하고, 두레놀이도 하고. 우물 돌면서. 주문 외웠잖아. 주문은 정수 좋은 건 물러나 내버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지. 그때만 해도 여럿이서 집집마다 쌀 한 말씩 내서, 떡을 해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

“정월 열나흘날 외양간에다가 소한테 나물을 주고 소가 먹는 것을 보고 풍·흉을 점치기도 했어요. 소가 풀을 잘 먹으면 좋고, 나물을 먹으면, 그해에는 풀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풀을 많이 먹으면 비가 많이 오니까, 풍년이라는 거지. 여기는 오곡밥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반찬가지고 따지는 거지, 밥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여. 나물, 무나물 해놓고, 무나물

먼저 먹느냐, 채소 삶은 것을 먹느냐 그거지.”

정확한 이치는 없지만 내려오는 풍속 중에 식물을 먹어야 좋다는 했어요.

#### ● 나무시집보내기

“정월 열나흘날이면, 우리 친정어머니는 밤나무, 감나무에다가 돌맹이를 얹어. 나무시집보내기라고 나뭇가지에다가 돌을 끼우던데 대추나무나, 밤나무에든지, 돌을 끼우잖아. 가지 부러지잖아. 그럼 많이 날 수 밖에 없잖아. 대추나무 이런 건 두들겨야 열려요. 그냥 놔두면 안 열리거든. 대추, 도토리나무는 뒤편에 패야 열리는 거거든.”

“대추나무하고 두 가지 나무 밖에는 없어요. 정월 열나흘날. 그때 시작해야 이파리 나오기 전에 시작을 해야 한다는 얘가지. 열나흘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지요.”

#### ●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1리하고, 2리하고. 했는데 이기고 지고 상관없어요. 줄다리기는 많이 안하고 우리 어렸을 적에는 쥐불 놀이. 그걸 많이 했지.”

“달맞이하면, 흔들기만 하고, 불 피워서 올라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나무가 없으니까, 귀해요. 정월 보름날 논두렁 불 쒀놓잖아. 그게 쥐불이여. 해충 죽이자는 작전이거든.”

#### ● 추석

“추석에는 두레가 놀았지. 지금은 안하잖아. 소리 잘 하시는 어르신도 모두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제보자: 양형직(남, 81세), 양영주(남, 74세), 지기분(여, 76세)

### 07. 쌍송리(방죽안말)

---

#### ● 정월대보름

“대보름에 달 보러 뒷동산으로 오르지요. 뒷산이 조금 높아요. 그때는 산에 올라가면 다 불이 비취. 다들 뒷동산에 올라가서. 망월하고 불 놓고, 그때는 높은 산이 다 보여요.

달 떠오르는 걸 제일 먼저 보면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저 밑에 사는 양반이 제일 먼저 봤다고 하면서 아들 낳는다고 하더니 진짜 아들을 낳았어. 농사 점치는 건 잘 모르고.”

#### ● 칠석

“칠석에는 밀떡 부쳐 먹고 그랬죠. 여기는 특별하게 하는 건 없어요. 단오에도 별거 없고.

제보자: 권두연(남, 73세)부부

### 08. 쌍송리(솔티)

---

#### ● 정월대보름 농사 점치기

“정월대보름 달맞이는 달봉채에 가서 하죠. 마을 뒷산 달봉채에 올라가서 달이 어떻게 뜨나 보고. 농사점을 치지요. 달이 남쪽으로 쳐지느냐, 북쪽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풍흉을 알 수 있다. 풍년은 조금 이른 해는 달이 북쪽에서 조금 올라가겠지. 음력은 20일 차이는 되잖아요. 내 생각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풍년이겠지. 윤달이 안 드는 해는 북쪽으로 올라갈 것 아니야.”

● 두레

“마을에는 두레가 없었지만 거적리 두레가 마을에 들어와서 우물도 한 바퀴 돌기도 하면서 집집이 다녔어요. 멍석을 펴 놓고 절하고 쌀을 한 말씩 주었지요.”

제보자: 권진양(남, 74세), 배원분(여, 69세)부부

## 09. 쌍송리(거적리)

---

● 정월대보름

“마을에서 정월 보름에 달맞이하러 가까운 산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옛날 노인네들은 올라가셨지만 우리는 별로 안 올라갔어요. 달뜨는 걸 보고 농사 점도 치는데 달 둘레가 두껍고 얇은 거, 동그란 거, 보는 게 많죠. 달의 빛깔로도 붉으면 덜 좋대요. 맑으면 좋다는 거죠. 위치로 봐요. 내리뜨면 물이 많다. 높이 뜨면 가문다는 게 있어요.”

● 고사반

“낮에 집집이 다니면서 고사반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한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게 차차 없어졌죠.”

● 입춘 보리점

“입춘 날은 보리뿌리를 봤었어요. 그거 보면 올해 풍년인가 아는 거죠.”

이때 보리뿌리가 몇 개인가가 점의 내용이 된다. 보리뿌리가 하나면 흉년, 둘이면 평년작, 셋이면 풍년이 들 것이라고 점쳤던 풍속이다.

● 좀생이별

“좀생이 보는 사람도 있죠. 좀생이보고 법씨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른 벼가 좋은 해가 있고, 늦은 벼가 좋은 해가 있어서요.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딱도 해먹기도 했어요.”

● 단오

단오에는 창포를 베어다가 이슬을 맞히고 그 물로 머리를 감는다.

● 호미걸이, 두레

호미걸이를 할 때는 두레를 청해서 같이 놀았다. 이날에는 마을의 두레 그 뿐만이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각 지역의 두레패들이 들어왔다. 거적리에는 두레가 둘이었다.

“여기는 우리 김 씨네 대종이 많이 살고, 여기 등 너머는 윤 씨, 김 씨, 이 씨들 살았고, 거기도 10여 호 살았어도 주변 사람들 모아서 두레 하나 꾸미고, 이름은 한 동네라도 두레는 둘이나 되었죠.”

### ● 나무시집보내기

조사자: 정월 보름에 나뭇가지에 오곡밥 얹어 놓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제보자: 그런 것도 하는 집은 했어요. 과일 나무 열으라고, 돌맹이도 끼고 오곡밥도 얹고 그랬어요. 돌을 나무사이에 끼워 놓고 그러더라고요.

제보자: 김홍경(남, 85세), 김부영(남, 76세)노인회장

## 10. 송정리(웃하일)

---

### ● 달맞이

“정월 보름에 달맞이 하는 곳은 저쪽에 가면 소나무 하나, 지금 산 깎아서 공장 지은데, 거기 외솔인데 돌팍 위에 있는데 왜정 때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났어요. 이 나무 보다는 작아도 수령은 더 되었을 거예요. 그 옆에 다 바위에요. 발로 굴러 보면 쿵쿵 소리가 나요. 거기는 이층재라고 해요 거기서 달맞이 하지요, 그곳에서 보면 두곡리 전체가 다 보여. 거기 아니면 여기 와서 하고...”

### ● 두레

“여기는 3개 반인데, 반마다 두레가 다 있었어요. 1반은 법안동. 2반은 웃말. 3반은 아랫말. 법안동은 법동이라고도 했는데 그전에 흥 씨들이 살았거든, 법동이라는 데가 내가 사는 곳인데 거기 흥 씨들이 일제시대 때 다 공무원 생활 하고 법에 많이 다니고 아주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법동이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법동이라고 지도에도 나와요. 3반도 하나는 임시텃굴, 또 아랫말, 넘말 세 가지로 나눈다고. 우리 사는 데도 법동, 버파굴, 길마재라고 해요. 아래 하일도 반이 여러 개인데 도롱굴이니 뭐니 있다고. 글판이고개?”

“두레가 정월 보름에 낮부터 고사반을 다니는데 그전에는 법안동하고 웃말하고 아랫말하고 그 양반들이 서로 호미걸이를 한다는 것이 하루 먹고 앉아서 노는 거지.”

“꼭대기 가면 느티나무 심어 놓은 평평한 고개가 있는데 그거 할 때는 3개 반에서 합쳐서 했어요. 호미걸이터에서 두레를 불러 들여서 먹고 노는 거지. 두레를 만들어서 농사 가꾸고 나서 한가하니까 그날 하루는 두레패가 두드리면서 먹고 노는 거예요. 두곡리에서 초청을 하면 여기 두레가 또 가지. 가면 어느 두레가 잘 노나. 동네별로 두레 시합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인근에서 두레중 제일 잘 노는 두레는 고모리 두레였어요, 예전에는 막산이 두레가 잘 논다고 했는데. 지금은 고모리 두레 밖에 없어요.”

### ● 달맞이

“달맞이하러. 이층재에 올라가면 두레가 먼저 올라가고 뒤로 동네 사람들이 따라 올라가지.

짚방망이 들고 가서 소원 빌고 모닥불 피고. 거기서 불놀이 하고 그러는 거지. 달집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날은 눈썹 센다고 잠 못 자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보름 안으로 열나흘에 한다고. 잠든 사람은 엷하고 밀가루로 해서 붙여 놓는다고. 어른들이 자꾸 놀리는 거지.”



● 쥐불놀이 / 불싸움

“그전에는 쥐불놀이, 그럼 싸움을 하는 거야. 냇가를 마주 보고 불을 못 놓게 하고 우리는 건너가서 놓고, 누가 이기고 지느냐, 불이 많이 안 탄 놈이 이기는 거지. 쥐불놀이는 주로 정월의 쥐날. 쥐날 저녁에 해요. 첫 자일에 하지요. 쥐불놀이는 주로 원천리와 하기도 하고 2리와 하기도 했고.”

● 제웅

“각자 제웅도 하고. 지금으로 치면 짬으로 만들어서 동전 끼고 오곡밥 넣고 그랬잖아요. 그 제웅은 그때 삼거리나 사거리 같은데 갖다 놓는 거지요. 그럼 꼬맹이들이 발로 차고 다니다가 동전을 빼가요.”

● 입춘날 농사점치기

“달을 보고 그해 농사점도 치는데 달이 보양게 잘 올라와야 해. 입춘 때는 어른들이 보리 뿌리를 하나 뽑아다가 날을 보는 거 보다는, 보리 하나를 뽑아서 뿌리 내리는 걸 봐가지고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보고 풍년이니 흉년이니 따지더라고.”  
“뿌리가 하나 내리면 좋지 않다고 하고, 하나 이상 두 개 세 개 내리는 해가 좋다고 해요. 그럼 그 해에 풍년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뽑아 보는 시가 있어요. 노인네들이 그 시에 가서 뽑아 봐요. 그걸 노인네들이 보더라고. 책력보다 그게 좋다고 했어.”

“보름날은 달뜨는 시간이 있어요. 몇 시 몇 분 있어요. 저게 산이면 풍년 들 때 달은 아래로 뜨면 풍년이 들고, 위로 북쪽으로 뜨면, 그게 해마다 똑같이 뜨지 않는다고. 북쪽으로 뜨면 흉년이 든다고 했어요.”

● 나무장가보내기

“정월 열나흘날 과일나무에 열매 많이 열리라고 오곡밥을 해가지고 요만큼씩 뭉쳐서 과일나무가지에 낀단 말이야. 곡식 수만큼 열리라고, 좁쌀이 여간 잘우? 그만큼 과일이 많이 열리라고 하는 거지. 그것을 나무장가 보낸다고 하던가? 노인네들이 뭐라고 하던데.”

“돌도 끼워 놓지. 떨어지지 말라고 납작한 돌에. 아니여. 사람으로 말하면 입 떠들지 말고 봉하고 있으라는 거지. 많이 열려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 쯤생이 보기

“쯤생이는 하늘에 별 본다는 거지. 쯤생이가 앞서면 흉년이 든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것도 보는데 잘 모르겠어. 그걸 언제 보더라. 그게 날짜가 있어. 북두칠성도 보고, 쯤생이 보고 그런다고.”

● 나이떡

“2월 초하루에 나이떡을 해 먹었는데 나이 먹었다고 해 먹는 거지. 그거 나이대로 먹는다고 그랬어.”

● 삼진날

“그날 제비 들어오는 날이라고 했는데 그날 떡 해먹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미신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지.”

● 단오

“옛날에는 창포 뜯어서 머리 감았죠. 여자들이 주로 많이 감고, 남자들은 안 했지. 그때 남자들은 머리를 빳빳

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창포를 못 보겠더라고. 그거 냄새가 향긋하지.”

제보자: 임창익 노인회장(남, 75세), 김규용(남, 72세), 박춘옥(남, 73세)

## 11. 송정리(하일)

### ● 정월대보름 고사반

“정월 보름에 하는 것으로, 마을에 두레때는 아침에 전부 모이죠. 이집 저집 다니면서 고사반을 한다고, 쌀 한말씩 내 놓고, 잘사는 사람들은 돈도 좀 내 놓고. 우물 있는 집은 우물고사도 지내고, 떡국하고 밥 내 놓으면 그거 먹고 돌다가 세 시쯤 되면 망월을 보러 가죠.”

“하여튼 망월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봐요.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 자기 소원을 빌러 가는 사람도 있고, 한 해의 운수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나라 기원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할 까. 바람. 그런 거죠.”

“달집을 만들지는 않지만 올라가서 불을 놓죠. 짐 방망이를 가서 만들어서 절하고, 하는 사람은 노상 그걸 하더라고. 두레도 같이 올라가서 두레때는 기다린 그 시간 때우는 거예요. 달만 올라오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 ● 농사 점치기

“달뜨는 걸 보고도 한 해 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걸 점을 쳐서 알기도 하죠. 달이 좀 또렷한 붉은 달이 뜨면 가뭄이 심하다. 수증기에 어린 것처럼 부엌에 올라오면 물이 많다. 그거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교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올해는 달이 잘 떴다 그럼 죄 좋아서 춤추고 놀고 내려가지. 달을 보고 올해는 물이 좀 많겠다하면 시무룩해서 내려오는 거지.”

### ● 쯤생이별보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농사를 점치는 방법이 있어요. 쯤생이를 보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주로 2월에 본다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식구가 많았잖아요. 별과 별사이가 바짝 쫓아가면 흉년, 좀 멀리 떨어져서 가면 밥이 많다는 거죠. 즉 큰 별에 가까우면 흉년, 좀 멀게 가면 풍년. 그런 건 조금 맞는다고 해요.”

### ● 나무시집보내기

“열나흘날 오곡밥해먹고, 밥은 안 엮고, 과일나무 장기들인다고 하지. 나뭇가지에 돌맹이 끼워 놓으면서 나무장가 들인다고 하기도 해요.”

### ● 삼진날

“삼진날도 명절같이 지낸다. 명절같이 쉰다. 2월 초하루는 나이떡이라고 해서 잘디 잔 송편을 만들어서, 부잣집에서 하는 거지. 보리쌀 먹는 집들은 못하고.”

“송편을 나이 수만큼 먹는데 없는 사람들도 정월에는 떡을 먹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먹은 거지. 있는 사람이나 해 먹지.”

제보자: 강○○

### ● 송정1리 세시풍속

송정1리에서는 정월 초하루에 차례를 지낸 후 세배를 다녔다. 세배는 동네를 돌며 어른들을 모두 찾아다니면서 했다.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윗놀이를 하면서 놀았다.

정월 보름에는 '농사시루'라고 하는 시루떡을 찌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낼 때는 성주, 터주, 심지어 변소에도 떡을 놓으며 빌었다고 한다. 요즘에는 거의 고사를 지내지 않는다.

2월 초하루에는 '나이떡'이라고 하는 송편을 해 먹었다. 송편에는 팔고물을 넣으며 떡을 할 때 식구들 나이수 대로 쌀을 퍼 담아 떡을 찐다.

5월 단오에는 그네를 매서 그네 타기를 하며 이웃 마을과 씨름을 했다. 이 마을 그네는 박재형씨 댁 앞 소나무 가지에 주로 매었다고 한다.

7월에는 김매기를 끝내고 '호미걸이'를 하였다. 호미걸이를 할 때는 '두레(풍물)'를 치고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즐긴다.

10월에는 '가을 떡'이라고 하는 시루떡을 찌서 가을 고사를 지낸다. 이때는 새로 수확한 나락을 터주항아리에 갈아 넣는다. 현재 가을 떡은 몇 집에서 해 먹기는 하지만 터줏가리와 같은 것은 거의 없애버렸다고 한다. 동지에는 팔죽을 쑤어서 먹는다.

## 12. 슬항리(절골)

---

### ● 정월대보름 달맞이

“보통농약은 정월대보름부터 하는 거지. 한 달 동안을 다니면서 놀고, 정월대보름날 달맞이는 앵봉산에 가서 하지요. 짚방망이 가지고 올라가고 불 놓고 놀고, 앵봉산 올라가면 평평한 데가 있어요. 또 달뜨는 거 보고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지요. 여기는 책력을 보고 그 시간되어서 달을 보고 동쪽으로 뜨면 가물거라고 하죠. 또 남양에 글판이가 있는데 글판이에서 이 위쪽 즉 동쪽으로 뜨면 물이 귀하다는 거지. 비가 덜 온다는 거고, 서쪽으로 뜨면 물이 괜찮다. 즉 풍년이 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빨갛게 나오면 좋은 게 있다고 하지 그래서 달의 색깔과 달의 위치를 가지고도 농사 점을 쳐요.”

“그리고 달이 뜨면 제일 먼저 가서 보는 원인이 아들을 낳네, 딸을 낳네. 그런 건 다 있을 거예요.”

### ● 단오

“단오에는 동네 느티나무에서 그네 타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포로 머리도 감았는데 여기 우물 밑으로 창포가 많았어요. 그걸로 머리 감고 그랬어요. 냄새가 좋다고 해서 머리 많이 감았지. 남자들도 감았어요.”

## 13. 슬항2리

---

### ● 달맞이

“달맞이하러 정미산으로 갔어요. 정미산의 노적봉에. 왜 정미산 이냐면 쌀 미자 정미산이에요 마을에는 두레가 있었는데 달맞이 하기 전에 두들기고 가서 솔가지 놓고 불 놓고. 막걸리 가지고 가서 고사 드리고, 달집도 직접 만들었는데

정미산에 꼭대기 가서 솔가지를 꺾어서 쌓고 짚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불을 붙여야 하나까 쏘시개 하려고. 막걸리 붓고 달이 오를 때 팽과리 두드리면서 망월이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지. 우리는 짚방망이 안 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어. 요 근래 와서 애들이,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지만, 한 10년 전에 나무에 불을 못 놓게 하고 그러니까 깡통에 불 놓고 돌리고 그랬지. 그전에는 농악을 가지고 올라가서 마을 대표가 막걸리 놓고 풍년을 기원한다, 동네 평안하게 해 주십사 해달라고 하고 막걸리 붓고 솔가지로 달집을 많이 만들지. 짚을 한 묶음씩 가지고 올라가면 거기다 불을 놓으면 타지.”

● 두레

“두레는 정월 보름 낮에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고사반 하지 낮부터 시작해서 달맞이 할 때까지 하는데 대게 보름날 해요. 그 일정에 따라서 보름날 보게 되는 수도 있고, 14일이 될 수도 있고, 17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책력에 맞춰보면, 그러니까 달뜨는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지. 정확히 보름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책력에 보름이 나와 있어요. 달뜨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거 맞춰서 올라가는 거지. 책력을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 그 분한테 물어 봐야 되는 거고, 망월이 언제 들었느냐 물어보면 책력을 보시고 음력 열이레 날 가야 된다고 하면 그날 몇 시까지 맞춰서 가는 거지. 달집을 만들어놓고 술 붓고 불을 놓고 달이 뜨면 징 두드리면서 망월이야 소리를 지르고 두레들이 노는 거지.”

● 달점치기

“달이 뜨는 위치를 가지고도 풍·흉을 점치기도 하는데 예전 노인네들이 길마재로 넘어간다, 또 쳐져서 내려간다, 위로 좀 올라간다. 이걸 판단해서 예측을 했지. 달 뜰 때 빨갭게 뜨는 해가 있고, 좀 허옇게 뜨는 해가 있어요. 허옇게 뜨면 올해는 물이 많다. 길마재라고 해서 우측으로 쳐지면 괜찮다, 좌측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달 도망가는 걸로 봐서 좋지 않다고 얘길 했지. 또 북두칠성 넘어가는 걸 보고도 얘기를 했고, 북두칠성이 달하고 거리가 멀면 풍년이고, 가까우면 흉년이다, 왜냐하면 배고파서 북두칠성이 달을 바짝 쫓아간다, 그래서 올해 흉년이다. 라고 점을 치지요.”  
 “좀생이 본다는 것은 좀생이하고 달하고의 관계인데 북두칠성하고 좀생이 사이로 달이 뜨니까 어디로 더 가까운지.”

● 나무시집보내기

“정월 보름에 감나뭇가지에 오곡밥을 올려놓기도 하는데 그건 감 잘 열리라고 하는 건데, 가지 사이에 돌맹이를 놓으면 벌어지니까, 또 오곡밥을 놓으면 그게 썩어서 거름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나무 시집보내기라고 했지.”

● 단오

“단오에는 여자들끼리 창포 삶아서 머리를 많이 감았지. 그냥 당일에 베어서, 대게 저녁에 많이들 감았지. 감고 자야 윤기가 난다는 얘가지. 그리고 단오 전에 그네도 매어서 여자들만 그네를 뛰지요.”

● 칠석

“칠석에는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칠석제를 하는 분이 있죠. 제석 주머니. 칠석날 터줏가리 제석에 떡 해 놓고 빌고 그러잖아. 밀떡도 부치고, 밀장국하고 밀떡, 감자 좀 썰어 넣고.”

● 추석

“팔월 보름에도 두레는 놀았지요. 녹음놀이는 따로 하지 않고 팔월보름날 겸해서 놀지요. 외지에 나갔던 사람들도

들어오고 동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술 먹고 두드리면서 다니고 그랬지. 지금도 우리 동네는 팔월 보름에 해요.”

제보자:경○○(남, 75세)

## 14. 청원리

---

### ● 고사반

“마을에 대동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갈대 있는 자리. 지금도 물이 나와요. 우물고사나 고사반은 없었어요.”

“두레가 지금도 정월 보름에 해요. 보름 지나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각 마을마다 다 돌아다니지는 않고, 상업하는 양반들 장사 잘 되라고 하고 동네에 좀 저기하시는 집에 가서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 ● 나무시집보내기

“정월대보름에는 그냥 달이나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한테 오탁밥도 주죠. 정월열나흘. 복숭아나무 하고 감나무 등 과일나무에는 조밥을 가지 사이에 엮어 놓고 그랬죠. 과일 떨어지지 말라는 의미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돌고 엮어 놓았는데 그냥 조밥을 가지 사이에 엮어 놓기만 하더라고요.”

### ● 단오

“단오에는 이 뒷산 나무에 그네 달아 놓고 그네 탔죠. 창포로 머리도 감고 창포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숱이 많아지라고 하는거죠. 남자는 감지 않고 여자들만 머리를 감죠.”

### ● 칠석

“칠석에는 밀떡 부쳐 먹고 그랬죠. 또 제석 주머니 안에 있는 쌀로 밥을 해 먹는 날이기도 해요. 제석 주머니는 지금도 있어요. 그거는 보여 줄 수 없어요. 그전에 어른들이 제석할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모시던 거 그저 모시고 있는 거예요.”

“비린 것도 안 먹어요. 그날 비린 걸 먹으면 부정하다고 했어요. 미역국 끓여서 먹고, 반찬도 비린 건 안 먹어요. 그날 아침에 해서 먹는 거지.”

### ● 추석

“추석에는 두레들 놀지. 그거는 시방도 놀지. 그전에는 놀아도 집집이 다 돌고, 돈도 내고 쌀도 갖다 놓고 그랬어요.”

제보자: 이인구(남, 83세), 방극영(남, 54세)이장, 허예범(여, 78세)

## 15. 청원2리(수루지):

---

### ● 달맞이

“동네 두레는 있었지요. 정월 보름에 고사반도 하고 달맞이, 망월 불 놓고 쥐불놀이도 하고. 짚으로 달집도 만들지. 사람처럼 크게 만들고 불을 놓지.”

“달이 뜨는 모양을 보고 농사점을 치기도 했는데 달이 가려지는 모습을 보고 추측 하는 건데, 달이 많이 가려지면

비가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 비가 많으면 풍년이라는 거지. 또 달 빛깔을 보고 점치기도 하는데 빛깔도 빨가면 기물어서 흉년이 든다고 생각했지.”

● 삼진날

“삼진날 시루를 하는 가정도 있는데 1년 가정 편안하고 농사고 뭐고 잘 풀리라고 고사를 하지.”

● 단오

“단오날에는 창포로 머리 감고 그네뛰기도 하지요 여기 마파지라고 마을회관 뒤가 솔밭이었어. 아람드리 소나무가 뽀뽀했었어. 그래서 거기서 달맞이도 하고 그네도 뛰고 그랬어요. 거기가 좀 높잖아요.”

● 호미걸이

“각 동네에서 두레를 초청해서 가는데 두레만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도 다가지요. 마을에서는 초청된 사람들을 대접하고, 술 내고 밥 내고 다 하는 거예요. 돌러가면서, 올해 이 마을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마을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 녹음놀이

“녹음놀이는 따로 했는데 호미걸이랑은 다른 거죠. 지금도 그저 잼이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 상여

“마을에는 아직까지 상여막에 상여가 있다. 저 아래 외따로 있어요. 상여는 몇 번 교체를 했는데 1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이장이 관리해요. 잠귀 났죠.”

“상여막에는 두레 장비도 다 있고. 초상이 나면 금당리 허용재라고 그 사람을 불러다 써요. 예전에는 청원리 우리 동갑네가 했었는데 지금은 오산에서 살아요.”

“초상은 호상인 경우가 있고, 악상인 경우가 있는데, 마을 밖에서 돌아가시더라도 가족들이 원하는 데로 하는 거지. 젊은이는 절대 그렇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은 가족들이, 영구차로 와도 거기까지 모셔달라고 하면 동네에서 하지.”

“옛날에 악상에는 집 앞으로도 못 가고, 우물도 나무 걸쳐 놓고 멍석으로 덮었죠. 악상이라 하더라도 상여소리도 하고.”

제보자:송기보(남, 72세)노인회장

## 16. 청원3리(청룡)

---

● 정월대보름

청룡에서도 정월대보름이면 달구경을 하면서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마을에 두레는 없어서 달구경을 하러 산에 오를 때 두레가 함께 하지는 않았다. 달집을 만들어 달이 떠오르는 시각에 맞추어 달집을 태우는 풍속은 없었으나 마을 주민 남녀노소가 각각 짚으로 방망이를 만들었으며 달이 떠오를 때 저마다의 개인적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제보자:변선관(여, 84세), 박선분(여, 86세), 김주현(여, 80세)



## 17. 청원4리

### ● 정월대보름(농사 점치기)

정월 보름에는 함봉산에서 달맞이 달구경은 하였다. 달에 구름 끼지 않고 떠오르거나, 달의 모양이 동그랗게 뜨면 “올 해는 풍년이(들겠)구나.” 하였다고 한다.

“옛날 노인들은 빨갭게 넘어가면 가물겠다고 하였고, 말갭게 뜨면 올해 풍년들겠다. 그리고 (달빛이)흐리면 비가 많이 오겠다. 이렇게 달을 보면 점쳤지.”

이를 통하여 보면 달의 빛깔과 모양과 맑은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풍흉을 점치고 풍년을 기원하는 소망을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망월이라는 것을 거기서도 보고, 이 산에서도 보고, 지금 가면 거기서 또 십자(十字)가 있어요. 달맞이 가면, 망월 가면 짚방망이나 불을 가지고 꼭 두레와 같이 올라가서 놀죠. 그리고 나서 두레들이 마을 집집이 고사반을 해요. 왜냐 (하)면 기금이 없으니깐 마을 어르신들이 기금 조정해가지고 상부 그런 거 장만하고 그렇죠.”

청원의 두레패의 규모는 상당히 컸다고 한다. 그리고 이박사라는 별호를 가진 어른이 제실 때에는 화성군(시)에 서나 서울운동장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였다. 현재는 고모리 두레가 제일 잘 논다.

“달 보면 달이 잘 뜨나 그런 거 보고 노인들이 풍년이다, 아니다 그런 말 많이 하셨죠. 달이 구름 안 끼고 바짝 올라 올 때 동그랗게 뜰 때 올해 좋겠구나, 풍년들겠구나 그랬지.”

“달이, 옛날 노인들은 빨갭게 넘어가면 가물겠다. 말갭게 뜨면 올해 풍년들겠다, 그리고 흐리면 비가 많이 오겠다, 이렇게 노인네들이 그랬어요.”

### ● 나무시집보내기

“과일나무들 특히 열매 많이 열리라고 나뭇가지 사이에다 돌맹이 끼워놓고, 오곡밥 지어서 나뭇가지에 끼워 넣는 걸 봤어요. 밤 많이 열리고, 대추나무나무에 대추 많이 열리라고 올려놓았지.”

### ● 단오

“5월 단오날에는 저기(나무에)다가 그네 밧줄을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널뛰고 그네 뛰고 그런 거 했어요. 그네는 주로 마을 가운데 큰 밤나무가 있었는데 그곳에 굵은 나무를 베어다가 양쪽에다 심고 동아발을 들여 매어. 그네를 뛰었다.”

### ● 두레

“호미걸이하고 그럴 때 각 두레, 이 동네 두레가 잘 놀았으니까, 각 동네 다 초청해가지고 술대접하고... 여기는 각 동네 다 서다 왔어요. 고모리, 백곡리 등 12개 두레가 모였죠. 그것도 품앗이야. 한 해에는 어떤 동네에서 하고 또 한 해는 다른 동네에 가서 하고, 김(을) 매다가도 '뉘치기 간다'고 그냥 거기서 두레 소리만 되면 정 올리고, 또 그 집은 식전에 가서 김 매주는 거야. 노인네들이 그전에는 잘들 놀으셨어요.”

- 단오

청원4리의 단오풍속도 여느 마을과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한 행사는 머리를 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네를 탔다고 한다.

“옛날에는 여자들은 창포물에 머리감고 안팎으로 모두 대단하게 그네를 뛰었지요.”

- 거북놀이

화성시의 추석 풍속 가운데 거북놀이는 지역적 편중을 보이고 있다. 정남면이나 팔탄면에서는 거북놀이를 하는 지역이 다수 조사되었으나 마도면에서는 제보를 듣기 어렵다. 청원4리에서는 거북놀이가 조사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수수잎으로 거북이 만들어 놀았다. 팔월보름에는 요즘도 정월달 되면 집집이 놀고 그래요. 젊은애들이. 옛날에는 다 만들어서 무동 세우고. 두레가 크게 놀았다는 거죠..”

제보자:총무(남, 75세)전 면장

- 청원4리 청산동 세시풍속

청원리에서는 정월에 윗놀이를 하였으며 ‘두레 두들기’면서 집집이 쌀을 걷으러 다녔다. 이때 걷은 것은 동네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김을 다 맨 후에는 호미걸이를 하여 이웃 동네 농악까지 초청해서 ‘두레풀이’를 하였다. 김을 맬 때나 그밖에 이웃 동네 두레를 만났을 때 서로 경쟁적으로 악기를 두드리면서 흥을 돋우는데 이를 ‘하꼬친다’[合鼓] 하였다. 호미걸이 할 때는 막걸리, 부침개 등을 먹었는데 부침개로는 알부침, 밀가루부침, 녹두부침 등이 있었다. 8월 보름에도 두레를 놀아서 집집이 술을 얻어먹으러 다녔다.

## 18. 해문리(해문)

---

- 두레

“정제를 별도로 지내지는 않고, 정월에 각 집마다 다니면서 두레가 고사반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냥 지나 갈 수가 없어서 고사 지내고 그랬죠. 한 15년 전만 오셨어도 그런 걸 보실 수 있었는데. 집안에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최갑영 씨라고 지금 생존해 계시면 연세가 110세정도 되지요 농사를 지으면 논매고 그럴 때는 그 양반이 북치면서 소리하고 그랬죠. 아주 뽕혀 다니면서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을 만나셨으면(좋았을 텐데).”

- 달맞이

“이 동네에서는 달맞이를 하기 위해 정미산을 가던지, 호롱굴 사람들은 줄 바위, 금배로 가고, 또 쑥가지 사람들은 화산으로 가고,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또 꼬치장태라고 있어요. 꽃장다리가 많아서 꼬치장태라고 했어요.”

“달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게 다른 건 없고, 달뜨는 걸 보고 금년에는 풍년이 들겠구나, 흉년이구나 아는 거지요. 달이 맑게 뜨면 금년에 풍년이고, 유난히 새뜻하고 빨갈게 뜨면 비가 들와서 흉년이 들겠구나 하지.”



## ● 호미걸이

“7월쯤 호미걸이를 했어요. 그때는 서신, 송산, 마도, 남양 이렇게 4개 면을 풀어가시고 우리 산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 뒷산, 홍침지라고 부르는 뒷산에서 했지요. 이 산은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기는 산 이름을 홍침지라고 불러요. 뒷산에는 홍침지가 묻혀 있는데 원래는 침지벼슬 이상을 한 양반이었다.”

호미걸이는 바쁜 농사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였다는 의미이다. 논을 매고 밭을 매는 일이 음력으로 7월 쯤 되면 마무리 된다. 이때에 호미를 씻어서 걸어둔다는 의미에서 호미걸이라고 이름하였다.

## ● 두레놀이

“그 당시 두레는 굉장히 컸죠. 아까 그 우리 동네 집안 상쇠 양반이 대표로 했죠. 깃발을 들고 오다가 여기 들어 올 때는 숙여서 인사를 하고, 또 동네에서는 마중을 나가요. 남양에서 오면 저기 돌다리까지 마중을 나가요. 또 송산에서 오면 지리고개에서 마중하고 그리고 서신도 지리고개로 같이 넘어왔을 것 같아요. 그때 놀 때도 그냥 노는 게 아니고 등수를 매기고 그랬어요. 그때 아마 호미걸이 했다면 70세 된 사람들은 거의 다 알 정도지요. 여기 홍침지 그 산소벌이 넓었거든, 또 여기 산이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했죠.”

두레놀이는 호미걸이나 녹음놀이를 즈음하여 행하여졌다. 이제 마을마다 바쁜 농사일을 마무리 하고 그간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써의 놀이였던 것이다. 이때 인근의 두레패들이 한곳에 모여 함께 흥겨운 놀이판을 펼쳤으며 또한, 풍물을 치면서 서로의 기량을 뽐내기도 하였던 것이다.

## ● 정월대보름 / 두더지 놀이

“소고지에서는 정월 보름이면 송편을 해요. 정월 열사를 날은 시루를 해서 집안고사를 하고, 그리고 열나흘날 보름에 먹는다고 송편을 해요. 그 떡으로 두더지 같이 만들어, 찌가지고 매끼(새끼줄)로 파가지고 밭으로 끌고 다녀. 왜냐하면 두더지가 밭을 일구지 말라고. 소한테 오곡밥하고 나물 갖다 놓고 그랬어요.”

## ● 나무시집보내기

좁쌀 밥을 올려놓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되는 사례는 혼치가 많다. 그런데 해문리에서는 좁쌀 밥을 올리는 이유가 좁쌀 수대로 열매가 많이 열리라는 의미라고 조사되었다.

“과일나무에다 좁쌀 밥을 붙여 놔어. 가지 친데다가 올려놔요. 그 좁쌀 수대로 과일이 열린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감나무까지 친 데다는 돌을 올려놓지요. 왜냐면 벌어지라고.”

“좁쌀 밥을 왜 하나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우리 뒤란에 복숭아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하셔, 올려놓으면 복숭아가 많이 열린다시더라고. 그리고 감나무에는 가지 친 데다 돌을 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사이가 좁다고.

조사자: 돌은 벌어지라고 그렇게 하는군요?

제보자: 네.”

- 칠석

제석주머니를 삼신주머니라고도 하였음이 조사되었다. 제석신앙은 곧 삼신신앙인 것임을 확인하여 주는 자료이다.

“칠석에는 밀떡이나 부쳐 먹었지. 삼신 주머니 털어서 밥해먹고. 우리 할머니가 제석 주머니라고 매달아 놓고 굉장히 그걸 위했어요.”

제보자(남, 73세)노인회장, 허순범(여, 76세)부부

## 19. 해문리(아랫말, 회룡곡)

---

-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 달맞이, 달을 보고 농사를 점치잖아요? 달이 빨갈게 뜨면 안 되고, 환하게 떠야 한다고 하셨지. 빨가면 가문 거고, 환하면 비가 올 거다. 그걸로 풍년을 점쳤다고 해요.”

- 두레

결국 문화의 전파는 농경지의 공유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서 문화적 동질성도 생기며 이를 통한 화합과 갈등도 빚어지는 것이다.

“옛날 노인네들 얘기 들어 보면 옛날에는 풍악 가지고 농사짓잖아. 두레패가 있었지. 여기서 저 넘어가면 청대 방죽 이라고 또 있어. 그게 송산부터 마도까지 청대 방죽인데, 거기는 마도, 송산 2개 면이 농사를 짓는 들이지. 무척 넓지. 그러면 옛날 노인네들은 이쪽에서 정구 올리고, 패싸움하고, 삼존리, 봉가리 두레들이랑 그랬다고 하더라고.”

- 칠석

“칠석날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칠석 맞이 고사를 지냈지. 집에서 밀떡도 하곤 했지.”

제보자: 홍순용(남, 63세)노인회 총무

# 5. 옛노래

## 01. 청원3리

---

### • 자장가

자장 자장 애기 잘도 잔다.

앞집 개도 잘도 잔다.

뒷집 개도 잘도 잔다.

우리 강아지도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애기 잘도 잔다.

앞집 개도 잘도 잔다.

뒷집 개도 잘도 잔다.

우리 강아지도 잘도 잔다.

### • 논맴소리

논맴 소리는

상사댕이여, 어렷렷 상사댕이요.

상사댕이여, 어렷렷 상사댕이요.

제보자: 변선관(여, 84세), 박선분(여, 86세), 김주현(여, 80세)

## 02. 금당2리(금당곡)

---

### • 자장가

엎어주고 자장자장 하고,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엄마가 일하러 가면은 할머니가 봐야 하잖아.

할머니가 자장자장 하고, 엄마 온다 울지마. 울지마라 하고.

엄마 온다 울지마. 울지마라 하고.

제보자: 오○○(남, 80세)

### 03. 백곡리

---

- **몬돌(논 매는 소리)**

홍철유(1910. 남. 토민) 唱 / 이소라채보(8-6-28②A)

(매) : 에이여라 몬돌

(받) : 에이여라 몬돌

(매) : 이 논배미에 얼른 매고

(받) : 에이여라 몬돌

(매) : 넘어배미로 넘어를 가자

(받) : 에이여라 몬돌

(매) : 뽕뽕 둘러라 따리 몬돌

- **곤장네(논흙치는 소리)**

홍철유(1910. 남. 토민) 唱 / 이소라채보(88-6-28②B)

(매) : 어하실실 곤장네야

(받) : 어하실실 곤장네야

(매) : 논 배미를 얼른 흙치고

저 논 배미루 넘어를 가자

(받) : 어하실실 곤장네야

### 04. 청원1리

---

마도면 청원1리 조사일시 : 2001년 9월1일(토요일) 오후

조사지역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1리

조사장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1리 마을회관

조사인력 : 김영운·이준호·김혜정·이윤정

제보자

윤혁(남, 66세) 본적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1리 215-2 | 생업 : 농업  
김금태(남, 73세) 본적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546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577 | 생업 : 농업  
윤훈(남, 79세) 본적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1리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1리 453 | 생업 : 농업  
홍종건(남, 78세) 본적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4리 9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4리 9 | 생업 : 농업



● 논매는 소리 - 문도

메 : 아아 어 이이이이여어라 문도  
받 : 아아 아에 이이이여 문도

메기는 소리 : 윤훈 받는 소리 : 김금태 외

● 논매는 소리 - 곤장네야

메 : 에 실실 곤장네야  
받 : 에 실실 곤장네야  
메 : 해는 지고 저무신 날에  
받 : 에 실실 곤장네야  
메 : 옥창앵도가 다 붉었으니  
받 : 에 실실 곤장네야  
메 : 쉬어 쉬어는 무자네라  
받 : 에 실실 곤장네야  
메 : 원정 부지가 네 아니드나  
받 : 에 실실 곤장네야

메기는 소리 : 김금태 받는 소리 : 윤훈 외

● 논매는 소리 - 얼카덩이야

메 : 얼카덩이야  
받 : 얼카덩이야  
메 : 얼카덩이야  
받 : 얼카덩이야  
메 : 이 논배미를  
받 : 얼카덩이  
메 : 다 메고 나면  
받 : 얼카덩이  
메 : 막걸리 석 잔이  
받 : 얼카덩이야  
메 : 막 넘어간다  
받 : 얼카덩이  
메 : 얼카덩이야  
받 : 얼카덩이야  
메 : 잘 넘어 간다

메기는 소리 : 윤혁 받는 소리 : 김금태 외

받 : 열카덩이야  
메 : 어허 텡이야  
받 : 열카덩이야  
메 : 열카두 텡어리  
받 : 열카덩이야  
메 : 또 넘어 가누나  
받 : 열카덩이야  
메 : 열카덩이야  
받 : 열카덩이야  
메 : 이 논배미를  
받 : 열카덩이야  
메 : 얼른 다 매고  
받 : 열카덩이야  
메 : 전 논배미로  
받 : 열카덩이야  
메 : 또 넘어간다  
받 : 열카덩이야  
메 : 열카덩이야  
받 : 열카덩이야  
메 : 열카두 텡어리  
받 : 열카덩이야  
메 : 잘 넘어간다  
받 : 열카덩이야  
메 : 어화 텡이야  
받 : 열카덩이야  
메 : 노자 노자  
받 : 열카덩이야  
메 : 젊어서 놀자  
받 : 열카덩이야  
메 : 늙구나 병들면  
받 : 열카덩이야  
메 : 못 노나니  
받 : 열카덩이야

메 : 화문 하구도  
받 : 열카덩이야  
메 : 십일홍인데  
받 : 열카덩이야  
메 : 저 달도 차면은  
받 : 열카덩이야  
메 : 기우너니  
받 : 열카덩이야  
메 : 어화 덩이야  
받 : 열카덩이야  
메 : 열카덩이야  
받 : 열카덩이야  
메 : 어화 덩이야  
받 : 열카덩이야  
메 : 또 넘어 가누나  
받 : 열카덩이야  
메 : 철썩 철썩  
받 : 열카덩이야  
메 : 잘두 넘네  
받 : 열카덩이야  
메 : 어화 덩이야  
받 : 열카덩이야  
메 : 열카두 덩이야  
받 : 열카덩이야  
메 : 이 논배미를  
받 : 열카덩이야  
메 : 얼른 다매구서  
받 : 열카덩이야  
메 : 막걸리 한 잔을  
받 : 열카덩이야  
메 : 먹읍시다  
받 : 열카덩이야  
메 : 열카덩이야  
받 : 열카덩이야

● 논매는 소리(얼카덩어리)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윤혁(1936. 남. 토민) 唱 / 素90-6-19A

(메) : 얼카덩어리  
(반) : 얼카덩어리  
(메) : 이 배미를  
(반) : 얼카덩어리  
(메) : 다 매구나면  
(반) : 얼카덩어리  
(메) : 약주술 석 잔에  
(반) : 얼카덩어리  
(메) : 쇠갈비집이 나온다네

● 논매는 소리(상사)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윤혁(1936. 남. 토민) 唱 / 素90-6-19A

(반) : 에 엘 널 사양 사 디 야  
(메) : 일락 서산에 해는 지고  
(반) : 에이엘널 사양사 디야  
(메) : 월출 동녘에 저 달이히 솟네

● 논매는 소리 - 방아타령

메기는 소리 : 윤혁 받는 소리 : 김금태 외

메 : 에히여라 방아오  
받 : 에히여라 방아오  
메 : 에히여라 방아오  
받 : 에히여라 방아오  
메 : 에헤여라 방아오  
받 : 에히여라 방아오

● 논매는 소리 - 문돌

메기는 소리 : 윤혁 받는 소리 : 김금태 외

메 : 에헤여라 문돌  
받 : 에히여라 문돌  
메 : 에여라 문돌  
받 : 에히여라 문돌  
메 : 에헤여라 문돌  
받 : 에히여라 문돌  
메 : 에헤여라 문돌



받 : 에히여라 문돌  
 메 : 에헤여라 문돌  
 받 : 에헤여라 문돌  
 메 : 에헤여라 문돌  
 받 : 에헤여라 문돌  
 메 : 에헤여라 문돌

● 논매는 소리 - 자진소리

메 : 에여라 문돌  
 받 : 에여라 문돌  
 메 : 에여라 문돌  
 받 : 에여라 문돌  
 메 : 에여라 문돌  
 받 : 에여라 문돌  
 메 : 에여라 문돌

메기는 소리 : 윤혁    받는 소리 : 김금태 외

● 상여소리 - 관아소리

메 : 나무아미타아불  
 받 : 에헤에 나무아미타아불  
 메 : 나무아미타아불  
 받 : 아미타불타아불  
 메 : 나무아미타아불  
 받 : 에 아미타불타불

메기는 소리 : 윤혁    받는 소리 : 김금태 외

● 상여소리 - 개고리타령

메 : 어너 어허야 어너 어허야 에에히 에에행 어허아아  
 받 : 에헤 헤헤요 에헤 헤헤요 에에 어해오야  
 메 : 노자 노잔다 젊디 젊어 노잔다 늙어서 병들면 나는 못노리로다  
 받 : 헤헤헤오 헤헤 헤헤오호 에에헤헤 호오야  
 메 : 간다 못간다 얼마 울었던지 우리 마당에 한강수가 되었네  
 받 : 헤헤헤오 헤헤 헤헤오호 에에헤헤 호오야  
 메 : 슬슬 동풍에 굶은비가 오구요 시원한 연풍에 입을 맞쳐 노잔다  
 받 : 헤헤헤오 헤헤 헤헤오호 에에헤헤 호오야

메기는 소리 : 김금태    받는 소리 : 윤혁 외

• 물푸는 소리 (윤혁)

하나 허니 둘이로다  
서이 하니 너이로다  
다섯 허니 여섯이요  
일곱 허니 여덟이라  
아홉 하니 열 번이요  
열에 하나 열에 두울  
열에 서이 열에 너이  
열에 다섯 열에 여섯  
열에 일곱 열에 여덟  
열에 아홉 스물이라

05. 해문리

---

• 논매는 소리(곤장네)

최덕영(1915. 남. 토민) 창 (素87-5-13①A)

(메): 어하실실 곤장네야  
(반): 어하실실 곤장네하  
(메): 곤장네허는 우리 농군  
(반): 어하실실 곤장네하  
(메): 어서 가세 빨리허고  
(반): 어허 실실 곤장네야

• 논매는 소리(상사)

최덕영(1915. 남. 토민) 창 (素87-5-13①A)

(메): 에렐넬넬 상사데야  
(반): 에렐넬넬 상사디아  
(메): 상사부사는 동부사요  
(반): 에렐넬넬 상사디아



• 논매는 소리(얼카덩이)

최덕영(1915. 남. 토민) 唱 (素87-5-1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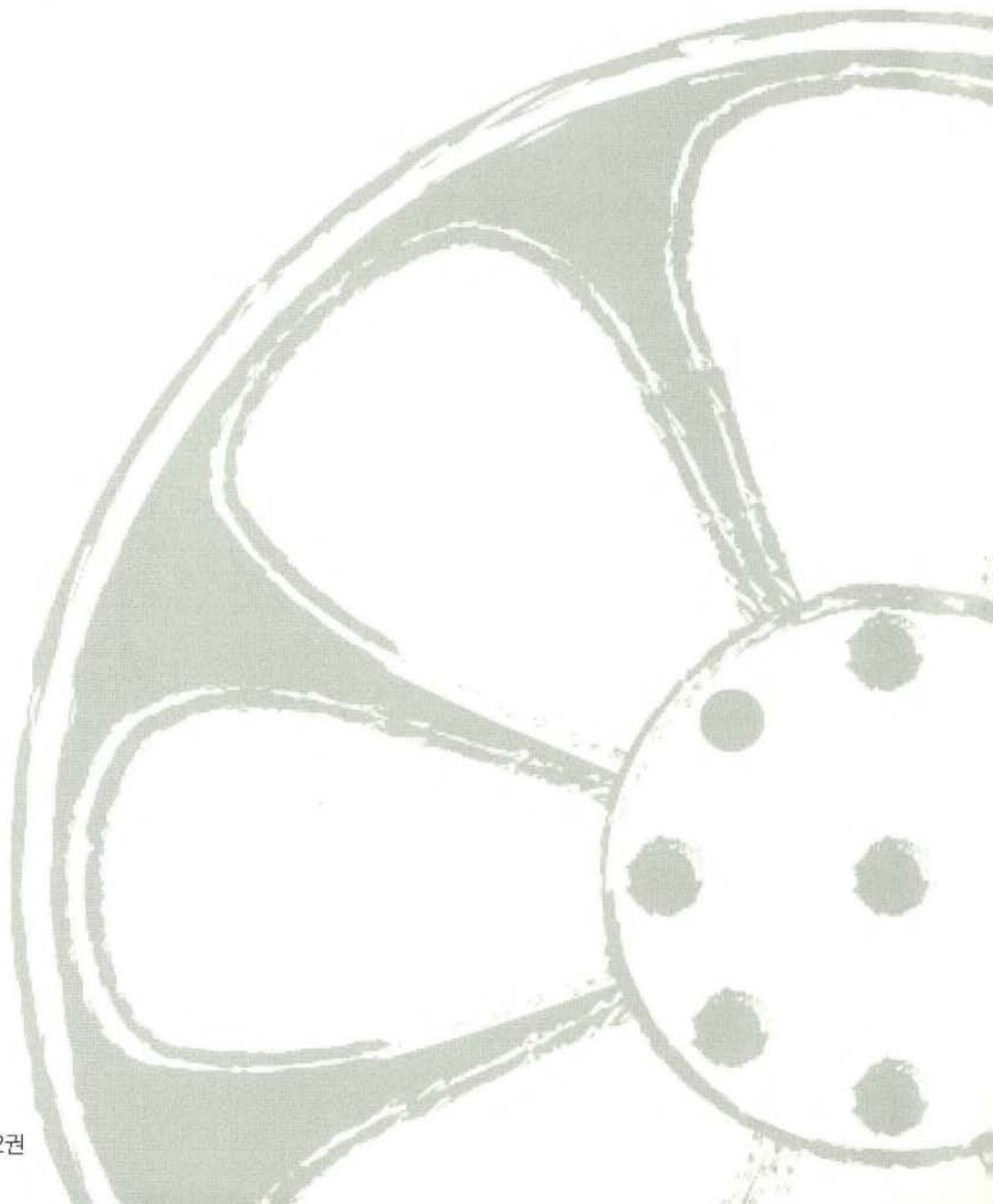
얼카덩이야

어하덩이야

경기도 논맴소리 자료총서 제Ⅳ권,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6

## Ⅱ. 마도면의 민속

1. 마을조직
2. 마을신앙
3. 민간신앙
4. 민간요법



## Ⅱ. 마도면의 민속

### 1. 마을조직

#### • 송정리 마을조직

송정리에는 상여계가 있었다. 상여계는 상이 나면 상가에 쌀 한 말씩 가지고 가는 계였다. 상여계는 처음에 송정 1리와 송정 2리가 같이 하였다. 이때는 상여도 하나를 같이 썼다. 이렇게 10년간 상여계를 같이 하다가, 이후에 송정 1리와 2리가 분리해서 상여계를 꾸리게 되었다. 상여계를 따로 하게 되면서 상여도 각기 마련하였다. 이전에는 상여가 비쌌기 때문에 상여 하나를 같이 써야 했지만, 상여를 장만할 수 있게 되면서 분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송정리에는 공동으로 쓰는 상여 하나가 있었지만, 농약은 반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모두 세 구가 있었다. 그러나 상여를 함께 쓸 때도 송정 1리에서 상이 나면 아래 하일에서 상여를 메주는 일은 없었다.

상여 도가는 아래 하일 쪽에 있었다. 이후 송정리에서는 법안이 처음으로 '의무사촌계'를 조직하였고 이후에 큰밭에도 의무사촌계를 만들었으나 오래 존속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현재 법안의 의무사촌계 회장은 최원순이다. 아래 하일에서는 상여계가 해체된 것이 3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송정리에서 상여를 메지 않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으로, 메는 사람은 메지만 메지 않는 사람은 메지 않았다고 한다. 이전에는 머슴을 둔 집은 머슴이 주인을 대신해서 상여를 매주었다. 상여는 8명 혹은 12명이 같이 땀다. 아래 하일에서는 상여를 같이 메는 것을 '어깨품앗이'라고 하였다. 아래 하일에서 상여를 안 메는 사람들은 없었는데, 상여를 메지 않으면 달구지로 신고 가야 했기 때문이다. 3년 전부터는 꽃상여를 쓰고 있고, 상여 도가는 따로 없다.

#### • 청원리 마을조직

청원리에서는 해방 전까지 씨종이나 상민들 같은 아랫사람들이 상여를 메서 상이 나면 씨종이 마도면 각 마을에서 상여 벨 사람들은 모았다고 한다. 해방 이후에는 '사촌계'라는 것을 조직해서 동네 사람들끼리같이 메다가 몇 년 전부터는 '상복계'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촌계란 이웃사촌끼리 상여를 멘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상복계는 회장, 총무로 조직되어 있으며 매년 12월 30일에 계 모임을 해서 돼지를 잡은 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상여수선비, 적십자비, 계 모임 날 식사비,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상복 계는 1리와 4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84년도에 4리가 분리되기 이전까지는 한 마을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네 소유의 상여도 있으며 12명이 메고 있다.

## ● 두곡·석교·슬항·청원리 방죽 머리 수리계

수문 관리는 수리계에서 한다. 석교리, 두곡리, 청원리, 슬항리 네 마을이 800마지기 논을 같이 관리한다. 수리계는 방죽마다 하나씩 조직되어 있다.

수리계 조직으로는 수리계장과 총무가 있고 각 동네마다 이사와 보주 2명을 둔다. 슬항리 이덕모씨(50)가 수리계 문서를 보관·관리하고 있다. 보주는 방죽논 작인들 중에서 2명을 선정하여 관리를 맡긴다.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작인들은 보조세를 낸다.

독에 이상이 있으면 동네 지주나 노인들이 의논하여 방죽막이를 결정한다. 그러면 공문을 띄우고 보주가 다니면서 언제 어느 곳의 독을 막는다고 알리고 다닌다. 갑자기 독이 터지면 일일이 알리지 않아도 수리계 계원들이 모두 바수구리에 흙을 담아 지계에 지고 나와 독을 막았다. 20년 전까지 계속되었던 수리계 관행의 하나다.

그러나 독이 터지기 전에 정기적으로 일년에 한 번 독을 만든다. 봄에 모심기 전에, 또는 음력 7월 백중 때 두레가 동원된다. 백중 때 만수가 가장 크게 물려오기 때문이다. 방죽막이 후에 특별한 행사는 없다. 작인의 의무라고 인식되어 지주, 또는 마름<sup>1)</sup>이 논을 떼 갈까봐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작인은 지주가 누구인지 모른다. 마름이 알아서 한다.”는 말도 있다.

## ● 고모2리 아랫고모 마을조직

마을 대동회는 겨울에 낱을 정해서 이장집에서 한다. 고모2리는 마을회관이 따로 없으며 1리에는 콘테이너 박스를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동회 때는 이세를 걷고 한 해 마을 결산을 본다. 옛날에는 집집이 이세로 곁벼 한 말과 하곡세로 곁보리 한 말을 냈으며 이렇게 걷은 것은 이장에게 주었다. 현재는 쌀 한 말 오 흡 서 되씩을 걷어서 한 말은 이장에게 오 흡 서 되는 반장에게 준다. 반장은 모두 세 명이다. 보리를 재배하지 않으면서부터 하곡세는 돈으로 내고 있다. 보리쌀 한 말 오 흡 서 되에 해당하는 돈을 대동회 때 가지고 가서 한 말에 해당하는 돈은 이장에게, 오 흡 서 되에 해당하는 돈은 반장에게 준다. 대동회 때는 마을 기금으로 음식 장만을 해서 마을 사람들끼리 같이 즐긴다. 마을 기금은 집집이 쌀 몇 말씩을 내서 장만하였는데 현재는 마을 논을 장만 해서 남은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한다.

고모1리와 2리에는 각각 마을 상여가 하나씩 있다. 예전에 마도면에 상여가 있는 마을은 고모2리와 청원리뿐이어서 다른 동네에서 이 곳 상여를 빌려다 썼다고 한다. 다른 동네에서 상여를 빌려갈 때는 상여세를 냈으며 상여만 빌려가지 상여메는 사람이 따라가는 일은 없었다. 현재 상여를 개비한 것은 5~6년 전이며 콘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고 있다. 장례 전날 빈 상여를 메고 다니면서 집안네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건걸이’라 하는데 약50년 전까지 행해졌다고 한다. 새 상여를 장만하면 동네에서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을 태우고 동네를 돌아다니

1)) 마름은 소작인의 선정과 소작료의 징수, 상납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지주와 소작농민 사이에서 많은 중간수탈을 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주에게 작황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소작료를 징수할 때 두량(斗量)을 다르게 하거나 소작료의 시세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지주와 소작인을 속이고 이익을 취했다. 또한, 소작인을 이유 없이 농지에서 내쫓고 그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했으며, 고리대를 통해 농민을 수탈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구실로 강제노역까지 부과했다. 이러한 마름의 중간수탈을 제거하기 위해 지주들은 마름의 역할을 단순한 지대의 징수에만 한정하고 소작인을 직접 관리하고자 시도했으며, 소작농민은 집단행동으로서 지주와 마름에 저항했다. 마름은 해방 이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소멸되었다. - 브리태니커 -



는데 이때 넉넉한 집에서는 음식 등을 내놓았다.

이 마을 상여는 12명이 메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끼리 멘다. 상계나 상조회 등 상례관련 조직은 예전부터 이 마을에 없었다고 한다. 상여 나갈 때 소리하는 사람을 수변이라 하는데 동네 사람인 김금태(79)씨가 하고 있다. 상여 나갈 때 걷은 돈은 상주가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주에게 돌려주고 상주가 넉넉하면 동네 기금으로 하고 있다. 한 번 초상날 때 100만원이 나올 때도 있고 그에 못 미칠 때도 있다고 한다.

● **쌍송2리 마을조직**

쌍송2리의 대동회는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모두 두 번을 했다. 여름에 하는 것은 하절, 겨울에 하는 것은 추절이라 했다. 대동회 때는 이장과 반장의 수고비로 집집이 이세를 걷어서 하절에는 보리쌀을, 추절에는 쌀을 소두로 한 말 석 되씩을 냈다. 이중 한 말은 이장 몫이었으며 석 되는 반장 몫이었다. 몇 년 전부터는 가을에 한 번 대동회를 하고 있으며 이때 하절에 내던 이세도 한꺼번에 낸다. 요즘은 이세도 돈으로 내고 있다. 대동회의는 이장집에서 하며, 이 날 먹는 음식도 이장집에서 준비한다. 마을결산도 대동회의 때 하는데 마을기금은 대부분 상여 나갈 때 걷은 돈으로 장만한 것이라 한다.

수루지 마을에는 옛날에는 마을에서 쓰던 상여가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같이 상여를 댔다. 최호익씨는 상여를 '하체'라 부른다고도 했다. 상여나갈 때 소리하는 사람은 마을에 있었으나 현재는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청원1리에서 윤혁기씨를 불러오고 있다. 수루지 마을에는 특별히 상과 관련된 모임이 없다고 한다. '상축이 나서' 상여가 나갈 때 걷은 돈은 일부는 상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마을기금으로 하며 새마을지도자가 관리한다. 이 돈으로 이 날 소리하는 사람과 포크레인 기사일당을 지불한다.<sup>2)</sup>

2) 화성의 민속, p.480, 481, 482, 483

## 2. 마을신앙

### 01. 고모리

---

#### ● 우물제사

고모리에는 공동우물이 여러 군데 있었다. ‘너멍굴’, ‘광짜’, ‘양지편’, ‘번말’, ‘부처물’, ‘산미테’ 등에 마을마다 공동우물이 하나씩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을공동체에서와 같이 대동우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지 공동우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양지편의 우물은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예전과 같이 마을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물 앞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만 그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물은 백곡리에서 돌을 수레에 실어다가 우물의 벽을 쌓아올렸다. 돌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산에서 들에서 하나씩 주워다가 우물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윗대 어른들이 만들어주신 공동우물에 대해 제보자 들의 감탄과 존경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고모리의 여러 마을에 공동우물이 있었으나 양지편의 우물이 제일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인근 마을들의 공동우물은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주민들은 밤에도 물을 길어야 했다. 그렇다고 양지편의 우물이 물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수량은 많지 않아도 한 번도 마른 적은 없었다. 그렇기에 물이 부족하였던 인근 마을에서 밤에도 물을 길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단 한 집만이 양지편 우물의 물을 사용하고 있어 먹고 남고 쓰고 남는다고 한다.

옛날에는 일 년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우물청소를 하였다. 우물청소는 주민들이 직접 우물에 들어가서 물을 퍼내었다. 물통을 가지고 나와서 주민들이 교대로 우물의 물을 퍼내었다. 그러나 우물의 물을 퍼면서 풍물을 울리고 우물제사를 격식에 맞춰 특정한 의례를 행하지는 않았다. 제물을 차리거나 축문을 읽거나 하지는 않았어도 우물을 푸기 전에 우물의 용왕에게 술을 올리고 이렇게 우물을 푸게 되는 것을 고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나마도 지금은 단절되었으며 물을 푸는 것도 이제는 기계로 퍼낸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우물을 조상들께서 멀리 백곡리에서부터 돌을 실어다가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우물에 대해 아련한 추억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만큼은 대단하였다.

제보자: 지산근(남, 76세)노인회장, 김난선(여, 76세)

## 02. 금당리(금당곡)

### ● 우물제사

50년대 후반까지 마을에는 우물제사가 있었어요. 원칙적으로 매년 하였으나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부정이 들어오거나 하면 해를 걸러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낼 때는 돼지를 우물 옆에서 잡지요. 그렇게 잡은 고기와 삼색 과일하고 북어포도 올라가고 떡은 하지 않았어요.

우물 그 한가운데다가 삼발이, 물 푸는 용두레에 마냥 우물 한가운데에 세워서 거기다가 돼지 콩팥을 거기다 매달아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익혀서 그냥 서너 근정도 적을 올려 쓰고 제사를 지냈죠.

콩팥을 매다는 것은 물이 좀 더 깨끗하게 걸러지라고 한 게 아닌가 해요. 사람도 콩팥에서 활동하거든요. 식수가 땅속에서 나와도 그 뜻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제사 시기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낱자를 선택해서. 보통 시월 시제 전후로, 시월 말. 시월이 좋은 달이니까, 조상님들 시제를 지내고 그러니까 우물제사도 그때 부락에서 지냈어요. 마을 안쪽 밑으로 있었어요. 돼지도 잡고. 농약도 하고. 축문도 있었고요, 축문은 지금 전하는 것은 없어요, 제사 다 지낸 다음에 두레 상쇠가 그냥 물이 팡팡 솟으라는 내용의 덕담을 하는 걸 봤어요.

제보자: 성충용(남, 72세)

## 03. 금당2리(금당곡)

### ● 산제사

금당곡에서는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산제사를 드렸다. 농작물의 수확을 끝낸 10월 상달 보름에 백곡리 뒷산 보축고개에서 산제사를 지냈다. 그곳에 참가하는 동네는 금당2리 사람들로 대곡. 금당곡의 마을 사람들이 산제사를 지냈다. 제수로는 돼지를 잡는다. 예전에는 소를 잡아 제수로 쓰고 동네 사람들이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 당집이 있지는 않고 계곡의 큰 바위에 치성을 드렸다. 산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흰무리떡을 하고 쌀로 술을 빚어 올린다. 마을의 대표가 축문을 외우기도 하였다. 산제사 외에는 송편을 하기도 하고 부침개를 부쳐서 올리기도 하였다.

제보자: 오○○(남, 80세)

### ● 금당골 대촌 정지사[井祭祀]

음력 7월이면 좋은 날을 잡아서 우물고사를 지내는데, 이를 '정지사 잡숫는다'고 한다. 우물은 마을 앞에 펼쳐진 논 가운데에 있어 '앞 우물'이라고 부르며, 깊이가 두어 길 정도라고 한다. 원래는 큰 웅덩이 주변에 돌을 쌓아 올린 형태여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퍼 올렸는데, 새마을운동 이후에 주변을 양회로 바르고 높이 쌓아 올려 사각형 형태로 만들었다.

고사를 지낼 때 제주를 맡는 것을 '주당 잡는다'고 표현하며, 제보자 이경순씨의 시아버지가 주로 주당을 잡았다 고 한다. 그러다 집안이나 본인에게 부정이 있는 해에는 다른 사람이 맡아서 했다고 한다. 고사 일이 정해지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사흘 동안 부정을 가리며 금기를 지킨다. 또, 이 동안에는 고사 지낼 우물을 떠가서도 안 된다. 고사 당일에는 주당 잡는 사람 혼자 가서 고사를 지내며, 고사가 끝나고 주당 잡은 집에서 우물물을 떠가고 난 후야 마을 사람들은 우물물을 떠갈 수 있다.

고사에 올리기 위해서는 2~3일 전에 미리 조라술을 만들어 두는데, 조라술은 엿기름과 누룩, 밥을 섞어 만들며, 한 단지기 정도의 양을 준비한다. 또 2~3일 전부터 우물 주위에 흰 새끼를 쳐 놓고, 옷나무를 세 개 베다가 꽃고, 머리부분이 우물 중앙에서 만나게 묶어 놓는다. 정제 지내는 날 아침, 제물로 돼지를 잡아 목정 부분을 달아 매 놓는다. 낮 12시에 주당이 조라술, 배, 사과, 북어포를 놓고 절을 하고 마을 잘 되게 해달라고 빈다. 우물 앞에서의 축원이 끝나면 '왕 소나무' 앞으로 가서 다시 축원을 한다. 이는 이 소나무와 우물이 '마주 보고 있기 때문' 이라고 하며, 그래서 이 소나무도 '베거나 손을 대면 안 되는 것' 으로 알았다고 한다. 소지는 하지 않는다. 고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한 근씩 나누어 먹는다. 제비는 마을 기금으로 했다.

예전에 자가 수도가 없을 때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우물을 떠다 먹었지만, 지하수를 파서 자가 수도를 설치한 이후에는 물이 말라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따라 '정지사'를 지내지 않은 지도 20년이 넘었다고 한다.

옛날에 산제사도 지냈도 지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제보자들은 모두 보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예전에 백곡리에 김학인(현재 작고)이라고 하는 무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단골집 또는 화랭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경사굿, 병굿을 자주 했다. 큰 굿 할 때는 다른 곳에서 화랭이를 불러 왔는데, 일곱쟁이가 왔다.

마을 사람들은 정월 보름 내에 단골집에 일년 내의 신수점(가족이 무고할 것인가)을 보러 갔었고, 칠월 칠석때는 단골집에 가서 가정 무고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맛이 드리러 간다' 혹은 '정성 드리러 간다' 고 불렀다.

그 외 마을에도 무당('단골'이라고 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갔다고 한다. 한 번은 마을에 약을 먹고 자살하는 이가 자주 생긴 적이 있었다. 그러자 각 집마다 조금씩 돈을 걷어서 수원에 사는 무당 5명을 불러서 큰 굿을 한 적이 있었다. 그 곳은 마을의 옆산인 '독팍지산'에서 자리를 잡고 했으며, 굿을 하는 데 일정하게 정해진 장소는 없었다고 한다.

#### 04. 두곡1리(고잔)

##### ● 서낭당제사

두곡2리인 양지편에 서낭이 있었다. 현재 빌라가 서 있는 곳으로 서낭당에는 옷나무인지 큰 나무가 있었다. 이 곳에는 빨간 형갯을 매달아 놓기도 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이 이 곳에서 기원제를 지냈었다.

##### ● 우물제사

마을에는 큰우물이라 불리는 우물이 하나 있어서 이 곳에서도 물을 맑게 하고 마을이 발전하고 편안하기를 원하는 기원제가 열리기도 하였다. 기원제는 정월달에 열렸으며 마을의 두레패가 풍물을 치면서 '뚫어라 뚫어라 샘구녕 나와라' 그렇게 축원을 하고 물이 잘 나기를 기원하였다.

제보자 : 조문희(남, 85세), 김정숙(여, 86세)

## 05. 백곡1리

---

### • 쌍송리 당제

“우리 동네에는 산제사는 없었어요. 당이나 서낭 있는 동네는 하던데, 쌍송리에는 당제가 있어요. 경주 김 씨네가 많이 살아요. 거기서 고사 지내는 건 우리 어려서도 많이 봤어요. 거적리하고 솔티가 있어. 거적리는 경주 김 씨, 솔티는 안동 권씨가 대성촌이야.”

제보자: 김창연(남, 77세)

## 06. 쌍송1리(방죽안말)

---

### • 당고사

거기 산 위에 당도 있고, 당고사 지내고 그 동네에는 두레가 있어요. 고사하고 정월 보름 되면 우리 동네에서 초청을 해요. 그럼 쌀 한말씩 부어서 해 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우리 동네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초청을 하면 정월대 보름에 와서 놀아주고 그런다고. 오면 우물부터 한바퀴 도는 걸로 알아요. 먼저 와서 한바탕 놀고 그러고 나서 초청한 집에 오는 거야.

제보자: 권두연(남, 73세)부부

## 07. 쌍송2리(거적리)

---

### • 당제사

일부는 나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당제를 안 지내게 되더라고요. 마을에서 쌀 걷어서 소를 사다 잡아서 당제를 지내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동네서 쌀 한 말씩이면 충분히 지내는 거야. 그런데 요새 쌀 한말씩 걷어서 소를 살 수 있겠어요? 가격이 옛날하고 지금은 천차만별이니까. 또 추진하는 사람도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도 누가 개인이 낼 수도 없는 거고, 다 내지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미적미적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당이 헐리게 되어서 보상도 받을까하고 그걸 추진했더니 문화재 등록이 안 되어서 보상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공사에서 문화재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상 대상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예전에는 당집을 많이 위했을 것 아니에요? 당집에 소변을 보고 해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둘레에 가서 소변을 보다가, 우리 어렸을 때는 소변이 마려워도 가서 뉘지 거기서는 안 뉘어요.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소풍도 마도국민 학교에서 여기를 자주 오는 거예요. 나무도 없고 그 봉우리에 잔디가 나 있어요. 좋고 그러니까 소풍을 많이 왔지.

옛날에는 새우젓배가 인천에서 뜨면 당에서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건물 들어서고 공해 때문에 안 보이지. 옛날에 인천에서 여기까지 수영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마도가면 거기서부터, 소래 건너서 바로 인천이니까, 마도면사무소 앞에 새우젓배도 뜨고 고기배도 들어왔어요.

당집은 없지만 제사지내고 그러던 것이 있죠. 당집 지낼 때 인원배치하고 그랬던 문서는 있죠. 이게 92년도인데, 이게 형님이 읽은 거야. 을축년이면 15년 되었어. 그때는 5년에 한 번씩 지낸 거 아니야.

## ● 성황당향사

성황당향사가 거행되던 곳은 쌍송리의 거적리이다. 앞서 지명에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노적거리가 크게 설 정도로 부유했던 마을이라는 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거적리를 일제강점기에는 거석이라고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사자: 여기 마을을 거적리라고 하네요?

제보자: 네.

조사자: 왜 거적리라고 했나요?

제보자: 그전에 쌍송리 거석동이라고 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모르게 그 전에 거적리라고 소지명을 얘기 한 것이거든요. 왜정 때 거적이라고 한문을 쓰기 힘들니까 거석 그렇게 한 거 같아요. 거적은 옛날 이름이지만 거석은 왜정 때 만든 이름이에요.

조사자 : 마을 주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마을 제사라고 듣고 왔는데요. 성황당 향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다 김 씨 어른들이 헌관을 하셨는데, 이걸 경주 김 씨 세거지라서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는 경주 김 씨들만이 살았다고 한다. 경주 김 씨의 집성촌이었다. 경주 김 씨 집안의 족보를 확인하니 이 지역을 '경기좌도(京畿左道) 쌍봉동(雙峰洞)'이라 기록하고 있었다. 산봉우리가 둘이기 때문에 쌍봉동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산봉우리는 하나는 높았고 하나는 낮았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마을 제사를 성황당 향사라고 하였다. 마을에 전하는 성황당 향사 절목(節目)에 '을축 정월 십사일'이 되어있다. 그러나 왜 마을 제사를 정월에 지냈는지? 또한, 정월 보름을 기하여 지냈는지에 대하여는 기억되는 바가 없다.

조사자: 을축 정월십사일. 14일이 당제사를 지내는 날인가요?

제보자: 네. 14일 밤중에 지내는 거니까.

조사자: 말하자면 14일에 들어서 15일에 나는 거죠?

제보자: 그렇죠.

성황당 향사는 정월 열나흘에 들어서 보름에 난다. 그런데 일반적인 마을 제사와는 그 시기에서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현재 향사를 계승하고 있는 분들도 왜 정월에 향사를 지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당주는 선출을 한다. 시기는 성황당 향사가 있기 보통 열흘 전에 뽑는다. 당주의 대상자는 일체의 부정이 없는 집이어야 하고 생기 복덕을 보아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당주로 뽑히고 나면 부부는 각 방을 쓰면서 부부간의 일을 금한다. 그리고 술을 올리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도 당주와 같이 부부간의 관계를 금한다.

그렇게 열흘을 금하면서 장흥정을 하고 음식을 마련한다. 물론 그간에 먹는 음식도 금하는데 일체의 비린 것은 먹을 수가 없다. 성황당에는 20여명 정도가 올라가는 데 그날 성황당에 오르게 되는 20여 명이 모두 음식과 부부관계 등에 제한을 받고 금기하게 된다.

제보자: 그렇지. 거기 올라가는 사람은 다 금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는 동네 사람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정한 사람들, 아무 티가 없는 사람으로 한 20여명 올라가지. 어디 함부로 나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빼고 올라가요.



당주집을 알리기 위한 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당주집에는 술가지를 걸어두는 정도였다고 한다. 마을에서 이미 당주집인 것을 알기에 그럴 필요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주집을 표시하는 것이 당주집임을 알리는 것 만의 기능은 아니었음을 미루어 그 엄격함은 다소 약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당주집에 술가지를 걸거나 향도를 배설하는 일이 표식의 의미보다는 당주집에 깃들지도 모를 일체의 부정을 막겠다는 의미임을 생각하면 성황당 향사에서의 당주의 기능이 여느 지역보다는 약하였을 수도 있다고 추단한다. 격식을 갖추는 경우에는 금줄, 술가지, 향도로 당주의 집임을 표시한다.

그럼에도 당주집에 금줄을 걸지는 않았고 술가지 정도를 걸었지만 마을 입구에는 왼 새끼를 꼬아서 금줄을 쳐 놓았다고 한다. 외지인들이 들어옴으로써 빚어진 부정을 예방하자는 차원이었던 것이다.

제보자: 제사는 정성껏 깨끗이 하게 위해서, 그러게 날짜를 잡아 놓으면 외부에서 출입을 못 해요. 여기 들어 왔던 사람도 제사 날짜가 지나야 나가고 그랬다고.

당주는 선출되고 나면 매일 당 우물에 가서 목욕을 하였다. 부부가 모두 매일같이 당 우물의 물로 목욕을 하였던 것은 아니고 당주만이 목욕을 하였다고 한다. 이 점도 더 엄격하게 금하는 지역에서는 당주의 부부가 각각 당 우물의 물로 매일같이 목욕을 한다고 조사되고 있다.

조사자: 당주는 당 우물로 매일 목욕을 하나요? 선정이 되고 나서.

제보자: 선정이 되면 당 우물에 가서 목욕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조사자: 부부가 각자라도 각자 당 우물에 가서 씻으셨나요?

제보자: 그건 당주만.

초현, 아현, 종현 등 그 밖에 성황당의 향사에 참례하는 사람들은 당 우물에서 목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조사자: 초현, 종현, 아현은 안 하고요?

제보자: 그 분들은 안 하고.

제보자: 집에서 이제 제삿날 초현, 아현들은 자기들이 목욕을 하고 오지만.

당주가 준비하여야 하는 제수(祭需) 가운데 가장 긴요한 것의 하나가 조라술이다. 조라는 마을공동제의에서 빠질 수 없는 술이다. 술이 있어야 신의 강림을 기원할 수 있다. 강신을 기원하는 절차이면서 신이 내려 임하여 달라는 간절한 기원을 담아 격식을 갖추는 것이 제주(祭酒)이다. 일반적으로 조라술은 엿기름과 누룩을 함께 사용한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술을 빚어 익게 하려면 온도도 온도이지만 기간도 꽤 여러 날이 걸린다. 그러나 조라의 경우는 하루 전에도 담고 삼일 전에도 담는다. 이를 당일조라 삼일조라라고 한다. 쌍송리 성황당향사의 경우 삼일조라를 올렸다고 한다. 조라는 당주의 집에서 담그지 않고 성황당 옆에서 당주가 직접 담그었다고 한다.

조사자: 술 담을 양주미가 두 홉.

제보자: 그거는 조라술을 말하는 거예요.

조사자: 어르신 조라술에 누룩하고 엿기름하고 같이 들어가죠?

제보자: 그럼요.

조사자: 보리라는 게 조라 만드는 엿기름. 맥이라고 했으니까요.

제보자: 네.

조사자: 당일조라를 올리나요?

제보자: 삼일조라를 해요.

이렇게 담은 조라술은 대개의 경우 당집의 곁에 묻어 지열을 받아 익도록 한다. 쌍송의 거적리의 경우에는 당집 곁 나무가 있는데 그 곳에 터줏가리를 틀어 보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직접적으로 땅에 묻었다고는 않았으나 땅에다 묻은 뒤에 터줏가리로 덮어두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조사자: 그럼 조라는 당주가 담당하는 거죠?

제보자: 네. 그것도 보면 조라라고 했으면, 옛날에는 며칠 되도록 술이 되는데,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술이 된다고. 그런 거 보면 이상해.

조사자: 당집은 없다고 했죠?

제보자: 네. 당집은 없어요.

제보자: 느티나무하고 도꾸리나무 큰 게 있었어요.

조사자: 거기 터줏가리를 해 놓으셨나요?

제보자: 터줏가리 조그마하게 해서 제사 지낼 때만 해 놓지. 조라항아리는 거기다 두고 덮는 거죠.

조사자: 산짐승 피해 보면 어떻게 해요?

제보자: 그래도 산신 지내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성황당향사는 밤 12시에 행한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과 집례, 대축 등의 역할로 나누어있다. 그리고 제물을 옮기는 사람들이 함께 성황당에 오른다. 봉향, 봉노, 봉작, 전사 등의 역할도 정해져 있다. 그리고 주유사(酒有司), 반유사(飯有司), 병유사(餼有司)가 따로 있어 술과 밥과 떡을 올린다고 한다. 그런데 게다가 각각의 유사를 두 명씩 둔다고 한다.

조사자: 초헌, 아헌, 종헌이 계시고, 진례 하시는 분, 대축하시는 분, 그리고 문종규 어른이 하신 역할은 뭐죠?

제보자: 그건 심부름 한 사람일거예요.

조사자: 봉향도 있고, 봉노도 있고, 봉작도 있고, 전사. 이렇게 하시네요.

조사자: 밥 한 그릇, 떡 한 그릇씩을 올린다고 되어 있네요. 고기도 올린다. 우족, 다리 한 개씩 놓는다. 여기 내내 내용이 절목이네요. 여기는 사배를 하나보죠?

제보자: 네. 여기는 사배를 해요.

조사자: 주유사든, 반유사든, 병유사든 각 두 명을 둔다고 되어 있네요?

제보자: 전부 술 같은 거 심부름 하는 거예요.

조사자: 그러니까 전부 두 명씩을 둔다고요? 술에도 두 명, 밥에도 두 명, 떡에도 두 명?

제보자: 예. 한 사람이 주면 받아서 또 한 사람이 받아서 올리니까.

조사자: 그게 헌관들이 올리지 않아요?

제보자: 네. 헌관들이 따르지 않고 그걸 따라주니까 헌관은 잔만 들고 있고.

제물의 희생으로는 통소를 올렸다. 60호의 주민들이 각 쌀 한 말씩을 내면 소 한 마리 값이었다. 희생으로 바칠 소는 반드시 검은 털이나 잡털이 없는 것으로 암소를 올렸다. 소를 끌고가는 사람도 별도로 정해져 있었으며 초헌관이 소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소가 살 찼다.”하면 소를 끌고간 사람이 도살할 위치를 잡는다. 그런 다음 소를 끌고 도살할 자리에서 오른 쪽으로 세 바퀴를 돈 다음 도살을 하였다. 성황당향사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분육한 소의 각 부위를 나누었다.

조사자: 희생으로 소를 올렸다는 예기죠?

제보자: 네.

조사자: 소도 거기서 암소를 가지고 올라가서 즉석에서 잡아서 제를 지냈다고. 문서에는 희생을 누가 내면 어떻게 갖다 올린다고 하시네요.

제보자: 네.

제보자: 부락 한 60호 되면, 쌀 한말씩 걷으면 소 한 마리 샀거든요. 소를 사는데 검은 털이나, 잡 털이 하나라도 섞이면 안 돼요. 노란 소만 사야 돼요.

조사자: 황소로 사신 다는 말씀이시죠?

제보자: 네.

제보자: 소는 끄는 사람이 앞서서 끌고 가면, 초헌관이 소가 살찼다고 엉덩이를 두드리지. 그렇게 세 바퀴를 돌아야지. 소 질 때 그렇게 하지.

조사자: 소를 질 때요?

제보자: 네. 소가 살찼다고 투덕투덕 해주면 마방꾼처럼 소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잡을 자리로 끌고 가면 세 바퀴를 돌지.

조사자: 어느 쪽으로 도나요?

제보자: 오른쪽으로 돌죠.

조사자: 이건 희생을 맡았던 분들에게 어떻게 분육하는가 하는 거죠?

제보자: 그렇죠.

조사자: 이 분들은 다리 하나를 준다거나, 내장을 준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릇 등 향사에 쓰이는 물건을 옮기는 기유사(器有司)도 적어도 5명 이상이였다. 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용되는 물품이 많았다. 채일, 명석, 상, 병풍을 비롯하여 땀감, 화로 등도 필요하였다. 화로도 4개가 필요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음식을 만들기 위한그뿐만이 아니라 추위를 피하기 위한 용도도 있었을 것이다. 짚단도 물품에 포함되어 있음도 이를 짐작케 한다.

조사자: 채일도 필요하고, 병풍도 필요하고, 이건 망석이라고 했는데요?

제보자: 명석.

조사자: 큰 그릇, 망석이 명석인 거죠. 당내나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돌도 갖다 놓네요. 도마석도 있고, 소머리 올리는 상은 따로 하셨네요.

제보자: 네.

이 밖에도 초, 백지, 북어, 건시, 대추, 감, 참기름, 국수(麵), 쌀 등이 품목에 대한 기록도 있다.

조사자: 제물, 큰 초, 백지, 북어, 건시, 대추, 감, 참기름, 면, 밥 할 쌀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신승이라는 것이 뭔가요?

제보자: 잘 모르겠어요.

쌍송리 성황당향사는 각 집안에서 행하는 시제(時祭)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왜 이러한 형식과 격식으로 제를 올렸는지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형식의 마을 제사는 학술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 판단된다.

조사자: 결국 시제 지내는 예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제보자: 별로 다르지는 않는데, 누구 나와라하면 나가서 잔 올리게 되어서.

조사자: 초헌관 나와서 부복하세요, 집례는 술잔을 드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제보자: 네.

조사자: 이건 언제부터 내려오던 것인가요?

제보자: 알 수 없죠. 옛날에는 노인들이 하시던 거니까, 살아계시면 150세도 넘으신 분들이시니까.

제보자: 김홍경(남, 85세), 김부영(남, 76세)노인회장, 김희강(남)

#### ● 쌍송2리 거적리 동제

쌍송2리에서는 현재도 5년에 한 번씩 정월 보름날 소를 잡아 놓고 당제사를 지내고 있다. 당은 마을 앞 수당산 꼭대기에 있는 당나무다. 옛날에는 아릅드리 향나무도 있었으나, 번개에 뿌리 채 뽑혀나갔고, 현재는 당나무 세 그루만 남아있다. 이 당제사는 원래 수당산을 사이에 두고 양편에 자리한 거적리와 돌다리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모셨으나, 현재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돌다리 주민들의 참여가 다소 부진해진 것으로 보였다. 돌다리 토박이로 교회 장로이기도 한 윤광로씨는 '원래 거적리 경주 김 씨 사람들이 대단하게 모셨다'고 하여, 원래부터 거적리와 돌다리 주민들 사이에 당제사에 대한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당주(제관)는 당제사 지내기 전 생기 복덕을 보고 선출하며 선출된 당주는 일주일 동안 산밑에 있는 당 우물에 가서 목욕재계하며 부인과의 잠자리도 피한다. 당주 외에 역시 생기 복덕을 보아 축관, 소임 등 5, 6명을 더 선정한다. 당 우물은 수당산 밑에 있는데, 그 우물물로 일주일 전 조라술을 만들어 당 옆에 묻었다가 당제날 쓴다. 정월 보름날 제관, 축관, 소임 외 소잡는 사람(중인이라고 불렀다고 한다)이 함께 올라가서 당고사를 지내는데, 먼저 소를 끌고 올라가서 당 주위를 세 바퀴 돌고, 저녁 10시경 당 옆에서 잡아서 소머리를 올려놓는다.

축문(옛날부터 내려온 축문이 있었다고 함)을 읽고, 절은 먼저 당에 삼배하고, 그다음, 동, 북, 서 순서로 각각 세 번씩 한다. 고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 소내장을 꿰여 음복한다. 날이 밝을 때를 기다려서 분육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똑같이 분육한 고기를 가지고 내려온다.



## 08. 송정리 마을신앙

---

### • 정제(井祭)

송정1리에서는 일본강점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제를 지냈다. 현재도 대동우물의 모습은 남아 있다. 정제는 여름 말복 경에 지내는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올린다. 소는 머리만 올리고 나머지는 동네 주민들끼리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정월과 음력 8월 추석에 두레가 놀 때도 우물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 • 당고사

당나무에서는 마을고사를 지냈다. 이 당고사가 없어진 것은 오래전의 일이라고 한다. 송정2리 아래 하일에서는 마을 제사를 지내는 일은 없었다. 현재는 그 전승이 끊어진 상태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종교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현재 송정1리 주민들은 남양동에 있는 남양 천주교회를 많이 다니며, 절에는 10집 정도가 다니고 있다고 한다.

## 09. 송정리(웃하일)

---

### • 당고사

정월에 해창에서는 당고사를 지냈죠.

여기 1, 2, 3반이 다 거기 가서 두레 가지고 지냈다고. 국도 끓여가고. 음식을 장만하는데 고사에 올리는 음식을 만들 때 음식 맛을 보면 벌을 입는다고 했어요. 싱겁건 짜건 그냥 간만 대충 맞춰서 가는 거지. 싱겁거나 짜다고 간을 맞추면 벌을 입는다고 했어요. 바바굴서 두레 가지고 가서 논매고 가려면 거기 가서 고사하고 나가잖아. 그런데 국을 끓여서 이고 가는데 바바굴 누구 엄니가 이고 가기 전에 맛을 봤대. 그런데 벌을 입어서 거기 다 가서 국 동이가 깨졌다잖아. 그래서 몸 전체 데고 그랬대요. 국 끓일 적에 먼저 먹어 봤다가 벌을 입었대요.

해창에 당고사 지내던 그 장소는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나 참나무인 서낭목을 누군가가 없애버렸다. 그래서 두레들이 가서 서낭기 내리느라고 인사드리고 오죠. 걸림을 나가더라도 거기 가서 인사 먼저 하고, 여기는 3개 반인데 다 거기 가서 인사드리고 술 부어 놓고 그랬지. 해창에서 정월에 제사를 지내는데 정월 보름 안에. 3개 반이 두레가 하나씩 다 있어서. 반마다 다 갔지. 시루떡도 하고 북어포를 올려 고사 지내요, 윈 새끼로 북어는 그 신목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 북어 위에 팔 시루를 해 놓지요.

술은 막걸리지를 올리죠. 당주나 제관을 따로 선출하지는 않고. 축문도 없어요.

아이 그전에 쥐불 놓는 것도 싸움했다니까.

여기가 3개 반이라도 서로 저기 했었는데. 두레 가지고도 기 싸움도 하고 했는데 기 싸움은 서로 술 먹고. 팽과리를 어디가 잘 치는지 보는 거지요. 들어가서 그냥 막 두드리는 거야. 잘 치고 그러면 어쩌다보면 상대의 두레에 맞춰서 두드린단 말이야. 상대편 가락을 따라가면 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바탕 놀지요. 우리 어려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 ● 우물고사

마을에 큰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을 대동우물이라고 하였다. 우물고사는 대동우물그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의 개인우물에도 고사를 드렸다. 우물고사를 지낼 때에는 마을의 두레가 앞장은 선다. 쇠소리를 울리며 대동우물 고사를 지낸 다음 각 가정의 우물에서도 고사떡담을 하였다. 개인 가정에 우물고사를 지낼 때에는 우물뿐만 아니라 가정의 뒤란을 돌면서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우물고사는 칠월 중에 하였는데 정해진 날은 아니었다. 대개의 경우 복 중에 우물고사를 드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때면 장마도 오게 되고 하니까 우물을 청소해 두어야 빗물에 의해 우물물이 흐려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우물고사는 정제사(井祭祀)라고도 하였으며 정제사를 지낼 때에는 소머리를 제물을 하였다. 그렇게 우물고사를 지내고 나면 두레를 앞장세우고 마을주민들이 우물곁에서 다른 먹을거리를 내다가 술도 마시고 놀았다고 한다. 제보자들의 기억으로는 약 70년 전에도 우물고사가 있었다고 하며 최근에 단절되었다고 한다.

“복중에 했어요. 장마도 오고 하니까 그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지요. 두레 가지고 거기를 뱅뱅 돌고 두레 놓고 하지요. 우물은 지금도 있는데 사용하지는 않아요. 정제사 지낼 때는 소머리를 놓고 했어요. 두레가 뱅뱅 돌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그 옆 우물에서 먹고 노는 거야. 고기를 이제 사다 먹는 거지. 그러다가 요 근래 없어졌어.”

제보자: 임창익(남, 75세)노인회장, 김규용(남, 72세), 박춘옥(남, 73세)

## 10. 슬항1리(절골)

---

### ● 서낭당고사

서낭당은 있었지. 우리 집 앞에, 지금도 느티나무는 있어요. 몇 백 년 되었는데 속이 썩어서 쓰러지고 그 속에서 다시 났지. 그 나무는 지금도 동네에서 건드리지는 않지. 그전에 풍물을 놀면 거기 우선 와서 잔을 한 잔 올리고 놓고 풍악을 가지고 나가고 그랬어요.

### ● 우물제사

대동우물도 지금 있어요. 물도 나와요. 그런데 쓰지는 않지요. 정제사는 없었고, 두레패들 돌때는 잔 올리고 그랬죠. 떡담도 하고. 뚫어라 뚫어라 샘구멍 뚫어라 뭐 그런 얘기 하고.

제보자: 이길선(남, 80세)

## 11. 청원1리

---

### ● 서낭당

서낭당에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날을 받아서 제사를 지냈는지는 기억이 없다. 다만 서낭당의 본래적 기능으로 볼 때 마을주민들이 이 길을 다니면서 기원을 한다거나 각 가정에서 고사를 지내고 나면 떡을 가져와서 기원을 하였다는 정도는 전승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그나마도 전승의 맥이 끊어진 상태이다.

“서낭당은 마을 안에는 없고 동문쪽, 동문고개에 있었어요. 석교리, 쌍송리, 청원1리로 넘어오는 쪽에 서낭당이 있었어요.”

제보자: 이인구(남, 83세), 방극영(남, 54세)이장, 허예범(여, 78세)

## 12. 청원2리(수루지)

### ● 쌍송리 당제

수루지에서는 쌍송리의 당제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제보자의 조상 묘소가 수당산에 있는데 쌍송리의 당이라고 한다. 쌍송리에는 당집도 있으며 당제를 지낼 때에는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지낼 정도로 큰 제사였다고 한다.

조사자: 할아버님 묘소가 수당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보자: 네. 바로 이 뒤인데,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시흥에서 평택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조사자: 당이 있나요?

“네. 당이 지금도 있어요. 그전에는 여기 넘어 동네가 쌍송인데 당제도 지내고 그랬어요. 거기는 청원리가 아니라 쌍송리예요. 쌍송리에 당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당제를 지냈는데, 그전에는 소를 잡아서 당제를 지냈어요. 발음상 수장산이라고도 해요. 당제 있는 건 쌍송리가 되고, 우리 할아버지 모신 곳은 청원리 지역이고 그래요. 이 바로 위예요.”

### ● 상여

마을에는 아직까지 상여막에 상여가 있다. 저 아래 외따로 있어요. 상여는 몇 번 교체를 했는데 1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이장이 관리해요. 잠궤 낚죠.

상여막에는 두레 장비도 다 있고. 초상이 나면 금당리 허용재라고 그 사람을 불러다 써요. 예전에는 청원리 우리 동갑네가 했었는데 지금은 오산에서 살아요.

초상은 호상인 경우가 있고, 악상인 경우가 있는데, 마을 밖에서 돌아가시더라도 가족들이 원하는 데로 하는 거지. 젊은이는 절대 그렇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은 가족들이, 영구차로 와도 거기까지 모셔달라고 하면 동네에서 하지.

옛날에 악상에는 집 앞으로도 못 가고, 우물도 나무 걸쳐 놓고 명석으로 덮었죠.

악상이라 하더라도 상여소리도 하고,

제보자: 송기보(남, 72세)노인회장

## 13. 청원3리(청룡)

### ● 우물고사

청룡에도 마을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공동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제의 시기는 칠 월 쯤이었던 것으로 제보자들은 기억하였다. 청룡 안에도 두 마을이 있어 양쪽 마을에서 정제사(井祭禮)를 지냈다고 한다.

어떤 제물을 올렸는지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나 떡도 올리고 술도 부어놓고 마을의 두레가 앞장을 서서 지냈다고 한다.

“1년에 한 번씩 우물고사도 지내고 그랬죠. 지금 지하수를 파서 이케 해가지고 비워졌어요. 마을이 저기 있고 저기 양쪽에 있었는데. 양쪽마을에서 정제사를 지냈지요. 떡 해다 놓고 하, 그렇죠. 술 버 놓고. 한 10대살 될 때까지 노인들이 노는 걸 하는 걸 봤어요.”

제보자: 변선관(여, 84세), 박선분(여, 86세), 김주현(여, 80세), 김순덕(여, 74세)

## 14. 청원4리

---

### ● 산제사

예전, 청원4리에서는 정월달에 산제사를 올렸다. 당집은 없었으나 함봉산의 소나무를 당으로 하고 지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산제사를 지냈으며 오래 전에 단절되어 자세한 제보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노인들이 계실 땐 함봉산에서 1년에 한 번씩 농사 때에 산제사를 지냈어요. 당집은 없었으나 당나무는 있었죠. 소나무, 마을에서는 정월달에 마을 제사를 지냈죠.”

제보자: 충무(남, 75세), 전 면장

## 15. 해문2리(아랫말, 회룡곡)

---

### ● 신목

회룡골 입구에 팽나무가 하나 있어. 보호수는 아니고, 그전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평평한 공터였어요, 여름이면 거기서 매끼(새끼)도 꼬고 그랬어요. 수령은 약 200~300년은 되었는데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위하고 했어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건드리면 화가 미친다고 생각하지 그 나무를 건드려서 좋은 사람이 없어. 11대 종손네 집이 바로 그 밑창인데 나무를 건드렸지 뭐야. 나무를 베고 건드렸는데 환갑사 못 살고 죽었어. 그 종손이 학교 선생이었어요. 거기 집안네 조카가 살다가 그 나뭇가지를 하나 잘랐어. 그런데 그사람이 산업재해를 입었어. 지금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어. 지금은 전기가 그 나무를 타고 넘어와서, 한전에서 나무를 잘랐다가 봐. 그 사람이 돌아가다가 사고가 났대. 저 나무도 옛날부터 뭐가 있는 나무야. 옛날에는 저 나무도 위하던 나무가 아닌가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 나무를 못 건드리게 하는 거야. 수호목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 거야. 한두 아름 정도 돼.

제보자: 홍순용(남, 63세)노인회 총무

### ● 산제사·햇불고사

마을에서는 뒷산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다. 훼손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다. 뒷산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어 물을 더럽히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퍼가지 않았다. 또한,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을 조성하는데 돌이 많이 필요했다. 이 산은 돌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을 위하는 동네 어르신들이 돌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만큼 뒷산을 신성시 여겼다. 정월대보름날 마을에서는 산제사로 줄 바위를 위했다. 이곳에서 햇불 고사도 지내기도 하였다. 그런 다음 짚 방망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불붙이고, 달집태우기도 하였다.

제보자: 홍순용(남, 63세)노인회 총무

# 3. 민간신앙

## 01. 고모리

---

### • 단골

고모리의 단골은 백곡리 만신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세습무가(世襲巫家)인 화랭이들도 들어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화랭이패들은 단골의 의미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굿을 하러 오는 것이지 마을주민들의 운수를 보아주고 비방을 알려주는 일은 개인 단위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보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음에 이 마을의 단골은 백곡리의 여자 만신이었고 나중에 슬항리에서 일명 야기 박수, 애무당 등으로 불린 고건태 박수가 신 내림을 받으면서 이 마을의 새로운 단골이 되었다는 말이다.

조사자: 백곡리에도 무당이 지금 있었다고?

제보자: 옛날에 있었지, 지금은 다 이사 갔어요.

조사자: 그럼 그건 고건태 박수 들어오기 전인가요?

제보자: 그래요. 전이지.

그리고 고모리의 단골인 백곡리의 무당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무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조사자: 할머니 만신이었어요?

제보자: 아니,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다.

조사자: 옛날에는 어디 아프고 그런 일 벌어지면 왜 만신들 들어오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는요. 어디서 들어왔어요? 여기는, 만신들이?

제보자: 백곡리 있었어요. 백곡리.

조사자: 아, 백곡리 만신이요. 화랭이도 같이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제보자: 고건태라고 있었지. 고건태.

조사자: 박수네요?

제보자: 네, 박수. 그 사람이 죽었어.

조사자: 슬항리 살았잖아요? 그런데 백곡리는요?

제보자: 그 사람이 우리 집 단골이었지.”

고건태 박수를 애무당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어려서 신 내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고건태 무당을 애무당으로 불렀다. 그러한 사연은 그가 어릴때(7살)부터 무당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건태 박수는 워낙 집안이 어려웠고 그래서 금당리의 무당집에 살면서 무업을 배웠던 것으로 전한다.

조사자: 몇 살 때 된 거예요? 애기 때라면?

제보자: 젊었을 때 됐으니까 애무당이라고 그러지.

조사자: 어디서 들으니까 일곱 살 때 무당이 됐다고 그러던데.

제보자: 아 글썸,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보자2: 그러니까, 못사니까 그 집에 가 살았었나 봐.

조사자: 아, 그렇게 들었어요?

제보자2: 무당집에 가서.

제보자: 거기서 살은 거여, 금당리에.

어린 나이 신이 내렸지만 고건태 박수는 매우 용하였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잘했죠. 예, 마음이 후련했어요. 만신회장도 했어요. 수원에서 협회 회장도 했어요. 여기서 마누라가 죽으니까 집을 팔고 나갔어.

조사자: 근데, 고건태 박수가 용했나요?

제보자: 잘했죠.

조사자: 잘했어요?

제보자: 예. 마음이 후련해요.

조사자: 어쨌든, 여기 고모리도 고건태 박수 단골판이네요, 여기가?

제보자: 예.

#### ● 제석

제보자의 집안에서는 제석 주머니들 모셨다고 한다. 그러나 이도 제보자 당대의 일은 아니고 제보자의 할머니 대에 모셨던 기억뿐이다.

조사자: 제석 주머니도 모셨어요? 할머니가?

제보자: 응.

#### ● 기타

이 밖에도 '터줏가리', '대감', '성주' 등의 신앙도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없애고 위하지 않고 있다.

제보자: 지산근

## 02. 고모2리

---

#### ● 삼신

고모2리에서는 제석 주머니라 하지 않고 '삼신 주머니'로 불렸다. 삼신 주머니는 햅쌀이 나면 방아를 짚어서 새로 주머니에 담아서 보관하였다. 다시 이듬해에 햅쌀이 나면 삼신 주머니에 다시 햅쌀을 채워 넣었다고 하며, 삼신 주머니는 칠월 칠석을 기하여 밥을 해먹었다고 한다.

“우리 친정에도 해 먹었는데, 햅쌀이 나와 갈거든. 햅쌀 나와 방아 짚어서 쏟아서 먹는 거지. 삼신 주머니라고.”



### •업

업은 집안의 재물을 지켜주는 신격이다. 업의 종류는 다양한 데 뱀, 즉 구렁이를 업으로 모시는 경우 긴업 또는 긴대업이라고 한다. 족제비업도, 사람이 업으로 들어오는 인업도 있다. 보통 터줏거리 보다 현격하게 차이를 보일만큼 크게 짚주저리를 틀어서 모셔진다.

“진업도 있고, 족제비 업도 있고 그렇다네. 구렁이가 있는 것도 있고, 족제비도 있고. 옛날에 있었지. 진업 위하는 사람도 있고, 족제비 업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은 없고.”

### •인줄

옛날에 아이 낳으면 인줄이라고 했다. 인줄을 거는 것은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이며 일종의 경고였다. 인줄은 아들과 딸을 구별하여 표식을 하는데 아들의 경우에는 고추가 들어가고 딸의 경우는 고추가 빠지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그런데 고모2리에서는 아들을 낳았을 때 고추, 숯을 달았고, 딸을 낳았을 때는 짚을 방망이 형태로 해서 표시를 하였다고 한다.

“인줄을 달 때는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 다르잖아요. 아들 낳을 때는 고추하고 숯 달고. 딸은 낳으면 짚 썬 해서 달고, 네 갠가... 다섯 갠가. 그렇게. 옆 동네에 갔더니, 외양간에 소가 새끼를 낳으니까, 솔가지를 달았다고 하더라구요.”

### •기타

옛날에는 대감, 터주, 성주 등 여러 신격을 모셨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신앙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제보자: 신기분(여, 85세), 양애숙(여, 80세)

## 03. 금당1리

---

### •단골

금당리의 단골은 고건태 박수였다. 태어난 곳은 금당1리에서 태어나셨고 살기는 금당2리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슬항리의 배야목에 가서 살았는데, 처갓집은 배야목이었다.

고건태 선생은 소곡서 태어나서 금당2리 금단곡에 사는 이월성의 양자가 되었다. 결혼하여 살았다는 곳은 배야목이라고 하지만 토박이들은 애무기라고 하였다.

조사자: 배야목도 금당2리에요?

제보자: 슬항리에요. 애목이라고 하지, 슬항리라고 안하고.

“단골무당이 많았는데 큰무당이 있고, 또 푸닥거리 하고 다니는 무당이 있고 그래요. 푸닥거리 하는 무당이 살던 곳은 여기 저 슬항리 근처라에서 살았고, 그전에 큰 무당인 이낙은 백곡리에 살았어요. 큰무당의 아들 김이낙.”

조사자: 큰 무당의 손자가 이낙이라는 거죠?

제보자: 아들이지. 아들.

조사자: 아.. 그럼 이낙이라는 분 부인도 무당이셨어요?

제보자: 배워가지고 만났어. 그 큰무당을 배워가지고 만났어. 배워가지고 굿도 하고.....

조사자: 그러면은 애기무당. 애무당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굿을?

제보자: 이낙이 어머니한테 배웠겠지. 며느리로 가르쳐가지고 데리고 다녔으니깐.

조사자: 그 이낙이라는 분이 장구도 치고 그랬나요?

제보자: 장구 치고 그랬지. 피리도 불고 다하고.

애무당은 제보자 이제천 어르신과 어려서 같이 자랐다고 한다.

“나하고 여기 동네에서 살았어. 같이 지냈어. 여기서 살다가 이 씨네 집으로 양자를 가서 무당이 되었어요. 어려서는 이렇게 목을 만들어 놓고 곡도 하고 별걸 다해요. 그 놈이. 그러더니 무당이 됐다고. 무당이 된 시기는 약 20세 가까워서 무당 되었을 거예요. 한 18세에서 19세 사이에 어느 날 그렇게 신이 내렸어요.”

### ● 성주·업·터주

옛날 제보자 댁에는 성주, 터주, 업을 모셨다고 한다. 그런데 제보자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오래 전에 이 댁에서의 민간신앙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도 알 수 있듯이 민간신앙은 여자들이 의하여 전승되었던 것이다. 여자가 없었다면 각 가정에서의 민간신앙은 존립의 터전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옛날에는 성주대도 있고, 터줏가리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업가리도 모셨죠요. 업가리는 쪽제비, 옛날에.. 쪽제비를 저기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터줏가리 해놓으시고, 우리 집은 내가 5형제인데 소시 적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낙이라는 분이 와서 굿을 말도 못하게 많이 했어. 이낙이 떠나고 나서는 거기도 큰무당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데려다가 했어.”

### ● 인줄

아이를 출산하면 인줄을 걸었다. 아들의 경우 고추를 달아서 표시를 하였다.

“인줄이라고 그러지. 아들은 고추를 달고, 딸은 숯을 달고. 왼 새끼 파서. 물은 안 떠놔.”

그리고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에도 상을 치룬 사람이 들어와서 새 생명에 해가 될까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였다. 그 표식은 솔가지를 걸어놓는 것이다.

“소는 솔가지만 갖다 꺾어서 달아 놓고, 그거는 상재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제보자: 성충용(남, 72세)

### ● 아랫말 가정신앙

가을에 추수를 마치면 햅쌀로 팔시루떡을 해서 가을 고사를 지낸다. 한 해 농사 잘 지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내년 농사도 잘되라고 기원하는 뜻이다. 예전에 떡을 많이 할 때는 쌀을 3말 정도 해서 마을의 집집이 돌렸는데, 지금은 1말 정도만 하고 마침 시제를 지내는 때라 친척끼리만 나누어 먹는다.

상에다 팔시루떡을 시루째 받쳐서 올리는데, 시루 안에는 대주(가장)의 그릇에다 청수를 떠 놓는다. 시루째 올리는 곳은 마루이며, 나머지 안방과 경운기(차나 마찬가지이니 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물에는 시루떡을 잘라서 접시에 담아 떼어 놓고 온다. 뒤꼍에 장독간이 있어서 여기에도 시루떡 조각을 가져다 놓았는데, 집을 개조하면서 뒷문도 없어져 뒤꼍도 장독간이 없어졌다. 지금은 뒤꼍쪽으로 문만 조금 열어놓고 고사를 지낸다. 가을 고사를 마치면 그 날 밤10시경에 '산시루'를 써서 '산고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산고사는 뒤꼍에서 지내는데 마을의 옆 산인 돌팍지산과 은행나무 등 마을 주변의 네 군데에다 일곱 번씩 절을 하면 산을 위한다. 산고사는 흰옷에 흰고무신을 신고 지내며, 백설기로 찢 산시루 외에도 사과, 밤, 촛불, 청수, 쌀 한주발 등을 제물로 올린다. 정월에는 동그란 모찌떡을 해 먹었다 한다. 방앗간에서 맞추었는데, 팔시루떡도 했다.

● 금당2리 아랫말 무속

예전에 백곡리에 김학인(현재 작고)이라고 하는 무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단골집 또는 화랭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경사굿, 병굿을 자주 했다. 큰 굿 할 때는 다른 곳에서 화랭이를 불러왔는데, 일곱잡이가 왔다. 마을 사람들은 정월 보름 내에 단골집에 일년 내의 신수점(가족이 무고할 것인가)을 보러 갔었고, 칠월 칠석 때는 단골집에 가서 가정 무고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맛이 드리러 간다' 혹은 '정성 드리러 간다'고 불렀다. 그 외 마을에도 무당('단골'이라고 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갔다고 한다. 한 번은 마을에 약을 먹고 자살하는 이가 자꾸 생긴 적이 있었다. 그러자 각 집마다 조금씩 돈을 건어서 수원에 사는 무당 5명을 불러서 큰 굿을 한 적이 있었다. 그 곳은 마을의 옆산인 '돌팍지산'에서 자리를 잡고 했으며, 굿을 하는데 일정하게 정해진 장소는 없었다고 한다.<sup>1)</sup>

04. 두곡1리(고잔)

● 터주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민간신앙은 대부분 자취를 감추게 된다. 고잔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었다. 옛날에는 짚으로 주저리를 틀어 터줏가리를 해 두었다. 그리고 업신앙도 있었으며, 대청마루에는 성주도 모셨었다고 한다. 특히나 굿을 하고난 다음에 성주의 신체를 맡아서 대들보에 달아놓았었다고 한다.

● 단골

고잔의 단골무당은 슬항리의 애무당이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단골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신다. 그런데 애무당이라는 별호를 보아서 일명 '애기박수'로 불리던 고(故) 고건태선생일 것으로 추단한다.

제보자 : 조문희(남, 85세), 김정숙(여, 86세)

1) 『화성의 민속』

## 05. 백곡1리

---

### ● 인줄

백곡리에서는 딸을 낳으면 짚 세 개를 왼 새끼에 끼워 넣는다는 풍속이 조사되었다.

“아기를 낳으면 인줄을 달지요. 아들은 인줄에 고추나 솥을 짚 세 개 사이에 끼우고 딸은 짚만 세 개 끼워서 달아요.”

### ● 제석

제석을 형곶의 주머니자루로 모시지 않고 단지에 제석을 모신다고 하는 자료가 조사되었다.

“단지로 제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왜 나갔냐면, 우리 어머니가 1년 동안 아프셨어요. 그런데 무당을 써야 한다고 해서 내가 한 달에 굿을 세 번 했어요. 그래도 안 나오셔. 헛돈만 내 버리는 거지. 그런데 우리 당숙이 내려오시고 동네 사람들이 보더니 사흘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야. 식사도 못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준비하느라 술을 해 놓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술 담는 것도 어려웠어요. 내가 꿈을 새벽 두시 경에 꿴어요. 우리 외숙모님이 교회 권사였어요. 그 양반이 내려오시더니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시더라고,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가야 된다고 하셔요. 그 꿈을 꾸 거예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새벽같이 진짜로 내려오셨어. 그래서 어찌 오셨냐고 하니깐 어젯밤에 꿈을 꿴데 내가 선몽을 했대요.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셔야 사신다고 했대요. 그런데 나도 그 꿈을 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비틀대면서 일어나시는 거야. 그때는 차를 빌리기도 어려웠는데 상안리 쪽에 사는 지씨네 차를 빌려서, 수원 팔달산에 기도원이 있어요. 어천리 그 산에 기도원이 있더구만. 팔달산이 아니라 칠보산. 거길 가셨는데 관창 아셨어요. 거기서 사흘 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식사를 하신다고 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관창으신 거야. 열흘 거기 계시다가 집에 오셨는데 감쪽같이 지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간 거예요.”

### ● 단골

“이 동네는 만신은 김학인의 할머니로부터 대물림되는 무당이었고 여기 살았지. 김학인 이라는 무당은 김해김가라고 큰 무당이었어요. 지금 인삼밭 옆에 살다가 수원 쪽으로 나가서 무를 했다나 봐요. 김학인 무당이 장구 치고 부부가 같이 다녔지. 동네 농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장구잡이로 유명했지.”

### ● 기타

성주대는 안 모시고, 우리는 사당을 모셨어요.

제보자 : 김창연(남, 77세)

## 06. 백곡2리(정북동)

---

### ● 제석

제석은 단지로 모셨다. 제석단지에는 쌀만 넣어 모시는 것이 아니었다. 돈도 넣어 두었다고 한다.

“밥을 안 지어먹고, 쌀을 담아서 돈도 넣고 그런 거 봤어. 단지기에다가 돈도 넣고, 쌀도 넣고.”

## ● 시월상달

10월 상달에 팔 시루떡을 한다. 시루떡을 제일먼저 대청에 올려 조상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손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비손을 하고 절을 한다. 그리고 시루떡을 접시에 담아 장독대, 뒤란, 터줏가리, 외양간, 부엌 등에 올렸다. 그 외에 외양간 소에게도 주기도 했다. 살아가면서 가족구성원이 병 없이 잘 살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 ● 인줄

정북동에서도 딸을 낳으면 짚방망이 세 개를 걸었다.

“옛날에 애를 낳으면, 인줄이라고 그래요 인줄은 아들과 딸이 다른데. 아들은 고추만 달고 딸은 인줄만 하는 거야. 셋인가. 이렇게 매달아요. 짚방망이처럼 만든 것 그걸 세 개를 걸고. 애기를 낳았는데, 혹시, 병난사람이 들어 올까봐, 3주 동안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얘가지. 혹시, 나쁜 기운이 들어 올까봐. 3.7일 동안 들어오지 말라는 얘가지.”

## ● 금줄

송아리를 낳으면 금줄을 걸었다고 한다. 그리고 금줄에는 솔가지만은 매달아 놓았다. 인줄은 사람에 관한 것이고 금줄은 가축에 관한 것이라는 구별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대개의 경우가 인줄과 금줄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줄을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줄은 특힌 사람을 금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사용되고 있다.

“송아지를 낳으면 금줄을 거는데 그때는 솔가지를 매달았지. 인줄이 아니라. 그전에는 외양간이 밖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지금은 밖에 있으니까.”

## ● 우물고사

마을의 대동우물에서의 고사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우물을 위하는 고사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칠석날에 시루떡을 해서 우물에 떼어서 넣었다는 풍속이 조사되었다.

“그전에 칠석날 같은 때 시루떡이라도 해서 우물에다 한 조각 넣고 그랬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위하는 건 없고. 고사는 믿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기 뭐하니까 딱 한 켜 해서 냉수 떠다 넣고 빌고 그런 거지. 개인적으로 한 거지.”

## ● 단골

단골은 가정마다 선호하는 무당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거적리를 비롯하여 슬항리, 남양 등에서도 단골이 찾아왔었다고 한다.

“무당은 거적리에 무척 많았어요. 둘인가 셋인가 있었어요. 단골이지. 거적리 만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거기 김 씨네도 있었고, 홍 씨네도 있었고, 여자 성은 모르고 남편 성이 그랬지. 박수무당이 슬항리에 살았지. 여기는 안 들어왔어요. 주로 거적리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양에서도 들어왔고. 남양 무당, 송림 무당 이런 식으로 불렀지. 남양도 김 씨네인데, 김정선이 어머니인데. 거기 워낙 큰 무당이지.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나중에는 며느리가 하고. 지금은 며느리도 죽었어요. 글판동 채 못 가서 하라문동에서 살았지.”

## ● 기타

“대감독에는 수확한 곡식을 담아서 대감독에 넣고 절하였다. 음식을 올리고 절하기도 하였다. 옛날에는 터줏가리가 있었다. 그분만 아니라, 대감독도 있고, 성주대도 달고 그랬다.”

제보자: 양형직(남, 81세), 양영주(남, 74세), 지기분(여, 76세)

## 07. 쌍송1리(솔티)

---

### ● 우물고사

솔티에서는 칠석날 가정마다 시루떡을 하여 우물에 한 조각을 넣었다고 한다.

“그전에 칠석날 같은 때 시루떡이라도 해서 우물에다 한 조각 넣고 그랬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위하는 건 없고. 고사는 믿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기 뭐하니까 떡 한 켠 해서 냉수 떠다 넣고 빌고 그런 거지. 개인적으로 한 거지. 대동우물은 반마다 각각 있었지. 1반 솔티에는 가운데 밭 밑창에 있지. 지금 쓰지는 못하고, 먹지는 못하고 허드렛물 쓰지.”

### ● 상달 고사

시월 상달에 고사는 집집이 해마가 거르지 않았던 풍속이었다. 시루떡을 해서 성주에 올리고, 터주, 장광 등에 떡을 올렸다.

“상달 고사는 옛날에는 했죠. 대청에 시루를 놓고 그다음에 터줏가리에 놓고, 잘라서 냉수 떠다 옆에 놓고 장광에도 놓고 외양간에도 놓고. 터줏가리는 집집이 있었는데 이 동네에 업가리는 없었어요.”

제보자: 권진양(남, 74세), 배원분(여, 69세)부부

## 08. 송정리(웃하일)

---

### ● 송정리 가정신앙

박재형씨 댁 터줏가리는 양옥으로 신축된 집 마당 왼쪽에 세워져 있다. 터줏가리는 보통 뒷마당에 보이지 않게 세우지만 박재형 씨의 경우는 집을 개축하게 되면서 뒷마당에 세워졌던 것이 현재처럼 밖으로 노출된 것이라고 한다. 박재형 씨의 경우 정월 보름에 '농사시루'라고 하여 시루떡을 해서 터줏가리에 제물로 바치며, 시월에도 '가을 떡'이라고 시루떡을 해서 터줏가리에 바친다. 터줏가리 안에는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는 도정하지 않은 나락이 담겨 있다. 시월 가을 고사를 할 때는 새로 추수한 나락으로 교체한다.

송정1리에는 예전 시화방조제가 생기기 전에는 당부리(혹은 꽃부리)라는 곳까지 물이 들어왔는데 이곳에 조세창고가 있었다.

또한, 이 당부리에서는 서낭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이곳에서 개인적으로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고사를 지낸 이유는 장마 때면 바닷물을 막아 놓은 제방이 터지는 것을 염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또한, 남양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움실(임씨터굴)'에도 서낭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sup>2)</sup>



## ● 단골

단골은 봉가리에서 왔다고 한다. 봉가리는 세습무가(世襲巫家)인 장 씨들이 사는 곳이었다. 다만 제보자의 경우는 원천리에서 왔다고 한다.

“단골은 박 서방네인가? 저기 봉가리에서 들어왔어. 나는 원천리에 시영 걸었었어. 원천리는 마나님 혼자 했어. 꼭대기인데 우리 어려서 하다가.”

그리고 노인회장님의 경우에는 슬항리의 애무당인 고건태 박수에게 시영을 걸었다고 한다.

조사자: 김규용 어르신은 그렇고, 노인회장님은 어디에 시영 거셨어요?

제보자: 슬항리. 애무당. 나보다 네 살 정도 위야. 일흔아홉이야. 죽었어.

조사자: 비야목 살 때 거신 거죠?

제보자: 그렇지. 슬항2리지.

“고건태 선생이 금당리에서 낳아서, 정씨네 집으로 장가들었는데 거기가 비야목이지. 그전에는 그랬다는 거야. 무당을 내리면 내력대로 내려오는 집도 있고, 또 딴 집 무당이 와서 신을 받아서 하는 집도 있고, 무당 내림이 약이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나중에 가서 다른데 물어보면 무당 신 내린다고, 그 사람이 또 아주 몇 년을 잘 불러 먹어요. 그래서 내림굿을 또 해줘야 돼.”

## ● 상달고사

“가을 떡 하면 팔으로 시루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대청에 갖다놓죠. 그다음에는 터주로 가고 그리고 장독 있으면 거기로 가고.”

## ● 업가리

“업가리도 있었지. 뱀도 있고, 인업도 있고 여러 가지야. 족제비 업. 하얀 나비처럼 하얀 게 나왔어. 족제비는 누렁지만 입은 하얗지.”

## ● 두곡리의 손각시(왕신)

웃하일에서는 두곡리의 손각시에 대한 민간신앙이 채록되었다. 손각시는 일명 처녀 귀신이다. 처녀 귀신이 붙으면 이를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이 민간의 풍속이고 신앙이었다. 손각시는 일명 ‘손말명’·‘왕신’·‘처녀 귀신’이라고도 한다. 혼기에 찬 처녀가 시집을 가지 못하고 죽어 한이 되어 악귀로 화하여 주로 자기 또래의 혼기에 차 있는 처녀에게 붙어 괴롭히고 해를 입힌다. 특히 왕신은 집안을 망치기까지 하여 특별히 가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마루 한 귀퉁이 벽에 작은 선반을 매고 그 위에 작은 오지단지나 나무상자를 신체로 모시거나 또는 문갑 같은 데에 왕신을 모시는데, 새로 집안에 들어오는 물건이 있으면 그 앞에 먼저 바친다. 가족 중에 출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먼저 왕신에게 고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는다고 한다.<sup>3)</sup>

두곡리 조 서방네가 모셔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손각시 신앙은 다음과 같다.

2) 『화성의 민속』 단골

3)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곡리 조 서방네가 새장사하다가 두곡리 고개 글판이 고개 넘어오는데 누가 손각시를 갖다 내버렸다는 거 아냐? 그게 아니야. 창식이가 베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손각시가 들려붙어서 떨어지지를 았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대. 다락에 놔는데, 그때는 배로 하는 거잖아. 여기서 물건을 싣고 나갔다가 인천에서 싣고 들어오고, 그러면 다락에서 소리가 난 대.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랬대. 풍선배로다가. 다락에서 운대. 그래서 짐을 싣고 떠났대. 아침에 인천에 갔다가. 저녁때는 총알같이 왔다는 거 아니야. 거기다 모셨으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면 가는 거지.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지. 실어 놔다가 소리가 나면 떠나라는 거지.”

조사자: 손각시가 우는 게, 지금 가서 팔면 잘 팔린다는 건가요?

제보자: 아니. 그때는 배가 바람으로 가는 거니까.

조사자: 배가 잘 간다는 거네요?

제보자: 그렇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딱 오고. 풍선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가면 물건도 잘 팔리고 당일치기한다는 거지. 풀어내버린 게. 그걸 다락에 갖다 모셨겠지. 풀어내버렸는데, 배에서 갖다 내 버렸는데 자꾸 들려붙으니까 이걸 안 되겠다고 생각 한 거지. 조 서방은 황해도에서 배 부릴 적에 캄캄하면 어디인지 모르잖아. 그럼 불을 흰히 비춰 준대.

“나도 봤어. 친구들하고 마도에서 술을 먹었어. 술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는 거를 술도 깰 겸 걸어가자고 했지. 뒤에 걸어가는 데 뭘 허연게 획 지나가. 나하고 한 사람만 봤어. 송신소 돌아다닐 적에, 태훈이도 흔났다는 데가 거기야. 지금 큰 도로 나서 그렇지.”

제보자: 임창익(남, 75세)노인회장, 김규용(남, 72세), 박춘옥(남, 73세)

## 09. 송정리(하일)

### • 단골무당

“하일에는 봉가리에 있는 큰 무당이 들어와 단골이 되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기억은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사자들의 그간 답사를 통하여 추정하건데 봉가리의 가계세습무인 장 씨들이 이 마을의 단골무당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칠석

하일에서는 ‘제석’을 ‘삼신할머니’라고도 했다. 일반적으로 칠월칠석에 제석 주머니의 쌀을 비워서 밥을 해먹고, 가을걷이를 한 다음에 상달 고사를 지내면서 다시 제석 주머니에 쌀을 채워 넣는다. 그런데 제보자께서는 선달 그믐에 제석 주머니의 쌀을 내서 밥을 해먹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는 기억의 착오일 것이다. 상달 고사를 지낸 다음 제석 주머니에 쌀을 채우는 것과의 혼동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칠석에 특별한 기억이 없으신 것으로 보아 제석신앙이 약하였거나 칠석의 의미가 축소되었던 지역이 아닐까 한다. 칠석날 비린 것을 금한다는 기억은 없고 다만 이날에 밀떡을 부쳐 먹는 정도의 기억뿐이다.

### • 기타

이 밖에 성주, 터주, 대감 신앙이 있었다고 하며 업가리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제보자: 강○○

## 10. 슬항1리(절골)

---

### • 단골무당

절골의 단골은 애무당. 고건태지요. 참 용하다고 그랬어요. 금당리인가 거기서 살다가 왔지. 내가 어렸을 땐 팔탄면 하저리가 우리 외가예요. 그런데 고건태가 하도 용하다고 하니까 날더러 외가로 데리고 오라고 해. 가서 점을 보니 까 참 용하다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한껏 반해서 쌀을 몇 말씩 갖다 주고 그랬어요. 내가 글 배우는 서당의 딸이, 옛날에는 부잣집이니까 금반지를 장롱 서랍에 넣어두고 잃어 버렸는데 그걸 못 찾은 거야. 그래서 고건태가 점을 보는데 누구누구 아무개 김 씨네 뭐가 어떻다고 막 그 가져간 사람을 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반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그게 무서우니까 얼른 빼다가 도로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금반지를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난리지.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갔지만 용하긴 용하다고 그랬어.

### • 인줄

아이를 낳으면 인줄을 거는데 아들을 낳으면 고추를 달아놓고 딸을 낳으면 고추를 빼고 숯만 달아 놓았다. 물을 떠 놓는 풍속은 없었다고 한다.

송아지를 낳으면 솔가지를 달아서 표를 하였다고도 한다.

“인줄. 아들은 고추를 달고. 딸은 안 달지. 물도 안 떠 놓고. 외양간에 송아지를 낳으면 솔가지는 달았어요. 부정이 있는 사람은 송아지 낳았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달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

제보자:이길선(남, 80세)

## 11. 슬항2리

---

### • 독고사

오산시 가수리에도 독고사를 지낸 자료가 조사되었고, 남양의 신남리에서도 독고사의 내용이 조사되었다. 슬항리에서도 장마로 인하여 개천의 물이 넘쳐서 논둑을 넘어 논으로 물이 쓸리지 말아달라는 기원에서 독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하천 무너지지 말고 논둑에 물 넘지 말라고 시루 갖다 놓고 빌기도 하지요, 여기는 그런 게 없지만 하천 있는 데는 정월 보름에 시루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그랬어.”

### • 단골무당

이 동네는 고건태 선생이 단골이었죠. 일부 딴 데로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동네에서는 별로 단골이라고 할 것도 없고. 고건태는 금당리가 고향이고 무당 되고 넘어왔어. 고건태가 처갓집에 살다가 세간 난 거지. 처갓집은 정씨네고.

### • 성주

성주대는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었죠. 굿 한 집은 다 성주대 있었어. 건테네에 다니던 사람은 다 성주대 있었고. 해당되는 때만 가서 돈 몇 푼 놓고 절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

## ● 터주

업가리는 없었고 터줏가리는 있었어. 업가리는 이엉으로 크게 해서 꼭대기에 터줏가리를 씌우는 거고, 터줏가리는 요만한 거고. 지금은 마을에 터줏가리도 없어요. 성주대도 없고.

## ● 인줄

인줄에는 남자아이의 경우는 고추를 달고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짚 방망이를 걸었다고 한다. 그리고 황토도 문 앞에 배설(排設)하였다.

“인줄은 왼매끼를 파서 여자는 그냥 달고, 남자는 고추를 달지. 여자는 그냥 짚으로만 틀어서 해 놓고. 안을 짚으로 두껍게 해서 셋을 달어. 남자는 고추를 달고 여자는 그냥 짚만 달아요. 짚방망이 그것도 왼 새끼를 파. 물은 떠 놓지 않았고. 황토는 세 군데로 뉘어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냥 아래만 쳐다보고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간 쳐다보는 사람은 인줄보고 알고. 그래서 예전에는 남의 집에 가면 우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들어갔다고.”

그리고 소가 새끼를 낳거나 돼지가 새끼를 낳아도 줄을 걸고 솔가지를 걸었다고 한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솔가지를 달아. 부정한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돼지새끼를 낳아도 솔가지를 달아 놓는데, 그냥 달수는 없으니까 왼 새끼를 파서 걸어놓는다고. 왼 새끼 줄을 걸고 솔가지를 걸어 놓는다고.

제보자 : 경○○(남, 75세)

## 12. 청원2리(수루지)

### ● 상달 고사

상달에 가을 떡을 하면 대청마루의 성주에 먼저 올리고, 부엌의 부뚜막, 우물, 장광, 외양간에 떡을 올렸다고 한다.

“옛날에는 가을 추수하고 가을 떡을 했어요. 시루를해서 이웃집에 나눠먹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물에도 갖다 뉘다가 얼마 후에 갖다 먹지요. 그때는 장독이고 어디고 다 갖다 뉘어요. 상달에 시루를 가장 먼저 갖다 놓은 곳은 대청마루였어요. 그때는 성주대도 있었어요. 그다음에는 부뚜막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터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에도 갖다 놓고 했지요. 장광에도 갖다놓고, 외양간에도 갖다 뉘요, 소가 큰 재산이니까.”

### ● 인줄

수루지에서는 인줄에 고추가 있으며 아들이고 딸은 고추는 빼고 숯만 달았다고 한다. 솔가지는 달기도 하고 달지 않기도 하였다. 물을 떠 놓거나 떠 놓지 않거나 남녀의 구분은 아니었다고 한다.

“아이들 낳았을 때 거는 줄을 인줄이라고 하죠. 아들과 딸을 구분하는데 아들은 고추 달고 숯 달고, 딸 낳으면 숯만 다는 거 같아요. 솔가지는 다는 사람이 있고 안 다는 사람이 있고, 솔가지는 부정한 사람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부정이라는 건 상주라던가, 인줄을 한 달까지는 달아 뉘요. 그 안에는 그런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보름 지나면 괜찮거든. 문간에 물을 떠 놓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아들 딸 다 떠 놓는데 차별을 두고 떠 놓지는 않고 그냥 똑같이 떠 놓더라고.”

소가 송아지 낳아도 송가지를 걸고, 물도 떠 놓았다고 하는데 이는 맑은 물로써 부정한 것을 맑게 한다는 의미였다고 한다.

### • 단골

“단골무당은 쌍송리. 김 씨. 거기가 경주김씨 촌이에서 왔어요. 산제사 드리는 것도 김 씨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거기는 옛날에 타성이 한 사람도 들어와 살지를 못했어요. 거시다고. 경주 김 씨네는 안양반이 했어요. 같이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 남편네들은 안 다녔어요.”

제보자 : 송기보(남, 72세)노인회장

## 13. 청원3리(청룡)

### • 인줄

명칭은 금줄, 인줄. 다 쓰지요. 그거는 상주가 들어오지 말라고 금줄을 치는 건데요 상주가 들어오면 부정 타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애기 낳고 애가 아파서 어디 가서 물어보면, 부정한 사람이 들어와서 인부정 뒀다고 그래요. 부정한 사람은 남의 초상집을 다녀온 사람이 들어오면 부정 타지요. 그런 사람들 막느라고 인줄을 다는 거지.

상재 들어왔다 나간 건 어떻게 귀신같이 아는지. 아이가 젖도 안 먹고 울어요. 우는 건 고사하고 아주 젖이 말라붙기도 하고요. 우리 넷째를 새벽에 낳았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옆집 동서끼리 시삼촌이 죽어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첫국밥도 안 먹었는데 애기 구경한다고 들어왔어요. 나 혼자서 낳고 들어앉아 있었는데 가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괜찮은데 애를 만지고 고추를 쓰다듬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만 젖이 말라붙더라고. 차츰 젖을 못 먹여. 아이가 백날이 되면 몽실몽실한데, 애가 그냥 바짝 말라서, 우리 넷째가 마흔 아홉인데 그때만 해도 우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누가 와서 하는 말이 서촌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 그 할머니가 크게는 안했어도 그래도 옹하다고 했다고. 사람 눈을 보더니, 아이가 백날이 넘었는데 바짝 마르고 젖도 안 난다고, 초상방에 들어갔던 날상주가 들어가서 아이 고추까지 만졌구나 하더라고요. 아예 들어가서 고추까지 만졌는데 아놈의 삼신이 어떻게 안 노하느냐고 하더라고. 백일 된 아이를 어쩔 수 없어 밥을 먹였어. 그때 쌀이 있어 뭐가 있어. 눌은밥을 해서 그걸 한 반 숟가락씩 먹였어. 그러니까 애가 자꾸 마르지. 그런데 서촌할머니가 뒷목에다 샘물을 떠다 놓고 바가지로 붓더니 “젖도 많이도 난다. 젖도 많이도 난다, 어쩔 젖이 이렇게 많이 나냐.” 그랬더니 젖이 좀 돌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여가지고 애를 살렸어. 경상도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금줄에 고추와 숯을 달아요. 딸을 낳으면 송가지와 숯구멍을 달아요. 그러나 경상도 상주 함창은 대동굿 할 때도 부정 타지 말라고 금줄을 다는데 그때는 종이를 오려서 줄에 달아요. 일주일동안 금줄을 쳐요. 초상집 다녀 온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나쁜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충청도 당진에서 왔는데 당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고추 달고, 송가지 달고, 숯 달고. 딸은 숯하고 송가지만 달아요. 물을 떠 놓거나 황토를 까는 것은 집에 고사 지낼 때엔 인줄 쳤을 때나 흙 퍼다 놓지. 공주도 비슷비슷해요. 황해도 연백이요. 인줄만 걸어놔요. 고추랑 그거는 똑같이 하고.

여기 화성에서는 인줄 달고 물 떠놓는 데가 있어요. 소가 새끼 낳으면 물 떠놓는 집이 있어요. 맞아요. 소가 새끼 낳으면 물 떠놔요. 그때는 특별히 가리는 것은 상문부정이죠. 소가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삼신은 사람삼신하고 똑같으니까. 소가 새끼 낳으면 인줄도 쳐요. 상주, 어디 초상집 간사람 들어올까 봐. 소가 부정이 많거든. 송아지 낳으면 인줄 쳐요.

그리고 물 한 동이 떠다 놓고 그래요. 꿈을 꾀도 소가 보이면 조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데. 소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이지 뭐야. 나는 그걸 헛 걸로 들었는데, 꿈을 꿔는데 꼭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청원3리 같은 경우는 본래 토박이는 없고 거의 다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예요.

### ● 농사점치기

농사를 점치는 방법은 소보고 알았대요. 오곡밥을 해서 소에게 갖다 줘요. 나물하고 밥하고 반찬을 가지가지 놓고 소 앞에 두면 소가 밥을 먹으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했어요. 우리 어릴 적에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했어. 사람은 못 먹어도 소는 반찬을 총위로 해서 갖다 준다고. 그럼 소가 나물 먹을 때 있고, 밥 먹을 때 있고 그래요. 소 먹는 거 보고 아는 거지.(경상도)

### ● 터줏항아리

경상도에서는 터주항아리에 쌀을 넣었어요. 그러나 여기는 다 벼 넣어 놔요.

### ● 업가리

연백에서도 업가리가 있는데 정월초하루에 업에다 메를 갖다 놓지요. 그냥 밥 한 그릇하고 물 한 그릇을 넣지요. 업가리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업은 가정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긴대업이 있었어요.

### ● 인업

경상도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인업이라고 했어요. 인업은 운이 달아야 들어오지요.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 불러서 밥해 놓고 빌고, 이름 성명 써서 이만한 바구니에 받아 두는 거지. 창호지로 싸서 깨끗하게 모시는 거지. 방에도 모시고, 밖에도 모시고 했어요.

터주가 다르고, 인업이 다르니까 긴 대업은 밖에 터주 옆에 모시고 인업은 방에다가 모셨다.

제보자: 인업의 종류는 가정마다 다르지요. 조상 드는 수가 있어요. 업으로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조사자: 대감으로 조상이 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업으로 조상이 든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아니. 대감으로도 들지만, 업도 들어요. 도깨비 업도 있는데 도깨비 업이 부자 되지요. 도깨비 업이 정한 집은 상달이고. 도깨비 업은 잘 사귀어야지 못 사귀면 망해. 하루아침에 망해요. 도깨비 업을 잘 못 사귀면 자갈을 들이붓는대요. 도깨비 업이 들어서 재산이 들어서 그걸로 땅을 사면 자기 대접을 안 한다고 심술을 놓는대요. 그럼 네 구탱이에다가 말뚝을 영차영차 박아서 떼어 간대요. 그게 떼어가져요? 도깨비장난이지.”

“여기도(청원3리) 옛날에 도깨비 있었어요. 나도 도깨비불을 흔하게 봤어요. 저 산모탱이에서 집채 같은 불이 자주 보였는데 가지도 않고 둥글둥글 가는데 시퍼런 불이 흘러요. 여기 삼거리에 와서는 절반이 똑 잘리더니 뒤돌아가요. 그리고는 저리 가서는 사라지더라고. 또 거기서 집채 같은 게 시퍼런 불이, 출출출 불이 흐르더라고, 또 절반이 잘리면 뒤돌아서 갯바닥으로 돌아가고.”

제보자 : 김주현(여, 80세, 경상도), 김순덕(여, 74세, 공주), 변선관(여, 84세, 황해도 연백), 박선분(여, 86세, 당진)

## 14. 청원4리

### • 천신(薦新)

우리도 아버님이 참외밭에 터줏가리를 세웠는데 참외 처음 따는 날 하나를 따도 큰 바구니에 따지. 참외 많이 따게 해달라고 따다 놓고 천신 했다고, 그리고 밀장국해서 먹고.

제보자:총무(남, 75세), 전 면장

## 15. 해문1리(해문)

### • 서신 당성의 서낭

굴고개는 옛날에 굴을 많이 따다가 껍질을 자주 버려서 그렇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런 낭설은 들었어요.

서신하고 송산하고 구봉산, 당성이 있어요. 그냥 당이 서낭당 비슷하게 산에 어느 만신이 거길 위하고, 터줏가리가 있었어요. 작은 게 아니고 크게 해서 나무를 모셨었죠. 그걸 당신이라고 모셨죠. 하여간 그 당은 우리도 어려서 봤으니까, 문화류씨네 만신이 당 너머에 계셨거든요. 돌망할머니. 그 할머니가 모신 거야. 나무도 큰 게 있었고, 참나무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양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른들 말씀이 그게 당길이라고 해서 금당리 소고지, 역굴 이런 데서 그 마을로 말을 타고 가면 내려서 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말을 타고 거기를 지나가면 말굽이 붙어서 안 떨어졌다고 이런 얘기도 우리 어려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말에서 내려서 갔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지금은 선암목은 없지만 해마다 터줏가리를 크게 하고 왼 새끼 파서 두르고 색색이 천하고 종이를 해 놓은 것을 우리도 봤어요.

그 서낭당 돌망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차츰 없어졌다. 마을에서 선암목을 모시는 양반은 같은 집안이라도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의 소유가 문화류씨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유주 되시는 분이 약주를 잔뜩 잡숫고 가셔서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니가 영험하면 나를 죽일 것이고, 벌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라고 그랬지요. 돌망할머니가 쓸데없이 여기 와서 푸닥거리한다고 싫어했지. 그런 건 나도 봤어요. 자기네 소유 땅인데 자꾸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런 거지. 그러다 돌망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6.25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60년가량 되었지요.

### • 상달 고사

예전에 상달 고사를 지낼 때는 시루를 성주대가 있는 대청에 먼저 올리고 류안수 떠 놓고 절을 했다. 그런 다음 떡을 잘라서 방이나 광. 또는 온 집안에 한 접시씩 갖다 놓는다.

### • 터줏가리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터줏가리에 올리는 시루는 따로 하지요. 하얀 백설기에 통팔을 올려서 쪄요.

### • 업가리

우리 친정에는 업가리가 있었는데 족제비업이라는 업가리가 있었어요. 족제비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보자: 최도영(남, 73세)노인회장, 허순범(여, 76세)부부

## 16. 해문2리(아랫말, 회룡곡)

---

### • 단골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무당들이 와서 산고사 엄청 많이 지냈지. 딴 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내고 가나 봐.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무당은 작두만신이라고 있었고, 다음으로 아랫말 비야목의 슬항리2리에 살았던 애무당이 유명했지. 슬항리에 살기 이전에는 금당리에 살았었지. 아버지가 어려웠어. 여기 와서 정착해서 사당을 짓고 한 참 불 일어나듯 했지. 그때 가서 하루 굶하고 오면 땅을 다섯 마지기씩 살 때니까 엄청 벌었지. 무당들이 산고사를 지냈지. 그 사람 아니고도 딴 무당들도 한 10년 전까지 와서 자기 고사를 지냈다고.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수원에서도 왔다고, 바위 밑창에 여우마당이라고 있어. 그 밑창에 돌이 한, 중간에 돌이 한 다섯평 여섯평 평평한 자리가 있어. 또 여우물이라고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고, 정상은 한 암벽이 한 20미터 되고, 정상에는 떼가 한 300평 정도가 펼쳐있고 좋았었어. 그게 우리 산인데 개발한다고 그래서 아카시아나무 참나무가 전부 들어섰어. 저 산을 건드리거나, 저 산의 돌을 건드리면, 집안에 화가 있고 그렇대. 거기 있는 걸 건드리지 않고 위하기만 했어.

몇몇 분들은 지금으로 치면 한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기 떡시루 지고 올라갔다가 제사 지내고 내려오시고 그랬어. 그리고 삼색 과일하고 촛불 켜놓고 내려온 걸 봤어. 그걸로 보면 옛날에 거기 뭐가 있긴 있었나 봐. 그리고 옛날에 다들 이 산을 위했다고 하더라고.

### • 금줄

여기서는 아기를 낳으면 인줄이라고 하고 아들은 고추를 달지. 인줄 세 개 외로 짜서 고추를 칸칸이 달고, 딸은 숯을 걸고, 그런데 아들은 거기다 고추를 하나씩 더 다는 거지.

송아지를 낳으면 솔가지만 달지.

제보자: 홍순용(남, 63세)노인회 총무

# 4. 민간요법

## 01. 고모리

### •삼

삼이 서면 해가 떠오르는 시각에 빨간 팔로 삼이 선 눈을 비빈다. 그다음에 물을 떠 놓은 그릇에 떨어트린다. 그러면 팔에 하얀 방울이 생기는데 그 물방울을 바늘로 콧는다. 그러면 물방울이 없어진다. 그러면 삼이 잡히는 것이라고 한다.

“삼이 섰을 적에는 해 뜨는 데서. 빨간 팔을 비벼가지고, 물에 떨어뜨리면, 방울이 똑 지더라고, 거품이. 물 떠 놓은 데다 십자가 선 곳에다가 물 해놓고, 바늘로 어디를 찌어 복판에다가. 십자 된 복판에다가 찌어놓고, 빨간 팔로 눈을 비빈 다음에, 그걸 떨어뜨려요. 물에다 떨어뜨리면, 하얀 게 방울이 지더라고. 그러면, 삼이 잡힌 거래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길바닥에 삼선 사람의 형상을 동쪽으로 향해서 그린다. 그때는 다른 사람을 한 명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에게 가시나무의 가시로 삼 선 사람의 삼이 선 눈에다가 거꾸로 콧는다. 그렇게 하고서는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삼이 나왔다고 한다.

“또 길바닥에다가 사람을 그려놓고서, 그걸 동쪽으로 향해서 해요. 나는 삼 섰을 적에, 딴 사람이 데리고 가서, 가시 나무 있잖아요. 찔레 가시. 동쪽을 보고 앉아 있으면, 가장자리를 넘겨가지고. 앉아 있으면 가시가 눈에 있을 것 아니며, 가시 부튼 것, 그걸 빼서 거꾸로 박더라고. 가시 붙은 것, 요걸 빼가지고, 거꾸로 박아요.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데리고 가더라고, 그렇게 하면 낫더라고.”

### •다래끼

눈에 다래끼가 나면 저고리의 안자락을 실로 감는다. 그렇게 하면 나왔다. 그리고 눈썹을 뽑아서 돌 위에다가 놓고 다른 돌로 덮는다.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이 그 돌을 발로 차서 무너트리면 다래끼가 나왔다고 한다.

“다래끼가 그거라니까. 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은 보루지는 눈애가 눈알 동자에 솟는 거고, 다래끼는, 부시럼이 나서 굼아 터지잖아. 그때는 시작하기 전에. 저고리 안자락에 실로 감아요. 그렇게 하면 낫더라고요. 다래끼가 나면 새우젓도 못 먹게 했죠. 일체 비린 음식은 못 먹게 하고. 눈썹을 뽑아서 돌 위에다가 놓고, 돌을 얹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얘기를 들어봤어요. 삼 잡는 것은 그림을 다 그리는 것 같아. 뉘어놓고, 사람대로 그리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밟고 가면은 다래끼가 옮겨간다는 거지.”

### •하루거리

하루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고층에서 절하기, 명석으로 말아서 뉘이고 소를 넘기기, 할미꽃을 비벼서 코에다 대고 재채기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하루거리는 남의 고춧에 가서 절하고, 재주넘고 또는 소를 가지고 멍석 말아서, 소를 넘기는 거여. 하루거리는 하루 앓고, 하루걸이가 쇠어 버리면 옛날에 궁리산, 지금의 마이신 먹으면 낫잖아. 할미꽃이 되게 독하잖아. 그러면, 코에 다가 대고 있으면, 재채기가 나와요. 그렇게도 떼고, 여러 가지지 뭐.”

### ● 며느리고금

하루거리가 심하여 며느리고금이 된다. 며느리고금은 주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던 여자들에게 많이 걸리는 것이다.

“하루 고생해서 하루거리고. 날마다 하는 것이, 하루 모냥 떨고 앉더라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떼를 떠다가 불 부뚜막 에다가 데려다 놓고서, 떼를 떠다 고춧가루하고, 불을 떠다 놓고는 두란에 가서 굴뚝장군을 부르는데. 굴뚝 장군을 불러서 이러면 또 괜찮아. 떼는 손 없는 데서, 떼를 3개 놓고, 솔 뒤에다가 놓고, 솔 뒤에다가 놓고 3개를 놓고, 벽면 에다가. 거기다가 참깨하고, 고춧가루를 각각 뿌려요 한 대. 개똥탄내가 나면, 바로 잡히는 거래요.”

### ● 목살

“목살은 풀이를 해야 낫잖아요. 목살 읽는 것은 봤어. 막대기에다가, 양쪽에 달리고 편편하게. 명주실 두툼하게 감고. 그게 도투마리예요. 그래가지고 도투마리 갖다 놓고, 복숭아나못가지로 두드리는 거예요. 경만 읽고 나면, 며칠 하잖아. 귀신 잡는 거여.”

“나무를 베잖아요. 바로 거기다가 나무를 열십자로 굿고, 후추를 가운데다 박더라고, 벽에도 마음대로 못도 못 박았 어요. 목살이 나니까 탈이 나서.”

### ● 뜯거

“뜯거는 죽 씹가지고 풀어야지. 그럴 때는 어떻게 푸냐하면. 우거지 넣고, 애가 새벽이면, 별안간 앓더라고. 젓먹이가. 그래서 침에는 모르고 동네 의사를 불러다 했는데, 괜찮더라고, 그때 되면, 봄이면 날 굿고, 비가 부실부실 오면, 별안간 애가 또 앓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가서 찬밥 있는데다 된장 풀어놓고, 김치 좀 쓸어놓고, 해서, 냄새가 들어 오더라고, 끓는 냄새가. 그래서 애가 너그룩 하더라고. 노인네들 하는 것 봐서, 머리 씻고, 애한테 머리 좀 씻고, 손 없는데다가 칼 가지고 가서, 집어 던지는 거지. 쏟아버리는 거지, 나 혼자서 못했어. 영감도 데리고 갔어.”

“칼을 집어 던져서, 칼끝이 나가야 나가는 거고,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래요. 한번 집어 던지니까, 안 나가더라고, 또 집어 던졌더니 나가더라고, 칼 세 번을 던지고서 왼 발을 세 번 구르고, 침을 뱉고, 바가지를 얹어 놓고, 바가지 그 이튿날 가지러 가기도 싫어.”

### ● 금기

손 있는 쪽으로 못 박으면, 눈에 다래끼 걸린다.

애기 낳고, 산방(産房)에서 못을 박으면, 애가 눈이 먼다. 사팔뜨기 된다.

옛날엔 임신(妊娠) 중 오리 고기 먹으면 손가락이 붙는다고 그랬어.

음식을 맘대로 못 먹었잖아.



## ● 홍역

홍역을 앓게 되면 냇가에 가서 산 가재를 잡아다가 다스렸다고 한다. 산 가재를 잡아다가 살아있는 상태로 찢는다. 그러면 가재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것을 짜 먹으면 낫는다고 전한다.

왜 가재로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로 보면 가재가 뒤로 가기 때문에 열이 내릴 것이라는 유감주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 마마

‘마마’는 천연두를 높여 부르는 것이다. 마마가 들면 3일간 열이 오르고, 3일이 지나면 열이 오른 자리가 거뭇거뭇해지고 물집이 잡힌다. 다시 3일이 지나면 물집은 더욱 검게 변하고 딱지가 앉고 검게 흉터가 남는다. 이를 물리는 방법은 외할머니가 가서 빌어야 손님마마를 내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마마가 걸리는 이유는 부정을 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예로 개를 잘 못 잡아와서 집안 식구 가운데 마마가 걸린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마마 들어오면 그것은 부정을 많이 타니까, 전염이 됐잖아. 열이 오르고 3일 앓더니, 솟더라. 3일 동안은 솟고, 3일 지나면, 거뭇거뭇하니, 길게 물 잡힌 것처럼 돼서, 데인 것처럼. 전 부 다. 6일 지나니까 꺼뭇거뭇 해지더라구, 누런 게, 딱지가 지더라고, 난, 그걸 젓 먹이면서 떼어 줘서... 그랬더니, 흉터가 졌어. 몸은 깨끗한데. 손님이 잘 가도록 하도록. 비는데 손님 할머니 그 외할머니가 가더니, 금방 앓았지 뭐여. 노여우니까, 손님 할머니 해가지고 푸나봐. 그건 모르고 그냥 빈대요. 옛날엔 말을 막 못했잖아요. 개 잡으면, 그 집에 들어가면, 개 잡은 시늉을 하고 그랬대. 옛날에, 개잡아 가지고 면장이 들어와 가지고, 마마 자국이래.”

## ● 제것

제것은 하루거리와 비슷하지만 더 심각한 질환이다. 제것에 걸리면 똥도 파랗게 누다.

“제것도 하루거리 마냥, 애가 앓잖아. 손을 따잖아. 왜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똥도 파랗게 누고. 애들이 잘 걸리죠. 그게 따면 괜찮고. 우리 딸을 보니까, 한참 새파랗게 올라가더니, 침 쥐야 하는데, 쇠해서 바보도 되고, 죽기도 하고 간질하고.”

## ● 경기(驚氣)

눈이 뒤집어지면서 까무라치는 것을 경기한다고 한다. 제것이 쇠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것도 여러 가지여. 제것이 쇠어 가지고 그런 것 아니여? 그건 달려. 눈 뒤집어지고 그런 것 아니여. 열만 있으면 경기 해요.”

## ● 간기

“간기도 우는 간기도 있고, 자는 간기도 있는데 자는 건 못 고쳐요. 우는 간기는 고치고. 맨 날 잠만 자니가, 못 고치고, 우는 간기는 고치고.”

- 상문

옛날 상갓집 다녀오면, 상문이 드는데 그것도 풀어낸 데요. 죽썩가지고. 탈났을 때나 마찬가지로. 상문 들었으면, 색시 만지지도 않고, 집안에 들었으면, 가마가 색시 들어왔을 때, 들어서지도 못하게 그랬잖아.

제보자 : 신기분(여, 85세), 양애숙(여, 80세)

## 02. 금당1리

---

- 삼

눈에 삼이 서면은 삼 선 사람의 모양을 벽에 그려놓고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바늘로 삼이 선 눈을 꼭 찔러가지고 잡았다. 마을마다 삼을 잘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 하루거리

하루거리가 걸리면 침을 맞았다. 딱히 어느 부위에 놓는 것은 아니었고 여기저기에 침을 놓는다.

- 두드러기

음식 잘못 먹고 두드러기 나면 변소 추녀에 썩은새를 빼서 불을 붙인다. 그리고 그 연기를 쏘이면서 소금도 끼얹었다. 그러면서 노인네들이 두드러기 없어지라고 진언을 하는데 “중도 고기 먹냐, 중도 고기 먹야.”고 했다.

- 홍역

옛날에는 홍역을 앓다가도 많이 죽었다고 한다. 홍역을 잡는 방법은 가재를 잡아다가 다려서 삶은 물을 먹으면 나왔다고 한다.

- 며느리고금

며느리고금은 하루거리가 쇠어서 매일 앓는 병이다. 하루거리는 하루를 걸러서 춥고 아프지만 며느리고금은 매일 춥고 아픈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침을 빨기도 하고 하는 방법으로 며느리고금을 다스렸다.

- 경기

경끼(경기)하면 오리 고기를 먹인다. 경기는 간질과 비슷한 증상으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오리고기를 먹이면 나왔다고 한다.

- 오줌싸개

오줌 싸면 키 쓰고 소금 얻으러 다녔지. 그러면 ‘이놈아 오줌 싼구나.’ 하시면서 소금을 줘요 그러면 떨어져요. 이 방법은 아이를 무안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오줌을 싸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키를 씌우는 것은 키가 알곡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을 걸러내는 것과 같이 나쁜 습관도 걸러내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제보자 : 이제천(남, 76세)

### 03. 금당2리(금당곡)

#### ● 임신 중 금기

- 임신 중에 닭뼈를 먹으면 미(뼈)가 나온다.
- 부개(복어)를 두드려 끓여 먹으면 잔등이 부스럼으로 흉지게 된다.
- 석 달 동안 김치도 비뚤어진 것은 못 먹게 했다.
- 개국 먹으면 띠아리 더럽다. 형제간 우애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 아끼지 말고 먹으라 했다. 보릿고개 때 충분히 먹기가 조심스러워서 보리 탈곡한 볍씨 2알을 집어먹었더니 애가 등에 부스럼이 난 채로 태어났다. 따보니 감자씨처럼 생긴 것이 나오더라.

#### ● 삼

눈에 삼 서면 특별히 삼을 잡는 남자가 따로 있었다. 삼을 잡는 사람은 가시덤불에 삼 선 사람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가지를 따 가지고 눈에다 대고 뭐라고 진언을 하며 가시를 내민다. 그것은 그 삼을 때리는 절로다가 생각을 하고 진언을 한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뜰 때 식전에 행한다.

#### ● 하루거리

하루거리는 하루걸러 앓는 것으로 하루거리에 걸린 사람을 놀라게 하여 잡는 방법이 있다.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의 언덕이나 낭떨어지 같은 곳에서 하루거리에 걸린 사람을 떠민다. 그러면 놀라서 하루거리가 떨어졌다고 한다.

“하루거리는 하루만 걸리는 거지? 하루 걸면서 아픈 거 하루거리도 잡는 놈이 있어요. 잡는 식도 있지만, 하루거리 걸린 사람도 놀래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을 놀라게끔 해주면 하루거리가 떨어진다는 거야. 어떻게 놀라게 하느냐면 그냥 낭떠러지에 떠민다던지, 억지로 죽지 않을 정도 곳애다가 떠민다던지, 그럼 놀라잖아. 그리고 거짓말도. 너희 어머니가 죽었다고 하던지,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놀래잖아. 거짓말을 하는 거지. 하루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며느리 고금이라 부르지 며느리 고금 잡는 방법은 몰라.”

#### ● 두드러기

두드러기가 올라오면 아궁이들 앞에 가서 할머니들이 벗겨놓고 빗자루로 쓸어내려. 쓸어내리면서 뭐라고 진언을 해요. “중도 괴기 먹냐, 중도 괴기 먹냐.” 그렇게 진언을 하지 몸에 소금도 끼얹고. 썩은새로다가 연기내서 떼기도 하고.

제보자 : 오○○(남, 80세)

#### ● 삼

밴댕이 대가리를 떼어서 아침에 해 돋을 적에 기대고, 해가 막 발갈게 솟아오르잖아요. 그럼 밴댕이를 들고 햇빛에 비춰요. 삼을 앓으면 눈물이 나서 해를 쳐다보지 못해요. 자꾸 쳐다보라고 하고 낭독을 하고 바늘을 밴댕이 눈에 꽂아요. 삼 선 눈에 낭독을 하고 벽에 그대로 꽂아 놔요. 그러면 잡혀요.

● **다래끼**

다락지는 차돌멩이 하얀 걸 주워서 눈에 축언을 하고 눈썹을 뽑아서 돌멩이에 붙여서 길에 놔둬요. 그럼 다음번에 그거 걷어차고 가는 사람한테 물어간대요.

● **두드러기**

화장실 지붕, 짚으로 엮은 석은새를 뽑아다가 애를 빨가벗겨요. 지푸라기로 두드러기 난데를 쓸어 내려요. 그거 역시 도 축언을 해요. 불을 붙이고 연기를 빙빙 돌려서 씹게 했어요. 그게 귀신같이 잘 들어요. “중이 고기 먹는 걸 봤나?” 그러기도 하고,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 **목살**

동네에 나이자신 목살꾼이 있어요. 성이 각각인 셋을 불러서 씨레라고 있어요. 그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푸는 거야. 목살을 읽는 거야. 왼 새끼 파서 매고, 엄나무 잘라서 왼 새끼 파서 매고 복숭아채로 두들겨 패요. 서른 번을 낭독을 해야 돼. 저 사람이 열 번, 내가 열 번, 이 사람이 열 번, 돌아가면서 읽어. 그 책이 우리도 있었는데 어디 갔어. 세간 을 저쪽으로 옮겨 나도 탓이 나고, 또 남이 쓰던 걸 들여와도 탓이 나고.

● **며느리고금**

며느리보금이라고 그건 또 굴뚝에 가서 해요. 굴뚝에 가서 축언을 해요. 으슬으슬 춥고 때만 되면 앓는 거야.

● **하루거리**

하루거리도 있지. 하루거리는 하루 걸러서 앓고, 낮에 앓고, 며느리보금은 시도 때도 없이 앓는 거야. 하루거리를 풀려면 멍석에 사람을 말아. 소를 끌고 가. 소가 안 밟아. 소가 멍석을 넘어가. 그렇게도 하고 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무덤, 거기 아침에 해 돋기 전에 가서 재주를 세 번 넘어.

● **제것**

제것은 어린애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제것은 손마디를 따서 고쳤어요. 따면 까만 피가 나와요. 그럼 고치는 건데. 시방으로 따지면 영양실조예요.

● **간기**

간기도 애들이 걸리지. 애가 기절을 하고 깜짝 놀라는데 간기도 손마디를 따. 그것도 까만 피가 나와.

● **흉역**

흉역은 그게, 여기 가장굴이 있어요. 금당리 가장굴은 글자 그대로예요. 가장(假葬)한다는, 거기에 애장 묻은 게 한 30개는 되었어요. 흉역 걸리면 그냥 다 몰살이야. 열 명이면 세 명 살기가 어려워요. 그냥 거기다 갖다 묻는 거야. 처방은 없어. 가재 찢어서 먹이고 그랬어.

제보자 : 성충용(남, 72세)

## 04. 두곡1리(고잔)

### ● 목살

목살은 나무를 잘 못 베어서 발생하였다. 나무를 베는 사람도 걸릴 수 있지만, 나무를 베지는 않았어도 집안 식구 가운데에서도 목살에 걸릴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흙을 잘 못 건드리면 토살이 나고, 돌을 잘 못 건드리면 석살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모두 만물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목살이 나면 경을 읽어서 풀어내었다. 목살경을 읽을 때는 도투마리에 엄나무를 묶는다. 그리고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각성반이로 읽는다. 목살경을 읽을 때에는 복숭아 가지를 꺾어다가 도투마리를 때리면서 읽는데 대체로 저녁에 읽었다고 한다.

### ● 삼

눈에 삼이 서면 “밴댕이 놓고, 화상(삼 선 사람의 얼굴)을 그려 놓고 바늘로 밴댕이 눈을 찌르지. 그게 방식이지. 삼 잡는 (방법) 그것도 여러 가지야. 바늘로 손톱을 찌르기도 하고 그래.”

### ● 두드러기

두드러기는 초가집 굴뚝 모퉁이 짚을 빼다가 마당에서 불을 놓지 그리고는 옷을 벗겨 놓고 “중도 고기 먹더냐”, 하면서 소금을 뿌려가면서 빗자루로 쓸어준다.

### ● 하루거리

예전에는 하루거리도 많이 걸렸지 그거는 대중없어. 어느 날 어머니가 우리 아우가 하루거리를 어떻게나 앓는지, 은행나무 있는 삼거리 있잖아. 거기 시루떡을 다 갖다 냈었어. 하루거리 떴다고. 갖다 놓기만 했지. 비는 건 몰라. 거기가 삼거리니까 거기 가서 한 거지.

### ● 홍역

홍역은 그거는 산골에 있는 산 가재를 잡아서 그걸 달여서 먹이는 수밖에 없어요. 홍역에는 그게 제일 좋다고 해서 잡아다가 달여서 먹인 거지.

### ● 제것

제것은 손마디를 찌서 짜면 비지 같은 게 나와. 그걸 짜면 나아.

### ● 밤똥

그거는 화장실 밤에 가니까 닭보고 절 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지역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닭장 앞에서 “닭이나 밤똥 누지 사람이 밤똥 누냐? 닭이나 밤똥 누지 사람이 밤똥 누냐?” 고 하면서 절을 세 번 하면 밤에 뒷간을 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제보자 : 조문희(남, 85세), 김정숙(여, 86세)

## 05. 백곡1리

---

### •삼

삼은 담벼락에 자기키만큼 붓으로 얼굴을 그려서 바늘로 눈에 찍어. 밴딩이 눈을 삼 선 사람의 눈에 대고 바늘로 찌러 놓으면 가시눈이 낫는다고 그러데. 바늘로 그려 놓은 그림에 찍어. 삼 선 눈 쪽에 갖다 꽃더라고.

### •두드러기

두드러기는 소금으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서 솔가지를 뭉쳐가지고 소금물을 묻혀서 몸을 쓸어내리시더라고요. 그럼 괜찮아져요.

### •목살

목살은 그건 목살경을 읽잖아. 나도 그걸 읽으러 다녔어. “천자목신 목귀살신/ 나무동방 나무남방/ 나무서방 나무 북방/ 목귀살신” 그런다고. 김 씨면 김 씨 성을 넣고, 남자가 아플 때는 건명, 여자가 아플 때는 곤명. 건곤으로 따지는 거라고, 하늘은 남자고 여자는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김 씨 본명 침범한 재목재단을 물리친다고. 그러면서 너까래를 갖다 놓고 회초리로 패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게 목살이면 낫는 거야.

### •하루거리

하루거리도 많이 앓았지. 하루거리가 이맘때면 많이 앓았어. 그거는 봉변을 주면 낫데요. 나도 어려서 키를 써 봤는데 산소에 가서 재주를 세 번 넘으라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지게를 거꾸로 지고 가서 재주를 넘으라고 그래. 그게 재주를 넘을 수가 있어요? 키를 지고 재주를 넘는다고 넘긴 넘어. 그러면 따라 올라간 어른이 저놈이 도둑질을 했다고 소리를 쳐. 멍석말이도 했어요. 사람들이 밟는 것처럼 넘어 다니고 그랬다고요. 소도 넘긴다고. 소가 펄쩍 뛰고 넘어더라고, 그러니까 하루거리가 떨어져요.

### •태열

그리고 아이의 태열을 치료하기 위하여 태하고 삼짚은 태워서 보관한다는 풍속도 조사되었다.

“삼짚을 깔고 아이를 낳으면 삼짚하고 태하고 같이 태우죠. 태워진 까만 태를 보자기에 싸서 보관하는데. 애들이 태열 할 때 들기름에 개서 바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보자 : 김창연(남, 77세)

## 06. 백곡2리(정북동)

---

### •삼

손 바른 날 집에 못을 박으면 삼 선다고 한다. 삼을 풀게 하려면 박았던 못을 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낫게 된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은 해가 뜰 무렵 해돋이에 담벼락에 얼굴을 그려놓고 눈동자에 못을 박는다. 그렇게 삼을 잡는다.



● 다래끼

삼과 다래끼는 다르다. 다래끼는 눈 위에 나는 것이고, 삼 서는 건 동자에 서는 것이다. 다래끼를 낫게 하려면 눈썹을 뽑으면 된다.

● 두드러기

“뭘, 잘못 먹어서 애들 두드러기가 나면 간단하잖아. 짬을 지붕에서 뽑는 게 아니라, 변소간 지붕에서 뽑아서 불을 붙여서 연기를 내. 그리고는 환자를 마당에 세워놓고 가랑이를 벌리고 서게 한 다음 연기가 온몸에 오르게 해요. 짬 방망이를 갖다 대면서, 중도 고기 먹더냐? 그러면서 비로 쓰는 거야. 그럼 금방 나아요.”

“친정어머니는 술을 담그는 항아리 소독을 할 때도 변소 그 지붕 석은새를 뽑아다 불을 놓고 항아리를 찌여 술을 담그시더라.”

● 목살

목살은 나무를 잘 못 건드려서 걸리는데 그때는 목살경을 읽는다. 목살경은 12절이 있는데 ‘작수. 목수...’ 이렇게 시작한다. 이때 각성바지 세분이 복숭아 나무채로 절구대를 두드리면서 목살경을 읽는다.

● 하루거리

“옛날에는 하루거리를 많이 앓았다. 그것은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먹거나 하게 되어 영양부족으로 생기기도 한다. 하루거리는 환자를 멍석에 둘둘 말고서 소에게 넘겨 놀라게 한다. 그러면, 겁나니까 뚝! 떨어진다는 거지. 또 다른 방법은 고산뿌리를 짓 이겨서 코에 대면 피가 금방 나오거든. 그리고, 할미꽃. 그것도 그렇게 독해요. 피만 쏟으면 하루거리가 낫는다고.”

● 며느리고금

“며느리보금은 코피만 나면 다 낫는다고. 고총에서 재주도 넘는다. 우리들은 성냥곽이라고 그걸 주면서, 어머니가 돌 틈에 쥐며느리 같은 게 땡겨. 그걸 잡아오래서 그걸 먹으래서 먹으니까, 낫더라고.”

● 밤똥

옛날에는 화장실 가기가 무서우니까, 닭장에 가서 빌기도 했는데 저녁에 똥을 누면, 닭은 밤에 똥을 안 누니까, “닭도 똥 안 누는데, 사람이 누냐?”고 그러면서 닭장에 절을 하면은 밤에 똥을 안 누는 거지.

● 흥역

“흥역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을 ‘앞시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도돌도돌 돌는다. 그게 부시럼이 되더라고요. 저기 산에 가면 물개구렁에 산가재가 있어요. 그거 갖다가 찢어가지고 먹으면 우리는 그거 먹었어요. 우리는 4남매인데, 4남매가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근데, 둘은 일어나고, 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먹고 나왔어요.”

● 마마

“마마는 손님이라고도 한다. 마마를 처방하려면 옛날엔 할머니들이 떡시루 해가지고 손님 좀 편안하게 잘 가세요. 했다고 그러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떼곰보 다 되니까.”

- 제것

제것은 배 아픈 것으로 배속에 회충이 많이 든거지. 손바닥을 따면 하얀 비지 같은 게 나와요. 약 6개월, 1년 된 애들 손에 보면 파란 줄이 있는데. 그것을 따면 비지가 나와. 그걸 짜면 금방 나아.

- 간기·제것

간기는 몸땀이 간하고 관계가 있고, '배아피'는 위장하고 관계가 있고. 손을 둘 다 따다고 그러는데 간기 걸렸을 때 손을 따면 비지가 나와.

제것은 배가 아픈 거고, 간기는 간이 아픈 거고. 간이 아픈데, 드러누워서 자. 간기는 그냥 잠만 자고. 자는 간기가 있고. 밤낮으로 우는 간기도 있고, 제것은 속이 아픈 거여.

- 횃배

횃배가 그거여. 제것이라고 그러다고. 얼굴이 노랗게 띠를 둘러서 등에 업고 가면 띠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나지.

- 역병

옆 마을에서 역병이 돈다고 하면, 우리 마을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쑥불 놓고 그랬지.

제보자 : 양형직(남, 81세), 양영주(남, 74세), 지기분(여, 76세)

## 07. 쌍송1리(솔티)

---

- 두드러기

두드러기는 쑥을 달여 먹고 그러지. 아니면 육모초를 다려 먹기도 하고 그러지. 또한, 발가벗겨서 소금 뿌리면서 불 옆에 세워두고. 뒷간 추녀 빼서 하는 거죠. 뒷간 석은새를 빼서 해야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중도 고기 먹더냐? 그러면서 귀신을 내 쫓는 것이지.

- 삼

해 뜰 적에 주발에 물 떠놓고, 뭐라고 진언을 하는 건데 모르지. 팔을 물에 떨어트려요.

- 하루거리

하루거리는 해 뜨기 전에 침 맞고 궁리산 맞고 그랬지. 그거는 근래지. 하루거리는 식전에 산에 올라가서 비석하고 씨름하고 그랬지. 그게 운동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지. 기운내라고.

제보자 : 권진양(남, 74세), 배원분(여, 69세)부부

## 08. 쌍송1리(방죽안말)

---

- 하루거리

하루거리 걸리면 할머니가 별안간 자는데 물을 끼얹어. 놀라서 떨어지라고 하는 거지. 고춧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재주를 세 번 넘기고. 그리고 쌍 산소, 산소가 나란히 둘 있으면 그 가운데 가서 거기 엎드리라고 그러고, 재주넘고, 동네 사람이 다 봤다고. 그러면서 창피하라고 소리치고. 또는 집에서 떠날 때 왼 새끼 파서 허리에 매고 데리고 가요. 거기 가서 재주넘고 왼 새끼를 거기다 풀어 놓고 산소에다, 그리고 내려 올 때는 또 저기 다른 길로 내려와요. 간 길로 안 오고 한참 돌아와요.

#### • 두드러기

상한 음식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면 비로 쓸지. 그러면서 변소 추녀 끝 지푸라기, 이엉 썩은 거를 불 때고, 중도 고기 먹더냐.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불 짚어 가면서 빗자루로 쓸어요.

#### • 삼

눈에 삼이 서면 삼을 잡아요. 해 오를 때 담벼락에 손가락으로 거기다 뭐라고 한문으로 다 써 놓대. 그리고 그림에다. 삼 발갈게 오를 때 하면 그것도 잘 잡혀. 그래서 벽에 손 그린 데가 많았어.

#### • 제것

제것은 우리 애들도 다 따졌어. 손을 따주면 비지 같은 게 쪽 나와. 애기들 다 업고 다녔어. 침으로 짜요. 노인네가 짜는데, 담배 한 봉지 사가지고 가. 그게 침 값이야. 그걸 짜줘야 돼. 아프지. 피가 나올 텐데 비지가 나와. 그게 제것 이래. 그걸 그 할아버지가 꼭 눌러 짜요. 그것도 정 안 떨어지면 뭐라고 하지? 영신 할미라고 그러냐? 빨간 가루를 그제 마귀도 쫓는 가루라고.

#### • 간기

간기는 우는 간기. 열이 있으면 그게 생기데요. 열을 내려 줘야지. 자는 간기도 있어요. 그건 어렵대요.

#### • 경기

경기는 열만 있으면 눈을 뒤집고 까무라치는 게 있고.

제보자 : 권두연(남, 73세)부부

## 09. 쌍송2리(거적리)

#### • 하루거리

옛날에 하루거리 잡으려면 고춧에 가서 재주를 넘는 사람도 있고, 할미꽃을 뜯어서 코에 넣으면 매워서 혼나면 낫는 수도 있고. 또한, 멍석에 사람을 말아 놓고 소를 건너는 방법도 있었고.

#### • 홍역

홍역은 산에 가서 산 가재를 잡아서 씻어서 먹여요.

제보자 : (남, 61세)이장, 김홍경(남, 85세), 김부영(남, 76세)노인회장

## 10. 송정리(웃하일)

---

### •삼

삼을 잡으려면 해 뜰 무렵에 생선 젓갈이나 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가서 동쪽으로 가서 바늘로 그 눈을 콕 찌지. 그리고는 웃나무에 꽂아 놓고 와요. 또는 사람 얼굴 그려서 삼 선 눈에 바늘로 찌르고 그 그림을 대문에 붙여놓지요. 엄나무는 대문에 잡귀 못 오게 매달아 놓잖아요. 잡귀 범접하지 못하게 제비털병거지하고 왼 새끼 파서 대문 위에 매달아 놓지. 방비하는 거지요.

### •하루거리

하루거리는 동쪽의 고총에 가서 재주를 넘게 하는데 왼 새끼 묶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내려오지. 또는 할미꽃 잎사귀를 입에다 물고 그럼 입이 통통 붓고 그러잖아. 또 자는 사람 따귀를 때리기도 해요. 물도 그냥 확 끼얹어 놀라게도 하고.

### •홍역

홍역에는 산에 가재 잡아다 고아서 먹이지. 또는 토끼 똥도 주워 삶은 물을 짜서 주고.

### •목살

목살은 복숭아나무 동쪽으로 뻗은 걸 꺾어다가 절구대하고 엄나무 매 놓고 각성바지 셋이 앉아서 똑같은 것을 스물 한 번을 읽어요. 그런 다음 바가지에 담아다 놓은 밥에 침을 뱉고 칼하고 밥 바가지를 버려요.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지고 들어오지.

한번은 그 성바지가 없다고 해서 내가 회초리만 가지고 가서 앉았었어요. 원래는 경을 읽으면서 복숭아채로 패야 하는데. 경은 읽을 줄을 몰라서.

또는 왕자를 써서 거꾸로 붙여놓고. 목살 읽으면 괜찮기도 하고.

### •바른데

바른 데는 세 집 쌀뜨물 걷어다가 죽 쑤서 풀어버리죠.

### •토살

토살 읽는 것도 목살로 대부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금물을 끓여서 흙 붙인 데다 끼얹지? 그걸로 탈 났으면 물러가라고. "발등디리 발등디리" 그러면서 끼얹는다고.

### •담·종기

골담초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전에는 담이 들면 골담초를 삶아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약 사 먹잖아. 그전에는 골담초 나무도 심고, 파리도 심어가지고 종기 나면 터트려 그리고 종기난 데에다가 붙여서 종기도 빨아내고 그랬거든.

### •상문

상갓집 가서 든 상문은 방법은 없고, 무당 불러서 하는 거 밖에 없어. 미리 방비 하려면 거이발(게다리) 그걸 넣고



다녔어요. 상가 집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 올 때에는 집부터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부터 가. 왼발부터 화장실 안에 들어 놓는데요. 그리고 상가집에서 가지고 온 수건이니 뭐니 이런 건 다 화장실에 내 버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일주일 있다가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또 들어 올 때 소금을 끼얹기도 하고 그랬지.

제보자 : 임창익(남, 75세)노인회장, 김규용(남, 72세), 박춘옥(남, 73세)

## 11. 송정리(하일)

---

### ●삼

삼이 서면 뱀뱃이를 가지고 잡았지. 뱀뱃이도 가정마다 다른데, 황새기 짓이나 이런 생선을 바늘로 눈을 찌른다고, 그걸 옷나무에 찢러 놓지. 그럼 낫더라고.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삼을 잡는 사람이나 하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삼 잡는 방법이 있는 거야. 뭐라고 주문을 외우더라고. 그걸 하는 시간이 있는데 새벽에 하나 봐.

### ●하루거리

“하루거리가 걸리면 오래된 무덤(고총:古塚)에 가서 무덤 주변을 세 바퀴 돌다가 재주를 넘어요. 놀라는 거야.” 여느 마을과 같이 하루거리가 걸린 사람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무섭게 겁을 주는 형식이었던 것이다.

### ●두드러기

“두드러기가 나면 부엌바닥 쓰는 비로 소금을 볶아서 몸에 끼얹고 비로 몸을 쓸어내리더라고.” 이 밖에 변소의 썩은 짚을 태워서 연기를 쏘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제보자 : 강○○

## 12. 슬항1리(절골)

---

### ●골절

산골이 돌이야. 반짝반짝한 수정 작은 거, 수정은 크지만 작은 게 수정처럼 반짝반짝한데 길어요. 그런데 여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 땅에서 캐는 건데. 산골은 뼈. 어디 다쳐서 뼈가 부러진 데. 그걸 먹는 거지. 그게 산골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전에는 가서 죄 줌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찾는 사람이 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 ●목살

옛날에는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푸닥거리 하고 그런 거지. 목살경을 읽기도 하고, 이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안 해 봤는데 그전에 우리 아버님이 전에 뽑혀 다녔어요. 원래는 각성이 읽어야 하는데, 이 마을은 이 씨 집성촌이어서 각성이 없으면 그냥 세 사람이 읽는 거지. 각성이 다 못 모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목살도 정신 좋아야 해. 외워야 하니깐.

제보자 : 이길선(남, 80세)

### 13. 슬항2리

---

- 삼

서까래를 자기 나이 수만큼 세어서 꼭 맞는데 송곳을 찔렀어. 그러면 낫더라고요. 눈동자에 서는 삼이 있고, 흰자에 서는 삼이 있고요. 서까래는 대개 왼쪽부터 세어요. 이 서까래를 빙 돌아서 서까래 수가 모자라면 되돌아서 세고.

- 두드러기

두드러기는 이엉을 뽑아서 불을 놓으면서 연기를 씌었다고. 연기 씌고 소금 끼었으면서 중도 괴기 먹더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 하루거리

하루거리는 멍석을 말아 놓고, 소를 건너게 하는 수도 있었고. 할미꽃 그거 다려서 먹었지. 소를 넘기는 거는 겁을 주는 거고, 그냥 언덕비탈에 확 떼다 미는 것처럼 해서 놀라게도 하고 그랬지. 하루거리가 쇠면 머느리고금은 침으로 잡았어.

- 횃배

횃배는 화로에 돌을 구워서 수건에 싸서 배에 대는 거지.

- 홍역

홍역에는 산에서 사는 가재 삶아서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남양 봉림사 골에 가재가 많았어.

- 목살

목살 읽는 사람이 있었어. 절구공이에 흰 새끼를 매놓고 복숭아채 세 개 가지고 읽는 거야. 각성반이 셋이 읽는 거야.

제보자 : 경○○(남, 75세)

### 14. 청원1리

---

- 삼

담벼락에 사람 얼굴 그리고 삼이 선 눈을 바늘로 찍어 뒹요. 해 돋을 때 해요. 다른 방법은 뽕뎡이 눈에 찔러서 담벼락에 꽃아 뉘요.

제보자 : 이인구(남, 83세), 방극영(남, 54세)이장, 허예범(여, 78세)

### 15. 청원2리(수루지)

---

- 삼

삼을 잡을 때는 아침 해가 뜰 때 상에다 청수 떠다 놓고, 그리고 어떤 물고기도 상관없이 물고기를 잡아서 진언을

하면서 그 눈을 송곳으로 찌르기도 했지. 그리고 진언을 하면서 찌른다고, 그리고 나서 나무에 박아놔. 집 안에 나무 있잖아. 기둥이나 대문 옆이나 이런 데 찢러 놓는다고 삼이 생기는 이유는 열삼이라고 하고, 사람이 너무 신경을 쓰고 흥분이 된다든지 하면 그럴 때도 생긴다고 하던데.

• 태열

아이 낳을 때 삼짚을 깔고 낳는데 태는 그냥 태워요 태열 할 때 발라주기도 했지요.

제보자 : 송기보(남, 72세)노인회장

## 16. 청원3리(청룡)

---

• 삼

(경상도)삼 잡는 것도 여러 가지던데. 조왕 앞에서도 잡고, 우물가서도 잡고, 해돋이에서도 잡고 여러 가지야. 조왕에서 물 떠놓고, 바늘을 꽃아 놓고 그걸 물에 띄우더라고, 조왕에서 삼 잡는다고, 아무개, 몇 살 먹고 눈에 삼이 섰으니까 조왕님 잡아 달라고.

우물도 마찬가지로. 삼 때가 있잖아요. 우물 앞에 가서 정안수 떠 놓고 절하고, 용왕님께 잡아달라고 해요.

옛날에는 조왕을 흠을 발라서 했잖아요. 동토가 나도 삼이 서요. 또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픈 수도 있고, 애들이 아파도 물을 떠가지고 조왕님한테 가서 빌어요. 아무개가 아프다고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빌면 낫는 수도 있고, 삼이 서도 조왕 앞에 가서 빌어요. 그래서 정월 보름날 밥 하면 먼저 조왕님한테 바치잖아요. 그다음에 성주, 그다음에 터주 앞으로 가고, 용단지 가고, 쌀 담는 단지를 용단지라고 하는데 거기도 밥 한 그릇 놓고, 조왕님을 제일 먼저 섬기죠. 첫째 아니에요.

• 하루거리

(충청도)하루거리 그거는 잡는 것도 안 되고, 앓을 만큼 앓아야 되고. 하루거리를 잡으려면 아침이면 마당에 가서 멍석에 사람을 말아 놓고 소를 위로 넘겨요. 소가 밟으면 죽을 까봐 무서운데 안 밟아요.

다른 방법은 또 그렇게 이틀 사흘씩 앓으면 다니다가 저런데 소똥 있으면 떠다 밀고, 놀라면 낫는가 봐요. 그럼 낫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 흥역

(충청도 당진) 흥역이 나서 에서는 꽃이 많이 오를 때는 열이 펄펄 나서 자꾸 시원하게. 가재 잡아다가 물도 해 먹여 보고 그랬지.

• 두드러기

중도 고기 먹더니, 소금을 끼얹고 화장실 썩은새로 쓸어주지.

(경상도)에서는 씨커먼 거 덮어 씌워 놓고 쓰지요. 불, 재래식 화장실 지푸라기 한 움큼 빼다가 끝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보자기 씌워놓고 '두드러기 쓸자' '삼한두드러기 쓸자, 집안 두드러기 쓸자'고 하면서 쓰지요. 아궁이 앞에서 해요.

그러면 괜찮더라고, 그거는 꼭 화장실 썩은새로 해.

꼭 세 모습을 빼다가 불을 놓고 연기를 썩여 가면서 하더라고. 소금을 끼얹어 가면서.

제보자 : 김주현(여, 80세, 경상도), 김순덕(여, 74세, 공주)  
변선관(여, 84세, 황해도 연백), 박선분(여, 86세, 당진)

## 17. 해문2리(아랫말, 회룡곡)

---

### ●삼

삼이 서면 아침에 해 뜰 적에 해를 쳐다보고 바늘에 실을 꿰어서 물을 어떻게 하고, 우리 당숙모가 그걸 잘 하셨어.

### ●골절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면, 절골 뒷산, 동쪽에서 해 뜨는 산이거든, 거기서 지금도 민간요법으로 산골<sup>4)</sup> 줍는 사람 있을 걸? 정형외과에 입원해서 지금도 산골 먹는 사람이 있어. 산골을 시중에서도 파는 데가 있어. 여기는 의례 거기 가서 줍는 양반이 있어. 그걸 그 양반한테 돈 좀 주고 사다가 먹고 그랬어.

### ●두드러기

처마 끝에 영가다 빼다가 빗자루로 쓰는 거 같던데. 몰러.

### ●목살

목살 읽는다고 그러지. 옛날에 그거 잡으러 다니는 어른들 몇 분 있어. 삼성이 모여서, 흥두깨하고 복숭아 가지로 때리면서 목살 읽는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것이 아주 미신이 없는 것도 아닌가봐.

### ●체했을 때

뭐 먹고 별안간 체 했을 때. 죽 썩서 내 버리고 그랬지. 귀신 먹고 나가라고.

제보자 : 홍순용(남, 63세)노인회 총무

4) 산골[自然銅] [한의] 구리가 산출되는 곳에서 나는 푸른빛을 띤 누런색의 쇠붙이. 이황화철,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하며 부러진 뼈를 잇게 하는 약으로 쓰인다.

京畿道 華城市 麻道面

口碑傳承 民俗資料

照查集 第十二卷

## 화성문화원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12. 마도면편

초판인쇄 2014년 12월 23일

초판발행일 2014년 12월 23일

발행처 화성문화원 www.hsec.or.kr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287-1

Tel) 031-363-6330 Fax) 031-353-6331

발행인 고정석

저자 김용국

편집/디자인 이야기너머

교정교열 이야기너머

제작인쇄 거목인쇄

총괄지휘 및 집필자 김용국 문학박사(구비문학전공)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원장

연구진 이도남 문학박사(한국사전공),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수석 연구교수

박태규 학술박사(한일비교문화 전공), 동아시아전통문화 연구원 연구교수

이정인 문학박사(중국전통연희 전공), 동아시아전통문화 연구원 연구교수

간호배 문학박사(한국현대문학전공), 동아시아전통문화 연구원 연구교수

김영호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

윤의영 (섭외담당) 동아시아 전통문화연구원 연구원, 사무처장(제보자 섭외 및 자료정리)

유민수 동아시아 전통문화연구원 연구원 (민속학 전공, 조사일정 및 자료정리)

김용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연구원, 무속연구가, 영상자료 담당

ISBN 979-11-950970-8-1 (비매품)



● 본 책자에 수록된 제보자의 나이는 2009년 조사 당시임을 확인합니다.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12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편

비매품

이책은 화성시의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12



**화성문화원**

*HwaSung Cultural Center*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287-1  
TEL 031-686-6330 FAX 031-353-6331  
[www.hsc.or.kr](http://www.hsc.or.kr)

비매품 03380



9 791195 097081  
ISBN 979-11-950970-8-1